



5

주 제 87 (1998)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주체87(1998)년 제 5 호

(루계 제 607 호)



◆◆◆◆◆◆◆◆◆◆ 차 례 ◆◆◆◆◆◆◆◆◆◆

작가들은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시대의 기수가 되자	4
장군님 따라 앞으로!	6
천하제일명장	7
구월산의 등산길	10
강행군길우에 높이 울리는 자력갱생의 노래, 신념의 노래	11
모시고싶어	12
꿈에 대한 담시	13
민족대단결의 대강을 받아안고	14
통일주제작품창작을 활발히 벌리겠다	14
이 감격, 이 흥분을 격조높이 노래하겠다	15
북방의 령길과 더불어	16
렬사들의 자욱을 따라서	17
아름다운 꽃	19
뜻과 사랑을 따른다	20
간절한 마음	24
봄비내리는 강반에서	33
나는 뵈웠네	33

나는 어머니를 봅니다.....	34
변함없는 모습	35
초록의 나무에게	42
하나의 영근 이삭을 두고	43
영웅에 대한 생각.....	45
내 선뜻 다가설수 없으라	46
북창은 말한다(외 1 편).....	46
나의 길동무.....	48
영웅의 마음.....	49
사랑의 그 씨앗(외 1 편).....	56
부러운 고장.....	57
량심이여	57
서정시 《어머니》에서 새롭게 탐구된 서정세계를 두고	58
절개	61
백두삼천리벌의 설레임소리(외 1 편).....	62
북창은 숨신다	63
함정	64
인생의 천하지대본.....	69
초소엔 맑은 샘(외 2 편).....	73
사랑과 증오.....	75
삼룡산.....	76
내 고향은 농촌입니다(외 1 편).....	79

작가들은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시대의 기수가 되자

지금 온 나라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일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구호를 높이 받들고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따라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모두의 삶과 운명의 요람이며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부강번영의 영원한 기치이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가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공화국과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길에서 기어이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것은 오늘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구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력사의 온갖 풍파와 만난을 헤치고 승리하여 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위대한 인민의 령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불굴의 혁명정신과 뜨거운 애국심을 지니고 견인불발의 투지와 기백으로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장엄한 강행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를 높이 받들고 공화국창건 50돐이 되는 올해를 새로운 진격의 해, 혁명적대고조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로 조국력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되게 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우리 인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들을 새로운 천리마대고조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인민들에게 우리 당의 담력과 혁명적량만을 안겨주는 시대의 명작, 명곡들을 더 많이 창작하라!》

오늘 우리 작가들이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받들고 시대정신이 나래치는 명작을 창작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 문학작품들이에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따라 새로운 천리마대고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진실하게 반영하는것이다.

자강도안의 일군들과 성강의 로동계급은 50년대 강선의 로동계급처럼 우리 혁명이 엄혹한 시련을

겪는 시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여 전국의 앞장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내세워주신 강계정신, 여기에는 필승의 신념과 강毅한 의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비롯하여 오늘의 강행군전투에서우리 인민들이 높이 발휘해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 품모가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성강의 봉화, 여기에는 우리 혁명이 준엄한 시련을 겪을 때마다 수령님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만난을 이겨내고 승리하여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며 장군님의 호소따라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려는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숭고한 충성심과 불굴의 의지가 담겨져있다.

전후 강선정신, 강선의 봉화가 세인을 경탄시킨 천리마대고조의 원동력, 기치로 되었다면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는 오늘의 사회주의강행군전투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새로운 대고조으로 불려일으키는 힘있는 추동력, 기치로 되고있다. 강계정신은 오늘의 천리마정신이며 성강의 봉화는 새로운 천리마대고조의 봉화, 새로운 전환과 비약의 봉화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에서 강계정신과 성강의 봉화가 차지하는 력사적지위가 있고 커다란 견인력이 있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강계정신과 성강의 봉화를 따라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고무추동하는 쇄소리나는 시대의 명작들을 팡팡 써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종류의 성과작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현시기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높이 받들고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따라 새로운 대고조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고무추동하는 작품을 창작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형상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받들어나가는 수령절대숭배,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이 꼭 넘쳐나게 하는것이다.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목숨보다 더 귀중한것은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며 수령옹위의 정신이다. 령도자는 혁명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며 모든 승리의 상징이다.

우리 혁명의 앞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장군님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려는것은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적품모이다.

자강도인민들과 성강의 로동계급이 《고난의 행군》을 하는 어려운 시기에도 자기 고장과 자기의 공장을 훌륭히 꾸려놓은것이나 장군님의 구상과의 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맨 앞장에 선것은그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을 지녔기때문이다.

우리 작가들은 현실주제의 모든 작품들에서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리라는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장군님을 실천행동과 실지 사업성과로써 받들어나가는 주인공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또한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문학작품들에 반영하는것이다.

혁명은 수령의 뜻이며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여기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자강도인민들이 당의 의도대로 도처에 수많은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성강의 로동계급이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자력갱생기지를 꾸려놓은것,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과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한목숨 바쳐서라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그들의 드팀없는 립장과 고상한 투쟁기풍의 반영이다.

우리 작가들은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그런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이악하게 투쟁하는 시대의 전형적형상을 창조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힘을 넣어 형상하여야 할 주인공은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고 령도자가 제시한 과업을 어떤 풍파와 시련이 막아서도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며 끝까지 관철해내는 우리일군들의 전형적인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현시기 매우 의의있는것이다.

령도자의 뜻을 충성과 효성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적기질이다.

전후 강선의 로동계급은 1만톤의 강재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6만톤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편을 뽑아냈다. 자강도인민들이 전력문제해결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고 성강의 로동계급이 새로운 대고조의 선봉에 선것은 전후 강선의 로동계급이 발휘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계승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작품의 주인공들을 형상함에 있어서 우리 인민의 이러한 성격적특질, 고유한 성격의 핵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체현시켜야 한다.

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제 힘을 믿고 일하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작품에 구현하는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에 손을 내밀지 말고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풀어나가자, 이것이 자강도인민들과 성강로동계급의 뜨거운 심장마다에 억척같이 뿌리내린 신념이었다. 그들은 이 신념, 이 정신으로 중소형발전소도 자력 갱생기지도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건설하여놓았다. 그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였지만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필요한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만들어냈다. 이들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변시킨 자력갱생의 선구자, 시대의 전형들이다.

우리 작가들은 현실주제작품의 모든 형상마다에 제 힘을 믿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의의있는 형상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투철한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 오늘의 강행군을 힘차게 다그쳐 공화국창건 50돐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는 올해의 강행군전투에서 우리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진과 투쟁의 기치이다.

모든 작가들이여,

당중앙위원회 구호에서 제시된대로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인민들에게 당의 담력과 혁명적량만을 안겨주는 시대의 명작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높은 수준에서 창작하자.

하여 강제정신과 성강의 봉화따라 새로운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높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강행군길에서 우리 문학이 고무적기치가 되게 하자.

장군님 따라 앞으로!

최영화

걸으신 그 길은
따스한 봄날
꽃이 피는 들길이 아니었다
봄바람 부는 언덕길이 아니었다

장군님 걸으신 그 길은
겨울도 대한강추위때
눈쌓인 북방의 험준한 산길이였다
길도 눈보라 울부짖고
박달나무 째깍 얼어터지는
엄동설한길이였다

하지만 이제 이 겨울이 지나면
피는 꽃이 더 아름다와질
조국의 오는 새봄을
타신 차에 함께 싣고 헤쳐가신 눈길

때로는 눈무지에 빠진 차도 미시고
때로는 추위에 떠는 새벽 별빛도 밟으시고
때로는 차창에 흰 눈꽃잎들이 날리면
오는 봄과 함께 즐거이 이야기도 나누시며
이어가신 6천여리

청사에 빛날 이 길은
전후 시련의 날
강선을 찾아
천리마를 날려주신 수령님 그 모습으로
어려운 강행군의 오늘
자강도를 찾아
자력갱생의 봉화를 지펴주신 장군님의 길

자강땅 크고 작은 강줄기들에 일떠선
자랑스러운 중소형발전소들
자력갱생의 기치아래 태어난
공장의 전기화
마을의 전기화
가정의 전기화

그 빛과 열을 곳곳에 늘이며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락원의 행군을 한 그 신념과 락관에서
당의 심장으로만 고동치는 계급의 심장을
그리도 기쁘시여 미더웁게 안으시고
하루에 천리를 주름잡아가신 6천여리

내 나라를 돌고도 남는
그 먼먼길을
《자력갱생열차》에 전국을 실으시고
몸소 《자력갱생》호 기관차를 몰아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진두에서 이끄신 우리 장군님

장군님의 그 길을 이어
오늘의 승리역에서
태일의 최후승리역까지 줄곧 뻗어간
우리의 자력갱생궤도

그 궤도로우로 전당 전국이
자력갱생의 숨결높이
겨울을 녹이는 봄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질풍같이 내달리나니

우리는 들어서리라
붉은기를 자랑차게 휘날리며
우리의 강행군 최후승리역에
우리는 기어이 들어서리라
장군님 이제 꽃피우실 조국의 새봄을 싣고
기적소리를 높이높이 뽐으며...

들어서서는
승리자의 최후웃음을
온 세상이 들썩하게 크게 웃으리니
온 지구가 흔들리게 소리높이 웃으리니

그 최후의 웃음을 위해
장군님 따라 앞으로!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락원의 행군으로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
장군님의 자력갱생궤도로만 돌진해 가리라

천하제일명장

예로부터 적의 진중에 화살 한대 날리지 않고 싸움에서 이기는 장수를 명장중의 명장이라 하였으니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과시 천하제일명장이심이 분명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핵무기와 딸라로 으시대던 군사대국과 경제대국을 총 한방 쏘지 않고 굴복시키시었으니 우리 인민은 물론 온 세계가 그이를 회세의 명장으로 높이 칭송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더우기 《핵사찰》 소동을 벌리던 미제가 주체 82(1993)년봄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리고 《팀스피리트-93》을 재개하였을 때 그것을 세계의 면전에서 보기 좋게 격파해버리신 **김정일** 장군님의 비범한 지략과 무비의 담력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남조선피뢰군과 미군사병들속에서 전설처럼 널리 전해지고있다고 한다.

이 전설은 얼마전에 의거입북한 한 피뢰군사병이 구술한 이야기에 기초한것이다.

요즘 남조선피뢰군과 미군사병들속에서는 《7》이라는 수자에 대한 흥미있는 말들이 자주 화제에 오르곤한다고 한다.

누가 먼저 그런 묘한 생각을 하였는지는 모르나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7》이라는 수자에 대한 신비한 생각이 절로 든다.

사람의 눈이 식별할수 있는 빛같은 일곱가지인데 적, 등, 황, 록, 청, 람, 자 즉 칠색무지개빛이다.

사람의 귀로는 일곱가지 소리를 가려듣는데 즉7음부이다.

입으로 가릴수 있는 맛도 일곱가지(단맛, 쓴맛, 매운맛, 짭은맛, 짠맛, 신맛, 감칠맛)요, 코로 식별할수 있는 냄새도 일곱가지라고 한다.

뿐만아니라 사람의 정서적인 변화도 일곱가지인데 희, 노, 우, 사, 비, 공, 경 즉 기뻐하고 성내고 근심하고 생각하며 슬퍼하고 놀라고 겁내는것이다.

사람의 신체를 떠나 자연을 둘러보아도 어디에나 《7》이라는 수자가 깃들어있다고 한다.

간단히 일추 쏘아보면 물질의 존재방식도 일곱가지(고체, 기체, 액체, 플라즈마, 전기마당, 자기마당, 핵마당)요 보석도 일곱가지여서 칠보

(금, 은, 마노, 진주, 호박, 차거, 산호)라고 하며 명승고적에서도 일곱가지를 골라 세계 7대명승이라고 한다.

어디 그뿐인가?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 때 6일간 일을 하고 하루를 쉬었다고 하여 한 주일을 7일로 정하였으며 불교에서는 그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태어나 7일만에 어머니가 죽었는가하면 보리수나무밑에서 7일간 사색을 계속하여 해탈의 기쁨을 맛보았다고 한다.

그러고보면 《7》이라는 수자는 인간생활과 자연그리고 종교세계에서 묘하게도 많은 공통성을 띠고있다.

그런데 왜 사병들속에서 《7》이라는 수자가 자주 화제에 오를까?

《7》과 우리 장군님과는 어떤 인연이 있을가?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7》을 넘어설수 없다고 한다.

이른바 《위인》이라는 사람만이 《7》에 이르는것이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7》을 훨씬 초과하여 《10》이나 《20》 아니 그이상을 지니고 계시는 명장중의 명장이시라는것이다.

이 말이 돌기 시작한것은 《팀 스피리트-93》 합동군사연습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략에 의해 총파탄된후부터라고 한다.

당시 미국방장관은 레스 애스핀이었는데 이놈은 머리가 좋아 《수재》로 명성을 떨쳤다고 한다. 미국에서 일류급대학으로 손꼽히는 예일대와 메사추세츠공대에서 공부를 하였고 영국 옥스포드대학에도 류학을 했다는 애스핀은 자기야말로 《7》을 완전히 갖춘 《수재》라고 자부하면서 코대가 높았다고 한다.

항간에서 도는 말에 의하면 애스핀에게는 먼 조상때부터 내려오는 가보인 호신부가 있는데 그것이 신비한 힘을 낸다고 하였다.

홍옥이란 말도 있고 흑진주라는 말도 있는 하여간 그 호신부만 지니고있으면 머리가 잘 돌아 무슨 일이든지 계획한대로 하면 패하는 법이 없고 늘 성공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몸에 품고다니는 애스핀은 남을 깔보는 버릇이 있다고 하였다.

클린톤이 미국대통령으로 된후 행운을 만나 국방장관이 된 애스핀에게 제일 처음으로 맞닥든 큰 문제는 조선문제였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과 국방장관들이 해결 못한 조선문제를 제가 군사적으로 타결함으로써 명성을 떨쳐볼 꿈을 꾸고있었다.

폭신한 쏘파에 몸을 맡긴 애스핀은 이궁리저궁리 하며 생각을 공굴리듯하고있었다.

어떻게 해야 조선을 타고았을수 있을까? 저 작은 나라를 두고 세계 유일초대국인 미국이 끌머리를

않는다는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다국적무력을 동원하여 이라크처럼 조선을 힘으로 제압하는 길밖엔 다른 방법이 없단말이야.)

주머니에 손을 넣은 애스핀은 이런 속구구를 하고있었다. 그의 손안에 매끈매끈한 호신부가 쥐여있었다. 호신부를 매만지며 이런 궁리를 하는 애스핀은 역시 자기 집 가보가 현명한 방안을 생각하게 한다고 흐뭇해하였다.

그는 2년전 1991년 만전쟁때에도 이 가보의 덕으로 《현명한 안》을 내놓아 이름을 냈던적이 있었다.

당시 미하원군사위원회 위원장을 하던 애스핀은 미군이 바그다드를 공습하기 2~3주일전인 1월초에 미군주도하의 연합군이 신속한 공격만 한다면 별다른 인명손실이 없이 승리할것이라는것을 예측하는 백서를 발표하였었다. 그는 그 백서에서 공습날자까지 밝혔는데 바그다드 공습이 끝난뒤 그에측이 정확하다는것이 립증되었다는것이다. 그보다 전에는 하원의원이 된뒤 국방부의 예산랑비를 자기의 무기체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폭로함으로써 동료들속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자기의 선배가 7명이나 있는 하원군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애스핀은 하원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7년동안이나 있다가 국방장관이 되었다.

역시 《7》은 애스핀의 운명에서 뿔레야 뿔수 없는 수자였다.

군생활경험은 전혀 없으나 순전히 군사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국방장관까지 된 애스핀은 날이 갈수록 자기집 가보를 매우 귀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는 그것으로 하여 자기는 《7》을 다 지닌 인간이라는 자부를 느끼고있었다.

애스핀은 클린톤을 찾아갔다.

《대통령각하! <팀-93>을 다시 재개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는 서두도 없이 다짜고짜로 이렇게 말을 뱉었다. 대통령의 머리속엔 《조선문제》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지라 구태여 다른 말이 더 필요치 않았다.

《국방장관, 모든것을 심중히 타산해보고 하는말이요?》

클린톤은 자기보다 나이가 몇살 더 많은 애스핀을 보지도 않고 창밖에 눈을 준채로 이렇게 물었다. 《물론 모든것을 다 타산해 보았습니다.》

《조선은 이라크와는 다르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되오, 알겠소?》

클린톤은 갑자기 획 돌아서더니 애스핀을 눈한번 깜빡하지 않고 뚫어지게 보았다.

애스핀은 클린톤이 너무도 자기를 깔보는것 같아은근히 속이 뒤틀렸다.

그러나 대통령앞이라 어찌지 못하고 뻔해진 얼굴

로 자기의 안을 설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는 북조선에 대한 <핵사찰>을 수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단서도 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군사대상에 대한 사찰을 하려고 하였으나 북조선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 어찌지 못하고있습니다. 오직 여기에는 힘으로 북조선을 놀래워위압을 하는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대병력을 동원하여 《팀-93》훈련을 하는척하다가 기회를 보아 선제타격을 가하는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팀-93> 재개?》

클린톤은 애스핀의 말을 되뇌이며 잠시 생각해보았다.

애스핀이 내놓은 《연막탄전술》은 별로 새로운것이 아니었다.

전쟁력사에는 이런 실례가 얼마나 많은가? 히틀러가 소련을 불의에 공격할 때도 기만이란 연막을 쳤었고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킬 때도 우호와 협조를 설교하며 불의에 진주만을 기습했었다.

교활한 이스라엘은 시나이반도 근처에서 《년례적인 훈련》을 벌인끝에 예쥘트의 국경을 침공하지 않았는가.

조선전쟁의 불을 지를 때에도 선임자인 트루먼은 육군장관 프랑크 베이스, 극동문제국무차관보딘러스크와 함께 《주말휴가》의 명목으로 워싱턴을 떠나 자기 별장들에서 《안식의 날》을 보내며 《북진》의 포소리를 기다렸었다.

이때 델레스와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는 소환장을 받고 교토와 요코하마항에서 《귀국》의 배길에 올랐고 리승만은 창경원 못가에서 낚시줄을 드리우고있었다.

지난 조선전쟁도 미국은 참으로 철저하게 연막을 치고 일으켰었다.

이미 남들이 많이 써먹은 낡은 방법이였으나 그렇다고 이보다 더 좋은 명안이 없으니 클린톤도 이안을 승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애스핀은 구체적인 작전을 세웠다.

하와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미군사령부작전조를 서울에 끌어들이고 미국본토에 있는 최신형무기로 장비한 유럽 《신속반응전개무력》인 미제3군단의 선견대와 핵전략폭격기, 초대핵항공모함들을 남조선에 집결시켜 군사연습이 실전으로 이행하는 경우 해외의 대규모적인 군사력량을 투입하고 그에 대한 지휘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북조선이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무력행사를 하자는것이였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것은 실동 《공격》날자였다.

애스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만전쟁때처럼 공격날자를 정확히 계산해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국방장관은 자신이 직접 그 날자를 정하기

로 하였다.

실동 《공격》 날자는 바로 선제타격날자인것이였기때문이었다.

애스핀은 그 날자를 3월9일로 정하였다. 여기에는 많은것이 타산되였다. 물론 애스핀의 가보인 호신부의 도움인지 모든것이 잘 타산되고 머리가 절로 잘 돌아왔다.

이제는 이것을 극비에 붙이는것이 문제였다. 이 날자를 아는것은 대통령, 미중앙정보국장 그리고 애스핀 이 세사람뿐이었다.

애스핀은 실동 《공격》 날자를 숨기기 위한 여러가지 작전들을 폈다.

일본의 엔에취케이방송을 통해 남조선의 괴뢰군한개 대대가 3월7일 포항에 상륙하는것으로 《팀 93》 실동 《공격》 개시를 한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3월 8일 미국본토에서 특수부대를 포항에 직송한다는 보도도 날리였다. 그런가 하면 놈들의 《청군》 방어준비가 3월 15일에 끝난다는것도 공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3월 7일인지 3월 8일인지, 아니면 3월 15일인지 어느날이 실동 《공격》 날자인지 알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만전쟁에서 악명을 떨친 일명 《송곳부대》가 미국본토에서 떠나 하와이, 일본을 거치지 않고 3월 8일 17시 포항에 도착하여 장거리수송의 멀미를 가신 다음날인 3월 9일 아침 《공격》을 개시하여 6일만인 3월 15일 남한강을 도하하게 되여 있는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였다.

모든 작전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였다. 애스핀은 속으로 패재를 불렀다. 자기의 명성이 세계를 들었다놓는 환영이 떠올랐다.

3월 8일 밤, 그는 한잠도 잘수가 없었다. 애스핀은 촉배잔에 술을 미리 부어놓고 《승리의 종소리》를 기다렸다. 성공에 도취된 감정을 지금처럼 느껴보기는 처음이었다.

부쉬행정부가 제시한 5년간의 군사비 1조 4천억 달러에서 480억달러의 감축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내놓아 자기의 《현명성》을 보여주었을때도 이렇게 기분이 들떠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3월 9일 아침, 이 어인 청천벽력인가?

아군의 실동 《공격》 소식을 기다리고있는 애스핀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명령이 적힌 문건이 들어왔다.

그는 너무 깜짝 놀라 기절할 지경이었다.

《이럴수 없어! 이럴수 없단말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였다.

전국, 전민, 전군이 준전시상태에 들어갈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적힌 종이를 쥔 애스핀의 손은 후들후들 떨리였다.

《우리들의 실동 《공격》 날자에 북조선이 먼저

공격을 하다니? 어떻게 비밀이 새어나갔단말인가?》

이때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국방장관,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글쎄올시다.》

애스핀은 뭐라고 할지 망설이다가 이렇게 애매한 대답밖에 할수 없었다.

북조선에서 어떻게 3월 9일이 실동 《공격》 날자인지 알고 먼저 선손을 썼을까? 누가 비밀을 루설하였는가?

대통령, 중앙정보국장, 국방장관 이 셋중에 그 누구도 의심할수 없었다. 애스핀은 눈앞이 아찔했다. 천정과 방바닥이 엇바뀌여 빙글빙글 돌아갔다.

그는 수화기를 든채 모로 쿵-하고 넘어졌다.

그가 정신을 차린것은 병원침대우에서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헛소리를 쳤다.

그는 자기의 가보인 호신부를 손에 들고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인젠 아무런 맥도 못춘단말인가?)

《**김정일**장군!》

그는 가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다가는 우들우들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군하였다.

태평양건너 멀리 동쪽하늘에서 번개가 일고 우뢰소리가 울리면 또 정신을 잃고 졸도하였다.

그후 애스핀은 전승 40돐 경축 군중시위 주석단에 나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텔레비존으로 보고는 아예 미쳐버렸다고 한다.

자료에 의하면 그해 12월 애스핀은 종시 미국방장관자리에서 쫓겨나고말았다.

신문에는 소말리아에 대한 미군개입문제와 관련하여 《현실감결여》라는 딱지를 붙여 애스핀을 밀어냈다고 하였지만 실지는 《팀 93》의 패배를 책임지고 쫓겨난것이였다.

그후 애스핀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명령에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그때 받은 충격으로 생긴 심장병이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 오래동안 앓았다고 한다.

얼마전 미국의 에이피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애스핀은 종시 수술을 받고 심장박동기를 이식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백악관과 펜타곤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때의 일을 두고 풀지 못할 수수께끼가 한두가지 아니였다.

중앙정보국이 총동원되어 비밀이 어떻게 새어나갔는가를 알아보았는데 절대로 비밀이 루설된것은 아니라는것이 판명되였다.

그렇다면?

적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지략앞에 손을 들고말았다.

장군님께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평양에 계시면서도 손금을 보듯 환히

다 알고계시었다. 그렇기때문에 적들이 아무리 우리 나라를 어찌보려고 발악하여도 놈들의 책동은 걸음마다 분쇄되고마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앞을 환히 내다보는 보물을 가지고계신다는 소문이 미군과 피뢰군 속에서 퍼지였다고한다.

앞을 환히 내다보게 하는 보물이 무엇일가?

적들은 이것을 알기 위해 오래동안 무진 애를 썼는데 결국 알고보니 《주체》라는 신묘한 지휘봉을 물려받았다는것이였다.

《7》을 훨씬 초과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시고 명장중의 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과는 아무리 미국이

어찌고저찌고 해도 안된다는것이 분명하였다.

보석은 진흙속에서 더 빛나고 명장의 모습은 역경속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법이다.

김정일장군님은 온 세계가 역경속에서 허덕일때 조국을 구원하신 회세의 령장이시다.

적들이 발악하고 준동할수록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은 더욱 빛나고있다. 그러니 미국은 되려 우리 장군님을 천출명인으로, 천하제일명장으로 더욱 부각시켜주고있는 역할을 하고있지 않는가!

김우경

구월산의 등산길

리영백

순탄한 날에
네가 열렸다면
벼랑턱에 쌓은 돌 하나를 보아도
내 눈시울 이처럼 뜨겁게 젖지 않으리
구월산 등산길이어

내 몸을 뺄스에 싣고
굽이굽이 노래속에 오르는
구월산의 등산길
너는 얼마나 간고한 날에
이렇듯 넓게넓게 열렸더나

침략의 검은 구름 몰아오는
천만대적을 단신으로 맞받아
경애하는 장군님
전선에서 전선으로 씩없이 이어가신
그 로고의 길우에서 열렸나니

어버이수령님의 유훈 받들어
5대명산중 구월산을
인민의 유원지로 가꾸어주시려고
병사들을 불러 건설의 포성 높이 올리신
우리의 장군님

전선시찰의 끝없는 그 길을 이어
찾아오고 또 찾아오시여
풀마다 봉이마다 다 돌아보시며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그 자욱자욱
자꾸만 눈에 밝혀 눈물이 나는구나

아득한 사상봉에 붉게 타는 단풍도
천야만야 은구슬 뿌리는 이단폭포도
누구나 쉬이 올라보라고
장군님 험한 길을 걸음걸음 헤치시여
환하게 열어주신 구월산 등산길이어

너는 《고난의 행군》 진두에 서신
준엄한 그날조차
작은 새소리 벽계수소리에서도
여기에 넘칠 인민의 웃음소리 안아보시는
장군님 심중에서 태어난 사랑의 대화원

너는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시는
장군님 의 숭고한 인생관으로
밤하늘의 은하수마냥
미래의 밝은 빛 온 천하에 뿌리며
행복의 상상봉에 치달아오른 조국의 모습

나는 오르노라
꽃수레에 척 앉아 아흔아홉굽이
감사의 정 덧쌓으며 아흔아홉굽이
오를수록 절경이요 오를수록 새 전설도 많아
영영 내리고싶지 않은 구월산 등산길이어!

어려운 날 장군님의 인덕으로
높이 솟은 명산, 환히 열린 길이기에
오르고 올라도 다는 오를수 없어
내 여기 바위되어 서있어도 좋으리
내 여기 단풍되어 피어나도 좋으리



강행군길우에 높이 울리는 자력갱생의 노래, 신념의 노래

오늘 우리 인민이 다그쳐나가는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길은 온갖 시련과 역경을 뚫고 헤쳐나가는 성스러운 혁명의 길이며 오직 이 길우에 사회주의의 결정적승리가 있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걸어온 그 의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 재더미를 헤치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이 땅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그 정신, 그 기풍으로 력사의 만단을 이겨내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가기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송고한 뜻과 의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송고한 뜻과 의지가 담긴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이 노래는 오늘 우리 인민이 견인불발의 의지로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헤쳐나가는 강행군길우에 높이 울려퍼지며 사람들에게 힘과 열정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끝없는 투쟁과 창조에로 불러일으켜주고있다.

올해 설날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머나먼 전연시찰을 마치고 돌아오시어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보아주시였다.

그날 공연에서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인민군군인들의 철의 신념과 불굴의 기상을 담은 여러 합창곡목들과 함께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도 무대에 올랐다.

불빛도 아름다운 락원의 밤이여
꽃물결 흘러가는 조국의 거리여
이 행복 주시려고 우리의 수령님
빈터우에 건국의 첫삽을 뜨셨네

깊은 사색과 숭엄한 감동으로 이끌어가는 노래가 여운을 남기며 끝났을 때였다.

뜨거운 감회에 잠겨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해당 일군에게 방금 부른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르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재청에 따라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는 다시금 무대우에서 힘차게 울려퍼지였다.

그 노래를 들으며 깊은 명상에 잠겨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에게는 노래에 깃든 감동적인 사연이 되새겨져 눈시울이 젖어 들었다.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이 노래는 20년 전에 창작되어 이 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 세상에 서 으뜸가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마련 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업적을 새겨 주며 인민들의 사랑속에 널리 불리워져왔다.

그 노래를 합창으로 새롭게 형상하여 처음으로 공연무대에 올린 두해전 어느날이었다.

그날 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를 들으시다가 격해지는 심정을 금치 못하시며 한 일군에게 이 노래가 언제 나왔는가고 물으시였다.

류다른 심정이 비낀 그 물으심에 대답을 올리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던 일군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던것이다.

그날 공연이 끝났을 때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노래를 들으며 자신께서는 모든것이 폐허로 된 빈터우에서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려고, 인민들에게 크나큰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한평생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가 되새겨져 격해지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조국이 해방된후 첫 기슭에서부터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계시면서 건국의 초행길과 전후의 어려운 나날에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어 빈터우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과 업적을 끝없는 숭배심을 안고 가슴에 뜨겁게 새겨오신 우리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을 훌륭한 인민으로 키워주시고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습니다.》

선견지명의 탁월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로고로 이 땅에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떠받들 공장들과 락원의 도시들, 사회주의농촌을 일떠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천년만년의 세월이 흐른들 어찌 잊을수 있으랴.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잊을수 없는 그

나날의 추억을 생동하게 불러오는 그 노래를 들으며 아버지수령님 생각에 가슴이 후터워오시여 격정의 눈물을 금치 못하시었던것이다.

그후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보아주시실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고 마음속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시며 아주 좋은 명곡이라고, 잊을수 없고 아꼈만한 노래라고 말씀하곤하시였다. 우리장군님의 심중에 언제나 울리는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 노래와 함께 온 녀석으로 아버지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지난 몽상의 3년간에도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을 따라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곤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철저히 관찰할 철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시며 험로역경의 길을 단신으로 헤치시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시고 빛내여오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창건하신 공화국의 반세기력사가 아로새겨지는 뜻깊은 올해의 설날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채청속에 거듭하여 장엄하게 올려퍼진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이 노래는 이 땅에 빈터우에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워주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내 나라, 내 조국의 영원무궁할 력사와 더불어 확고히 고수하고 길이 전해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의 발현이다.

그리고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시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만난을 뚫고 올해의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여 기어이 이 땅에 부강한 내 나라, 내조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의 장엄한 메아리이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길우에 높이 올리도록 해주신 시대의 명곡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우리는 제 힘으로 우리의 식대로
이 땅에 주체조국 높이 세웠네
오늘도 래일도 언제나 한마음
수령님과 당을 믿고 우리는 살리라

아 오직 한마음
수령님과 당을 믿고 우리는 살리라

그렇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그러했던것처럼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이 노래를 높이 부르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충효일심으로 받들어나갈것이며 아버지수령님 한생의 고귀한 유산인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더욱 빛내어나갈것이며 오늘의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에서 반드시 승리자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가사

모시고싶어

한기운

수도멀리 살아도 마음가까워
가슴속엔 언제나 장군님 생각
평양하늘 우러러 하루해 지고
만나뵈는 꿈을 꾸며 아침을 맞네
아, 아버지장군님 모시고싶어

고개너머 이웃군에 오셨을 때도
우리 농장 들리실가 설레던 마음
그 언제면 장군님 뵈웁게 될가

가슴속엔 그 소원 뚫어넘치네
아, 아버지장군님 모시고싶어

오실가 불안가득 꽃을 피우고
오실가 기다리며 풍년가꾸네
달가고 해가도록 간절한 마음
충성이 모자란다 달래며 사네
아, 아버지장군님 모시고싶어

꿈에 대한 답시

림공식

갈매기도 아직 잠을 깨지 않은
염분진의 이른새벽
휴식일을 맞은 사적지엔
고요한 정적만이 깃들었는데

그 누구를 기다려선가
비단필을 펼치는듯
사적지의 구내길을 정히 쓸며
그리움의 간절한 눈빛을
저기 두줄기 철길우에 없는 너인

봉—
울려오는 기적소리에
너인은 옷매무시를 바로하며
정문길로 황황히 달리네

어머니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엎어질듯 뛰여오는 너인을 향해
아, 해쫓는 아침처럼 환하신
그 모습으로 마주오시는
김정일장군님!

그립던 장군님을 우러러
감격에 목이 맨 너인
마음속 걱정을 터뜨렸네
—기다렸습시다, 장군님!
이렇게 오실줄 알았습시다!

—?...
너인의 인사를 받으시며
장군님께서서는 저으기 놀라우셨네
동행한 수행원들도
그만 어리둥절하였네

—오늘은 휴일이기에 조용히 들렀다 가자고 했는
데...
강사동문 우리가 울줄 미리 안것 같구만
—네 알고있었습니다
—허
최고사령관의 일정까지 안단말이지
그래, 어떻게 알았소?

허물없이 물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강사녀인은 자초지종 말씀올렸네
지난밤 꿈속에서
장군님을 사적지에 모시였던
그 행복한 꿈이야기를—

—그렇다?! 하하하...
꿈속에서도 기다렸단말이지
고맙소 강사동무!

너인은 생각하였네
예로부터 꿈은 그 반대라고
치녀시절 일러주던 어머니를
아직도 자기가 꿈속에 있지 않는지
너무도 황홀하여 몸둘바를 몰랐네

이때라 어디선가 날아와
장군님의 발치에 떨어지는
붉은 단풍잎을 받쳐들고
그 단풍잎에 맺힌 이슬방울을 보며
너인은 생시임을 알았네

인민들이
병사들이
꿈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린다고
어서 최전연초소로 떠나자고
야전승용차에 오르는
경애하는 장군님

장군님을 오래도록 바라워드리며
너인은 뜨거운 눈물속에 보았네
잠시 드시는 그 쪽잠속에서도
우리 장군님 인민만을 생각하시고
꿈결에도 인민들은 장군님만을 기다리는
위대한 시대의 전설같은 꿈세계를
강사녀인은 보고 또 보았네

아아 꿈을 꾸어도 한꿈을 꾸는
우리의 장군님과 인민은
넋으로
피줄로
숨결로
이렇게 이어지고 이어져
혼연일체가 되는것이 아닌가!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반향묵음

민족대단결의 대강을 받아안고

온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위대한 사상이 또다시 우리 겨레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준다.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50돛기념 중앙연구토론회장에 올려퍼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서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서한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단결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외세의 지배와 반통일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온 민족이 서로 접촉, 대화하고 련대련합을 강화할데 대한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천명하시여 조국통일의 밝은 전도를 열어주시었다.

이 력사적인 서한은 현시기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 해답을 준 불멸의 총서이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위

업수행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기치로 된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인 전민족 대단결사상, 이 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위대한 사상이며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통일의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천명하신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은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 민족대단결위업 실현의 기치이다.

나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과 전민족대단결 위업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 하겠다.

소설가 석남진

통일주제작품창작을 활발히 벌리겠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4월 18일 조국통일문제해결의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우리에게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킨 력사적문헌이며 현시기 민족대단

결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명을 준 불멸의 총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력사적인 로작은 그 정당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온 겨레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렬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우리작가들로 하여금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을 더욱 즐기치게 벌려나갈수 있게하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로작을 받아안은 우리 작가들의 가슴가슴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대헌장인 새로운 민족대단결의 총서를 발표하시어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에 휩싸여있으며 통일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높이 받들고 우리는 조국통일의 위대한 성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과 지혜를 쏟아붓겠다.

자신뿐아니라 모든 작가들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도록하며 통일주제작품들에 로작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특히 문학작물에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겠다.

민족분열이 지속되면 외세에는 어부지리를 주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헤아릴수없는 불행과 참화를 가져다주게 된다는것을 더욱 절감하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 모두다 떨쳐나서게 하겠다.

조국통일의 위대한 강령이 있는한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고야 말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로작이 가리키는길을 따라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말 불타는 결의에 충만된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어 있다.

평론가 **장형준**

이 감격, 이 흥분을 격조높이 노래하겠다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환경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무한한 감격과 흥분속에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의 구절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민족단합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고 드림없이 계승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우리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가슴깊이 안겨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고 온 민족의 대단결이 곧 조국통일이라는것을 새롭게 천명하시면서 현시점에서 조국통일 앞에 나서는 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

하자》는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애국애족의 통일 강령이며 지극히 공명정대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대헌장이다.

나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심으로써 온 겨레가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 그날을 앞당겨오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조국통일주제의 작품창작에 온갖 정열을 다 바치겠다.

조국통일의 위대한 대강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그 업적을 노래한 시작품들을 적극 창작하여 오늘의 이 감격, 이 흥분이 시줄마다에서 나래치게 하겠다.

또한 조국통일의 대헌장을 받아안고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운동에 떨쳐나서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을 형상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겠다.

시인 **림공식**



북방의 령길과 더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렵고 험한 길은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먼저 걸으신다.

조국의 북방, 실로 엄혹한 대소한추위의 자강땅. 우리 장군님께서 그 험한 령을 넘고 눈보라길을 헤치시며 멀리 자강땅을 찾아주실줄을 누가 알았으랴.

지난 1월 17일 9시 30분이 가까와올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자강땅의 한 발전소를 향하여 령길을 에돌고 에돌며 간북천기슭을 달리고있었다.

감회도 깊으신 길이었다.

어언 반세기가 흘러갔었다. 주체38(1949)년 10월에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장군님께서 오신 일있는 고장이었다. 그래서 더욱 숭엄해지는 추억깊은 길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자강도의 중소형발전소건설이 매우 잘되었습니다.》

발전소에 이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변을 돌아보시며 참 별세상같다고, 경치가 좋다고 만족해하시었다. 발전기실에서 2층에 있는 배전반실로 가자면 좁고 가파로운 계단으로 올라가야 한다.

한사람이 겨우 통과할수 있는 25층의 그 콘크리트계단을 우리 장군님께서 오르내리시었다.

전기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였으면 그런 길까지 걸으시였으랴.

한 일군이 그이께 발전기측정반을 우리 자체로 만든것이라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이것이 우리것이란 말이지, 두드려 만들어도 전기만 나오면 이것이 우리거란 말이요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발전소밖에서 나오시어 아

담하게 새로 지은 살림집을 보시고 이것이 어찌 산골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집이 깨끗합니다, 이런 집을 많이 지으시오라고 말씀하시었다.

자강도의 령길에 대하여 말할 때 또하나의 감격 어린 사연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번에 자강도에 있는 55동마을에 친히 텔레비존수상기를 보내주도록 하시었다. 그러시고서는 인민들과 하신 약속을 하루 한시각도 미룰수 없는 심정에 잠겨계시었다.

그리하여 그이께서는 한 일군을 즉시 밤중에 평양으로 보내시었다. 떠나가는 그에게 로동계급에게는 무엇이든 있는것을 다 주고싶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일군은 승용차로 험한 고개를 넘어야 했다. 눈이 많이 오고 눈보라가 심하여 자동차가 이 고개의 밤길을 넘는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지금은 명문고개라고 부르는 이 고개는 높고 험하기로 소문난 고개이다. 할수없이 자강도의 험한 길에 익숙된 운전사가 이 고개로 차를 몰고 넘게되였다.

텔레비존수상기는 다음날에 기차로 강계에 전량 도착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텔레비존수상기를 부리우는것까지 직접 확인해보시고서야 새로운 단위에 대한 현지도의 길에 오르시었다.

살을 에이는듯한 세찬 눈보라속의 6천여리 로정에는 이처럼 인민들과 하신 약속을 엄격히 지켜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곳곳에 새겨져있다.

장군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 인민의 마음이 이래서 더 순결하고 뜨거운것이 아니겠는가.

렬사들의 자욱을 따라서

최성진

이깔나무, 분비나무, 붓나무들이 뼉뼉이 들어찬 수림속으로 소리치며 흐르는 적개골수는 이 나라 력사의 강 두만강으로 흘러든다. 무포는 바로 이 합수목에 자리잡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28(1939)년 5월 21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무산지구로 진출하시던 길에 하루밤 숙영하신 유서 깊은 고장이다.

여기서 대흥단벌까지는 45리정도 된다.

유유히 흐르는 두만강기슭에 나서면 이깔숲사이로 중국 화룡시의 일각이 보인다. 해방전에 화룡현으로 불리웠던 그 땅에도 조국해방을 위해 피흘려 싸운 조선의 혁명가들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참으로 뜨거운 생각없이 밟을수 없는 땅이 여기 조국의 최북변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삼지연을 떠나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행군해오시던중 여기 무포에 이르시여 무산지구전투를 승리로 결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리 정찰조를 파견하시여 대흥단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찰자료를 입수하신데 기초하시여 부대를 두개방향으로 진출시키되 8련대와 경위중대는 사령부와 함께 신사동으로 행군하고 7련대는 두지바위, 신개척방향으로 진출하였다가 다시 대흥단벌에 모여 추격해오는 적들을 소멸할때 대한 방침을 밝히시였다. 이것은 적들의 국경경비무력이 밀집되어있고 발달된 도로망을 따라 임의의 시각에달려들수 있는 정황을 미리 예견하시고 취하신 현명한 조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하다는 말만 가지고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다 표현할수 없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낸분이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진행하신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의 서곡은 바로 소리없이 깊어가는

무포의 밤에 벌써 울리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5월 22일 아침 친히 부대를 거느리시고 신사동방향으로 행군해가시였다.

무포를 떠나면서 그곳 전적지일군에게 고장의 이름에 대한 유래를 물었더니 성할 무자에 개운포자를 쓴다고 하였다. 그러고보니 과연 무포는 물가에

숲이 무성한 고장이였다. 해방전에는 왜놈들이 립철을 놓고 산림자원을 무참히 도륙내어 실어가던 고장이였다. 지금은 잘 포장된 숲속의 길로 전적지답사자들의 대오만 끝없이 들어서고있다. 렬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다시 행군길에 올랐다. 대흥단으로 가는 길이었다. 마침 그쪽으로 가는 답사행군차가 있어 나는 뺄스에 몸을 실었다. 가도가도 끝없을상 싶은 밀림의 대지, 고원의 해는 우리를 따라온다.

숲속에는 수리취며 무수해, 고사리며 닥쥐씩, 평풍과 같은 산나물이 한참 먹음직스럽게 자라는 계절이여서 그것들의 향취가 풍겨나오는듯했다.

길은 동실동실한 구름지대를 꿰며 뻗어갔다.

끝없는 숲지대인줄로만 알았는데 그 숲속에도 농장들이 있었다.

방풍림에 둘러싸인 대규모의 구역포전들은 백무고원의 한가운데 자리잡고있는 약초농장이였다.

《숲속의 농장》이라는 인상을 줄만큼 숲속에 있는 농장이였다. 부식토로 덮여있는 시꺼멓고 기름진

땅에서는 갖가지 약초외에도 고원의 특산인 감자, 보라콩, 보리가 자랐다. 해방전까지만 하여도 밀림지대였을 고장이였다. 그러던것이 개간되어 기름진 대지로 전변된것이였다. 나라에서도 이 고장에 기계수단을 우선적으로 대준다고 한다. 하여 대흥단에서는 식량을 자급자족하게 된지가 오래고 지금은 외지로 실어내가게끔 되었다고 한다.

답사차는 얼마 더 가지 않아 대흥단에 이르렀다. 우리는 대흥단전투장소를 돌아보기에 앞서 신사동부터 찾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사동에 오셨던것은 주체 28(1939)년 5월 22일 밤이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도 오시였었다.

당시 이곳에서는 북선제재소계통의 목재소로동자들이 일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동자들의 함바를 찾으시여 **《조국의 광복을 앞당기기 위하여 반일투쟁에 적극 펼쳐나서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문을 듣고 삼시간에 모여온 목재소로동자들과 마을사람들에게 우리 인민이 험벗고 굶주리는것은 왜놈들때문이며 모든 조선사람들이 다같이 힘을 합하여 싸우면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찾을수 있다고 그들의 가슴속에 투쟁의 불씨를 심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로동자들이 살아가는 형편이며 억울한 사연들도 다 들어주시고 산관일을 할 때 발간수는 어떻게 해야 하며 몇끼씩 굶었을 때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이르기까지 허물없이 가르쳐주시었다. 자기들의 정상을 그토록 따듯이 헤아려주시는 그분이 다름아닌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것을 알았을 때 로동자들의 감격은 어떠했으랴!

귀틀집으로 된 긴 함바옆에는 수령님께서 식사를 하시였던 작은 귀틀집이었다. 집은 부엌과 방이 개방되어있었는데 구름노전을 깔았다.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집에서 물을 길어다 작식을 보장하시였으며 마을녀인들에게 정치사업도 하시였다.

그날 식사후 오락회가 벌어졌는데 어머니께서는 《녀성해방가》를 부르시였다고 한다.

그런던 조국땅에 오시여 부르시던 어머니의 그 노래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워주며 달밤은 숲속으로 울려갔으리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해인가 바로 조국북변의 이 뜻깊은 고장에 찾아오시여 옛모습 그대로 서있는 귀틀집들을 돌아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였다고 한다. 그러니 여기에도 백두산3대장군의 자취가 어려있는것이였다.

승업해지는 마음을 안고 대흥단전투장소로 향했다.

대흥단은 돌레가 10리나 되는 무연한 벌이다.

그런데 수림지대들로 하여 벌이라는 감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곳이였다. 전투장소에 들어서니 마침 철쭉꽃이 한벌 더이었다. 투사들이 흘린 선혈의 자욱이 어리어 대흥단의 철쭉은 그리도 붉은것이 아닌가! 지금으로부터 59년전인 주체28(1939)년5월 23일 여기 대흥단에서는 일제침략군놈들을 통쾌하게 녹여낸 력사적인 대흥단전투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5월 22일 몸소 8련대와 경위중대를 친솔하시고 신사동으로 진출하시였다가 다음날인 5월 23일 이른새벽 집결장소인 국사당부근에 이르러 신개척방향에 진출한 7련대와 련계를 가질 련락조를 남겨놓고 대흥단을 가로질러 유리한 계선으로 이동하시였다.

그곳은 무성한 숲지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의 추격방향과 지형조건 등을 면밀히 타산하신데 기초하시여 대원들을 매복시키시였다.

이윽하여 두지바위와 신개척일대에 진출하였던 7련대 대원들이 로획물자들을 가지고 국사당집결처에 이르렀다. 7련대가 련락조의 안내를 받아 대

흥단벌에 들어서고 마지막대렬이 수림속에서 벗어나올 때 적수비대놈들과 경찰대놈들이 7련대의 뒤를 따라왔다.

모든 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견하신 그대로 벌어진것이 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7련대의 마감대오가 매복지를 통과하고 뒤따르는 적들이 매복권안인 대흥단진펄지대에 완전히 들어선 다음 전부대에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뛰어난 선견지명과 전술에 걸려든 적들은 독안에 든 쥐신세나 다름없었다.

이날 적들은 대흥단벌의 진펄속에 수백여명의 시체를 남기고 얼마 안되는 놈들만 살아 도망갔다고 한다. 실로 대흥단전투는 위대한 수령님의 집중과 분산, 유인과 매복의 뛰어난 전술에 의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력사적인 전투였다.

우리 인민은 무산지구전투승리 30돐이 되는 해에 여기에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세웠다.

탑신이 35메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기념탑 정면에는 최전방 둔덕진곳에서 전투를 지휘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시였다. 탑신에는 대흥단전투장면과 함께 혁명사적을 후세에 알리는 글이 새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백두산일대를 현지도하하는 기회에 여러차례나 이곳을 다녀가시였다.

수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이곳을 다녀가신것은 주체80(1991)년 8월 20일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도 세차례나 이곳을 다녀가시였다고 한다. 하여 기념탑을 돌아보는 나의 마음은 더더욱 뜨거워지기만 했다.

나는 주변의 지세를 전망했다. 노루가 많아 로은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대로는산이 동쪽으로 길게 솟아있고 지나온 길에서 인상깊게 보았던 농장의 정각이 있는 까치산도 지척에 보이였다.

그래도 아근의 주봉은 증산이다. 비교적 평퍼짐한 고원의 땅우에 우뚝 솟아있는 증산은 삼각형을 이루었는데 별로 우람스러워보였다.

어디에나 무성한 숲이였다. 그것만 보아도 풍요한 땅이라는것이 알리였다. 해방전에는 후지하라라는 왜놈이 경영하는 복선제재소 산하의 목재소들이 저 신사동지구를 포함하여 이 일대에 널려있으면서 해마다 여기서만도 241만7천여립방의 목재림을 략탈해갔다고 한다. 그러니 백두산일대의 무변광대한 천연원시림속에서 왜놈들이 찍어간 산림자원은 그 얼마일것이며 왜놈들의 채적과 총칼아래 쓰러진 이 나라 로동자들의 피와 땀은 그 얼마나 많이 배여있을것인가. 백두의 원시림도 그날엔 략탈의 도끼질소리에 목매여 울었울것이다. 피눈물의

력사, 수난의 력사에 대해 생각할수록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고 이 땅에 자주와 새 시대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에 넘쳐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투를 지휘하신 장소로 향했다. 지휘처자리는 기념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기관총과 탄피가 그 자리에 보관되어 있었다.

녹이 쓴 탄피들은 이곳에서 발굴된 것들이었다. 언젠가 보천보에 갔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지휘처 자리를 보면서 느낀 바이지만 여기 대흥단 전투지휘처 자리에서 생각되는 것은 그이께서 너무나도 위대한 전투장가에서 전투지휘를 하시었다는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투 때마다 자신의 안전보다도 전투승리를 먼저 생각하시어 언제나 전투장 한가운데 서시어 대원들의 전투적 습격을 느끼시며 그들을 승리로 부르신 것이었다. 하여 경위 중대의 기관총은 그이를 보위하여 멸적의 탄환을 날리고 날렸을 것이다. 유리장속에 보관되어 있는 녹슨 탄피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 전투장에서 얼마쯤 떨어져 있는 숲속에는 대흥단 전투 때 희생된 항일혁명투사 최세옥동지의 반신상이 서 있다. 애절한 모습의 투사였다. 화강암판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1915년 12월 16일 생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러니 전투에서 희생될 때 투사의 나이는 스물네 살이었을 것이다. 투사는 전투 당시 7련대의 마지막 후방척후로 싸우다가 희생되었다. 그의 유골이 지금 반신상이 서 있는 자리에서 발굴

되었다고 한다.

원래는 봉분과 함께 묘비가 있었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을 찾으시어 그의 반신상을 대성산 려사릉이 아니라 그의 유골이 있던 이곳에 세워야 더 의의 있다고 하시어 려사는 자기가 피흘려 싸운 땅에 청춘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된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영생하는 려사!

그는 오늘도 이 땅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혈전의 그날을 속삭여 주고 있다!

숲속 어디선가 삐걱새소리가 들려왔다. 유정한 그 소리, 평화로이 우는 삐걱새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확 젖어 든다.

이 땅에 꽃피는 생활에 대하여, 이 땅에 깃들인 행복한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된다. 려사들이 피흘리며 걸어온 자욱이 없다면 오늘이 있을 것인가! 무성한 잎은 뿌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조국해방의 피어린 성전들에서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었던 투사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온 나라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받들고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에 나선 때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싸워온 투사들의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처럼 살아야 한다. 그때처럼 살아야 한다. 그들처럼... 그때처럼...

대흥단을 떠나며

아름다운 꽃

루스 엘레나 로메로 알바라도

아침마다 찬연히 빛을 뿌리며
조선에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
평화와 정의, 자유를 노래하여라

깨끗한 랑심을 지닌
조선의 마음과 심장들
위대한 **김일성** 주석과 함께
위대한 **김정일** 원수님과 함께
세계의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여라
조선은 찾고 있더라 새 세계
인류의 복리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를

조선에 심어진 꽃들 하나같이 아름답고
리성은 심장을 자태우며
심장은 사랑을 키웠나니
그 사랑은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랑
조선의 꽃들 아름답게 피우리라

정의와 평화,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인민들은 한결같이 바라노라
조선이 모든 나라의 본보기가 되기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옵기를

(필자는 빼루시인임)

뜻과 사랑을 따른다

안경철

짐승은 먹이를 따르지마는
사람은 뜻과 사랑을 따라서 사네
주체위업계승의 큰뜻을 따라온
68년 이내 평생 자국자국에
장군님 진한 사랑 고이여있네

한생에 두분 수령 모신 행운이여!
금지의 령마루 동행자자리에서
복받은 삶이여, 나의 인생이여!

옛 시인처럼
푸른 하늘 한장의 종이로 삼아
복받치는 이내 심정 줄줄이 새겨볼가
《뜻으로 살고 정으로 죽는것은 인생의 철리
목숨은 버리어도 절개와 의리는 못버려!
못버려!》
늙은 소나무, 가지는 오히려 푸르더라
나는 로병
전쟁에서도 문학에서도 백전로병!
준엄한 오늘의 판가리 결전장에
붓과 총 두자루 무기들고 나섰다

장군님곁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숨지는 순간까지 그이의 친위전사!
죽어도 났은 다시 살아나
언제나 그이의 곁에서 따르리

이 시는 소설가 김병훈동무가 지난해 설날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며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텔레비죤화면에서 뵈옵고 자기의 책장에 남긴 시의 일부이다.

위대한 향도의 해발아래 활짝 피어난 주체문학의 화원에 한송이 아름다운 꽃을 더 보태기 위해 한생을 소설창작의 길에 바쳐온 백전로병의 한생의 총화가 있고 변함없는 맹세가 담겨진 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수령, 당, 대중에게 충실하는 여기에 가장 빛나는 삶의 길이 있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함으로써 혁명관이 인생관화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소설가 김병훈동무를 찾아 취재의 길에 오른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의 시구절이 뜨겁게 읊어진다.

짐승은 먹이를 따르지마는
사람은 뜻과 사랑을 따라서 사네

작가의 처녀작

작가는 필수적으로 생활을 체험하려고 한다.

취재지에서는 물론 늘 오고가는 출근길, 자기와 가정과 일터에서 무릎을 마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작가의 사색은 부단히 체험의 보따리를 꾸진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지와와 담화중에도 불쑥 돌아앉아 수첩을 꺼내드는 무례한 행위는 언제나 사색과 함께 사는 작가의 고유한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체험한 생활에 작가는 《보석》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얼마나 귀중한 체험과 사색의 산물이었으면 보석 한알한알에 비겼으랴.

이 광대무변한 세계에서 한알한알의 보석을 찾아내듯 작가는 인간과 생활에 대한 체험과 사색의 산물을 찾아낸다.

찾아낸 《보석》을 잃어버릴가봐 작가는 수첩과 종이장우에 꼭꼭 기록해놓는다.

그 《보석》을 적은 종이장을 잃고 자기의 덜통함을 저주하며 온 거리의 휴지통을 다 뒤졌다는 한 작가의 이야기는 후세대 작가들속에 교훈적인 일화로 남아있다.

그 《보석》들을 엮어 부피두터운 소설의 형상이 창조될 때 등장인물들과 함께 울고웃으며 하얀 원고지우로 질풍같이 붓을 달리는 작가의 희열이여 그 희열의 달고 쓴 맛을 다 보았을 로작가는 우리의 취재에 어떻게 나서겠는지...

우리는 이렇게 첫 물음을 뻗었다.

《몇살에 처녀작을 발표했습니까?》

작가라면 누구나 가슴짜릿한 흥분으로 받아안게 되는 물음일것이다.

실패와 성공의 모태김숙에서 초학도의 운명이 가슴을 조이며 편집부의 화회를 기다리던 그 시절, 활자화된 제 이름을 처음으로 읽던 그 순간의 환희와 걱정을 차마 잊을수가 있겠는가.

문학사에는 처녀작 하나로 이름을 남긴 작가도 있다.

많은 작가들이 첫 작품의 성공에 고무되어 평생

작가로 산다.

잡지 《청년문학》 주체45(1956)년 7월호에 자기의 처녀작을 발표하던 그때 김병훈동무는 27살의 홍안의 청년이었다.

평양사범대학 (오늘의 김형직사범대학)의 기숙사호실에서 작가가 되려는 큰 포부를 안고 온갖 심혈을 다 쏟아부어 창작한 그의 첫 단편소설 《아버지의 노래》.

찬물결 출렁이는 북변의 두만강, 강물우에 떠다니는 조그마한 나루배, 배에는 조국광복회조직의 한 성원인 배사공로인과 그의 조수인 어린 아들이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로 보내는 화약이 실려있었다.

그들이 실어가는 화약은 일제침략자들을 죽이는 폭탄이 되고 그들이 실어오는 《3.1월간》은 국내 인민들의 가슴속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는 새로운 화약이 된다.

그 화약을 나르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순간에 배사공은 어린 아들의 등을 떠밀어 **김일성장군**님의 품으로 보낸다.

그 북방의 배사공로인이 최후의 순간까지 부르던 노래는 무엇인가...

《첫 소설은 작가가 자기의 생에서 제일 하고싶은 말을 씁니다...》

푸르른 대동강기슭에서 우리와 만난 김병훈동무는 이렇게 말머리를 뺐다.

해방전 함경북도 무산에서 출생한 그는 1살에 어머니의 등에 업혀 고향을 떠났다.

철도로동을 하던 아버지를 따라 경상도며 황해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몸불일곳을 찾던 그는 8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더는 살곳이 없어 어머니와 형의 손목을 잡고 조국을 떠났다.

오이씨같이 작은 발로 타박타박 고국을 하직하려는 그의 정상이 눈물겨워 배천에 몇알의 감을 싸서 들려준 황해도 녀인도 있었고 켜기밥이 든 도시락을 그의 잔등에 메워주며 나라잃은 민족의 슬픔을 품풍 동여주던 주막집내외도 있었다.

바람마저 이 나라를 떠나는가 두만강을 건느는 그의 작은 발목을 휘감으며 쌀쌀히 붙어치던 초겨울의 찬바람 정처없이 떠난 그들이 피나리보짐을 풀어놓은곳은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 간도.

간도는 살곳을 찾아 고향을 떠난 조선사람들이 조국산천과 멀어지는것이 가슴아파 땅을 치며 통곡을 하다가 그대로 놀러앉아 웅기종기 살림을 펴고 마을을 이룬 동네도 많았다.

망향가의 구슬픈 피리소리에 온 동네가 잠 못드는 그런 저녁이면 8살 어린 소년의 가슴에도 망국의 설움이 짙 차올랐다.

구름이 끼지 않은 맑은 날이면 멀리 고국산천이 바라보일것만 같아 동네아이들과 함께 조국땅쪽을 향하여 발돋움을 하며 그의 소년시절은 흘러갔다. 그곳에서 그는 어머니와 형의 도움으로 소학교를 얼마간 다녔다.

허름한 책보를 옆에 끼워주고 맨발로 학교에 가는 소년을 바래워주며 어머니는 아픔으로 매워오는 입술을 감쳐물곤하였지만 발벗은 소년은 신이나서 학교로 뛰어가곤했다.

수업이 끝나면 화독불앞에 주련이 모여앉아 아이들과 나누던 백두산전설은 소년의 맨발에 신바람을 일으켰던것이다.

그때는 일제놈들이 항일유격대가 다 없어졌다고 약선전을 할 때였지만 소학교 교실의 화독불앞에서는 신출귀몰하시고 축지법을 쓰시는 빨찌산대장 **김일성장군**에 대한 전설이야기가 아이들의 가슴을 달아오르게 하였다.

학교에는 안도와 화룡에서 온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른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마치 직접본듯이 들려주었고 더욱 실감이 있는것은 학교선생의 실지 체험담이었다.

왜놈들의 통역으로 몇해동안 만주로 끌려다니적 이 있는 학교선생은 항일유격대가 일제놈들을 죽이던 통쾌한 전투장면들을 아이들의 눈앞에 방불히 그려주었고 항일유격대의 지하조직성원들이 일제놈들에게 붙잡혀서도 끝까지 비밀을 지키고 사형장으로 뿔뿔이 걸어나가던 이야기도 해주었다.

나라를 빼앗고 우리 말마저 빼앗았으며 소년의 아버지를 죽게 한 일제놈들을 쳐부시고 조선을 찾아주실 **김일성장군**에 대한 전설은 10대 소년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린 시절에 새겨진 인상은 잊혀지지 않는 법이다.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된 우리 조국을 요람기에 압살해보려고 미제침략자들이 도발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총잡은 병사, 그의 배낭속에는 서사시 《백두산》이 소중히 간직되어있었다.

가렬한 전쟁이 한창이던 때 벌써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설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전선의 병사들이 대학으로 추천받아 가던 날 그도 군복차림으로 대학교정에 들어섰다.

작가가 될 희망을 안고 대학교육을 마치고 첫 작품창작의 붓을 들었을 때 그의 눈앞에는 어려서 인상깊던 민족수난의 감, 두만강물결이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그 물결에 실려오는 백두산전설...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전의 봉화를 지퍼올리신이 누구시더냐.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붓을 들어야 하고 우리의 붓은 누구를 위하여 달려야 하는가. 작가는 뜻이 있어 붓을 든다.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시고 노예살이의 처지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달리고 달려야 할 우리의 붓이다.

이리하여 그의 첫 단편소설 《아버지의 노래》가 혁명전통주제의 작품으로 창작되었고 위대한 항일 혁명투쟁의 진실한 형상세계로 독자들을 이끌어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45(1956)년말에 발표된 그의 첫 작품을 친히 보아주시고 깊은 인상을 남기는 좋은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이 다 그러하듯이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속에서 창작생활의 첫걸음을 댄 그는 첫 장편소설도 혁명전통주제의 작품으로 창작하였다.

두번째 장편소설 《불타는 시절》 역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혁명투사를 원형으로 하여 독자들의 혁명전통교양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사실 그때까지만도 저는 혁명전통주제의 작품들을 바로 쓰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저와 우리 작가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어 4. 15문학창작단을 꾸려주시고 새로운 총서형식의 수령형상문학이 나아가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이 산 체험을 할수있도록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 있는 혁명전적지들을 직접 답사하도록 배려해주시고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로투사동지들을 만나 취재를 할수 있도록 모든 창작조건을 다 갖추어주시었습니다.

친히 자신께서 보시던 책도 작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쓴 작품의 초고부터 친히 한자한자 보아주시고 밤을 지새우시며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습니다.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지도를 받으며 창작생활을 해온 저는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독차지한 작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장군님의 그 사랑과 지도가 있음으로 하여 총서《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준엄한 전구》도 훌륭히 창작될수 있었습니다...》.

뜨거움에 젖은 로작가의 눈굽에는 깊은 감회의 맑은 눈물이 고였다.

《준엄한 전구》, 혁명적인 소설은 금보다 훨씬 값있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문득 우리의 눈앞에는 돈화원정의 불기둥이 치솟아오르는듯싶다.

가장 사랑하시던 전사, 가장 아끼시던 전사 오중훈련대장, 쓰러진 오중훈의 어깨를 흔드시며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는가고 비분에 떠시는 사령관동지.

불길만리, 눈보라만리를 함께 헤쳐온 사랑하는 전우의 명복을 빌며 쏘고 또 쏘는 조총...

눈물을 삼키고 울음을 씹으며 혁명을 위해 또다시 일어나야 했던 그 준엄한 전구.

간고한 우리 혁명력사의 한시기가 진실하게 반영된 이 소설이 창작완성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신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소설의 창작성과를 고스란히 작가에게 돌려주시고 그가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평가를 받도록 배려해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이 소설을 읽으시며 눈물이 나서 견딜수가 없었다고, 자신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백두산기슭》, 《준엄한 전구》와 같이 혁명의 량식을 주는 소설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며 혁명적인 소설은 금보다 훨씬 값있다고 귀중한 평가를 주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뜻과 사랑이 있어 작가 김병훈동무의 삶이 있고 창작생활이 있는것이다.

길동무들

김병훈동무는 우리를 창작실로 안내했다.

창작실의 책꽂이에서 그는 자기의 단편소설집인《길동무들》과 중편소설《봄소나기》를 뽑아내놓았다.

30여년전에 출판된 책들이라 표지장정들이 탈색되어있었다.

단편소설집의 책표지를 번지니 7편의 단편소설 제목이 있었다.

《〈해주—하성〉서 온 편지》

《길동무들》

《나의 벗들》

《노을이 불타는 땅》...

그 제목들을 읽는 순간 우리에게서 3층밥이야기며 물고기초롱들이 불쑥불쑥 떠오른다.

천리마시대 인간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움직이는듯싶다.

세월이 흘러도 문학이 창조한 형상들은 이렇게 탈색을 모른다.

작가의 이름은 다 몰라도 그가 쓴 단편소설의 주인공 오명숙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있을상싶지

않다.

60년대 우리 청년들을 매혹시킨 단발머리치녀
오명숙의 형상은 어떻게 창작되었는가.

그 창작과정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작가 김
병훈동무의 작가적성실성과 진지한 탐구자세를 엿
보게 된다.

그가 어느 협동농장 축산작업반에 대한 취재를
마치고 돌아서니 보슬보슬 봄비가 내렸다.

봄비를 맞으며 상쾌한 마음으로 그 작업반을 떠
나던 그는 길가의 크지 않은 물웅덩이를 띄여보게
되었다.

《우리 작업반에 이런 공상가가 있수다. 이 산골
에 잉어를 양어한다나요. 허허...》

알고보니 수산전문학교를 졸업한 젊은이가 새끼
잉어들을 기르는 양어못이었다.

작업반농장원이 일러주는대로 밝은쪽을 등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물속에서 아물아물하는것들이
보였다.

그는 농장원과 헤어져 창작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얼핏 본 양어못이 잊혀지지 않았다.

천리마시대 젊은이의 랑만이 비긴 양어못에 공감
이 가기 시작하여 작가는 다시 그곳으로 취재의 길
을 떠났다.

취재가 끝나고 며칠후 작품의 초고가 탈고되었을
때 주위의 작가들은 작품이 생기발랄하고 랑만이
있는데 대하여 모두가 지지를 주었다.

모두의 지지를 받고 출판사 편집부로 향하던 그
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하나의 새로운 세부가 생각났다. 그는 창작실로
돌아와 원고를 다시 수정하여 편집부에 투고했다.

그로부터 몇달후 어느날 작가의 안해가 생남을
하였다. 집안사람들은 물론 동네사람들이 제일처럼
기뻐하며 저녁에 집에 돌아온 작가를 축하해주니
그는 《나도 오늘 아들을 하나 낳았소.》 하며 발표
된 단편소설을 내놓았다.

《머리우엔 언제나 밝은 태양 우리 수령님께서 빛
을 뿌려주시고 그밑에는 저렇게 총명하고 열정적이
고 억센 붉은 심장들이 사는 이 땅, 이 나라에서 함
께 살며 미래를 당겨오는 투쟁에 몸을 바친다는것
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나! ...》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와 시대의 길동무들에 대
한 작가의 열렬한 감정의 토로이다.

그 주인공들처럼 우리 당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
는것, 여기에 자기 존재의 뿌리가 있다고 작가는 말

했다.

어느날 작가에게 그의 친구가 찾아와 70이 바라
보이는 나이에 장편소설 《개이지 않는 하늘》을
써낸것이 참 용한 일이라고 했다.

그때 작가는 이렇게 대답했다.

끝까지 변함이 없이 충실할 때 충실성이 있고 몸
이 식을 때까지 글을 쓰는것이 작가의 성실성이라
고.

여기에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우리당
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의
사명을 다하는 길이 있다.

예로부터 작가는 상아탑속에 사는 존재라고 했다.
자기의 식, 자기 세계에서 유아독존적존재로 살아
오던 작가.

그러나 우리의 작가들은 시대와 력사의 한복판에
서 시대를 선도하는 당의 작가, 위대한 장군님의 작
가이다.

우리 작가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라는 공지의
령마루에 세워주신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사랑이
우리의 작가들을 키워주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60돌생일을 받
아안던 날 작가 김병훈동무는 자기의 아버지와 어
머니를 생각했다.

동전 두잎을 남기며 아들을 꼭 공부시키라고 유
언한 아버지.

남편의 유언을 실현하기 위해 두발이 텅텅 붓도
록 샅재봉을 하여 학비를 보태주던 어머니.

그들이 다시 살어나 이 아들을 볼수는 없는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오늘과 같은 영광의 절정에 올라섰겠습니까.

제 삶의 터전도 그 품에 있고 저의 존재의 뿌리
도 그 품에 있습니다.

김승과 달리 뜻으로 살고 정으로 죽는것이 인간
이기에 인간은 뜻과 사랑을 따릅니다.

저에게 작가적생명과 빛나는 삶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은 온 세상 만민이 높이 우러러 따르는 뜻과
사랑의 태양이십니다.》

태양이 빛나는 하늘, 그 빛발로 아름다운 우리의
땅.

그 빛발이 있어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나가
는 이 땅의 승리,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는것이 아닌
가.

우리는 로작가의 바래움을 받으며 그의 창작실을
떠났다.

간절한 마음

배경휘

메아리치는 《만세!》의 환호성, 그것은 심장마다에 끓던 이름하기 어려운 걱정, 분출이었다. 감격과 기쁨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절절한 마음들이 그 웨침속에, 장중한 박수속에 피방울처럼 혈관과 혈관마다에 퍼지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문을 전달한 일군은 떠나갔으나 제련소구내에는 여전히 그 환희의 걱정이 영원히 축복의 꽃보라인양, 그 무엇보다 감미로운 꽃향기인양 사람들의 피부마다를 가득가득 채우고 취하게 했다.

기쁨의 인파가 넘쳐흐르는 용광로직장앞에 한 녀인이 두손을 모아쥐고 어찌할바를 모르는듯 서있다. 두눈에 가득한 눈물은 금방 방울져 떨어질듯... 바르르 떨어지는 녀인의 손은 심장의 충격을 못이겨서 인가. 녀인은 이 시각 과연 무엇을 생각하는지?...
X

정능을 태우기 위해 십분이나 출발을 미루었던 급행열차는 어느덧 굽인돌이로 사라져버렸다.

박영옥은 굳어진듯 서서 열차가 사라진 굽인돌이만 바라보고있었다. 사라진 열차도, 흠에 서있는 자기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온몸을 봉대로 감은 남편, 소광가루가 거무스레하게 박힌 얼굴, 숨이 답답해서 모지름쓰던 그 모습이 꿈속의 환영갈기만 했다. 전신3도화상이었다.

《우리 평양으로 갑니다. 총국에서랑,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랑 평양역에 나와 대기하고 있습니다.》 부문당비서가 하던 말이였다. 평양으로 간다니 남편도 살수 있을것 같았다.

몇해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직송기가 상한 사람들을 평양의 어느 한 병원에 데려다 회복시킨 일을 영옥은 잊지 않고있었던것이다.

남편은 언제쯤 회복될가

《이제 돌아갑시다. 영옥선생, 정희선생이 따라갔으니 필요한 대책은 다 취할거요.》

옆에 다가온 외과과장이 하는 말이 아득히 먼곳에서 들려오는것 같았다. 과장은 왜 나를 못가게 붙잡았는가.

평범한 제대군인이었던 정능은 체소한 몸집에 처녀처럼 해맑은 얼굴과 류달리 어글어글한 눈, 억센턱이 인상적인 청년이었다. 그 눈에 타는 정열이 영옥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다.

사랑을 속삭이며 공장구내길을 걷던 그 하많은 저녁들, 그때 정능은 부풀어오르는 포부에 대해 뜨

겁게 열변을 토했다.

《군사복무를 하면서도 난 대학생활을 꿈꾸었소. 대학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새겨져있소. 난 꼭 대학에 가겠소. 그래서 훌륭한 유색금속기술자가 되고싶소. 영옥동무가 잘 도와주오.》

《힘껏 돕겠어요.》

그때 영옥의 눈앞에는 제대군인출신의 기술자로, 과학자로 성장하는 정능의 모습이 우뚝이, 황홀하게 보여왔었다. 미풍은 부드럽게 그들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다충주택들뒤 먼 하늘가의 분홍빛노을은 말없이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주었다.

얼마후 정능은 군당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후 얼마후 그후 배소로직장 사로청위원장, 다음에는 제련소의 심장부인 용광로직장 로관리작업반세포비서로 일하게 되면서 끝내 대학에는 가지 못하였다. 무슨 일이나 달라붙으면 불같이 타번지는 그 정열이 그의 온 심신을 맡겨진 당적과업수행에 쑥그리 쏟아부었게 했던것이다. 대학은 영원히 꿈으로 마음속에 남아있었을뿐이었다. 그는 자기의 꿈과 미래를 제련소에 다 바쳤던것이다. 그러한 그를 이해하면서도 영옥은 그가 총각시절의 그 포부, 그 희망을 이루지 못하는것이 섭섭하였다. 한편 그것이 자기 탓이기도 하다는 자책으로 마음이 괴로왔다.

놀라 머리를 든 영옥의 눈앞에 정능이 우뚝 서있었다. 맨머리바람에 숨옷도 없이 숨을 헐떡이면서 있는 그의 붉게 상기된 얼굴엔 노여움과 불안과 질책이 하나로 엉켜돌고있었다. 빨간 숨옷과 목도리에 상체가 파묻힌 남편이 안고있는 어린 아이가 딸향미라는것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향미가 앓고있음을 모르지 않았지만 남편이 이밤에 안고 병원으로 찾아오게까지 병이 악화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던것이다.

《애가 심상치 않소.》

빨강게 달아오른 향미의 얼굴은 불덩어리였다. 딸이 이 지경이 된것이 자기의 불찰임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쨌든 어머니가 의사가 아닌가. 아니, 차라리 의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 모른다. 의사였기에 직업적타성으로 하여 병에 대해 대수로와하지 않았던것이다. 집에 약이있으니 아프면 먹으라고 하는것으로 그쳤다. 불만에 찬 남편의 눈길은 《제 아이에게도 이렇게 무심한 사람이 의사의 구실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소?》 하는것

같았다.

의사로서 남편에게나 자식에게나 다심한 정성을 기울이지 못하였다는 자책이 가슴을 찔었다. 결혼초기만 해도 소화기가 좋지 못한 남편의 병을 꼭 때 주리라 생각했지만 그 결심이 과연 행동으로 어떻게 옮겨졌던가.

죄스러웠다. 허나 자기가 바로 의사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겨온 것이었다. 낮이나 밤이나 때없이 제기되는 환자들... 그들에 비하면 남편이나 아이의 병은 중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일이 생긴 것이었다.

결국 본의아니게 영옥은 제련소일에 바쁜 남편의 어깨 위에 가정적 부담까지 짊어지웠다. 그래도 정능은 안해를 탓하지 않았다. 얼굴을 찌프리기도 했지만 자기보다 더 시간에 쫓기우는 안해를 이해해주려고 애썼다. 그러니 그가 언제 대학공부에 정력을 기울일 수 있었겠는가.

남편에게 불상사가 생긴 지금, 느닷없이 떠오른 이 추억의 한토막은 영옥에게 자기가 안해로서의 구실을 너무도 못했다는 뼈아픈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모든것은 남편을 잘 돕지 못한 자기 탓이었다.

며칠전, 며칠전에만 자기가 안해의 구실을 똑바로 했어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었다.

그날은 명절전날이었다.

명절을 위해 영옥은 이것저것 색다른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마음을 썼었다. 서로가 다 바빠 지내는 몸들이라 가정이 오붓하게 모여앉지 못하는 저녁이 많았기에 이 명절만은 어떻게나 보다 따뜻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맞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명절을 앞둔 그날저녁 영옥은 콩나물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멍히 앞만 바라보고있었다.

근 8년만에 찾아왔던 동생을 방금 바래주고 들어온 길이었다.

빙그레 웃으며 어둠속으로 사라지던 동생 영수의 얼굴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섭섭해하는 누이를 위로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래간만에 왔다가 이렇게 가야 하는 서글픔이 어린것 같기도한 그 웃음, 그 웃음어린 얼굴이 영옥의 가슴을 허비고있었다. 매부를 만나겠다고 출장길에 들렀다가 시간이 촉박해 더 기다리지 못하고 간 동생이었다. 가슴아프고 죄스러웠다. 남편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방안이 별로 썰렁해보였다.

아이들은 다 잠들었다. 이불을 차든진 막내가 대학의 넘적다리에 굽혀서 피가 엉켜붙은 자리가 보인다. 영옥의 입에선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장난꾸러기 막내아들을 어찌지 못하는 그였다. 매일 일을 치는 아들이었다.

며칠전엔 몰래 강에 나가 놀다가 물에 빠져 소동을 일쿠더니 오늘은 또 공원에서 나무가지를 꺾다

가 붙잡혀 관리원할아버지가 집에까지 찾아왔었다. 먼목이 있는 할아버지앞에서 영옥은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병원에선 일정하게 사업권위도 있는 그가 아들때문에 이런 일에 부닥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몰랐다....

아무리 타일러도 하루도 못가서 또 그 꼴이니 정녕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어머니말이라고 벌써부터 알잡는것이 아닌지?... 아버지란 사람이 좀 관심을 돌리면 이러질 않으려만...

밖은 캄캄하고 거리는 고요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야밤의 그 어둠이 영옥의 마음속에도 스며드는듯싶었다. 불안과 초조... 남편때문이었다.

비둘기마음 콩밭에만 가있다고 늘 제련소밖에 모르는 남편이다. 현장을 제집처럼 여기는 남편이고 보면 오늘 또 안들어오려는것이 아닌지. 그래도 래일은 명절인데...

영옥은 기계적으로 다시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하였다.

얼마후 콩나물그릇을 치워놓고 일어서던 그는 책상 위에 있는 편지봉투를 보았다. 황해도에 있는 시형에게서 정능에게 온 편지였다.

영옥은 봉투를 뜯고 속지를 꺼냈다.

편지내용은 시형의 근심으로 일관되어있었다.

《...몸이 좀 어떠냐. 어머니가 몹시 걱정하신다. 정 제련소를 뜨지 못하겠으면 휴가라도 받고 한번 왔다 갈수 있지 않나? 년 4년동안 휴가를 한번도 받지 않더구나. 네 처의 편지를 받고 어머니는 끝내 다 삼까지 채워놓고 기다리신다. 자신의 손으로 먹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기선 위장질병에 특효라는 약수도 새로 발견되었으니 와서 약수치료도 좀해보는것이 좋을것 같다. 그리고 료양권이 나왔으면 같것이지 왜 고집을 부려 처를 속씩이느냐? 일도 몸이 건강해야 힘껏 할수 있는거란다...》

영옥은 한숨을 내쉬며 편지를 내려놓았다. 남편의 건강때문에 속을 썩이는 그였다. 총각시절부터 있던 남편의 속병이 심해졌던 것이다. 영옥이 보기에 정능의 병은 고향에 가면 호전될것 같았다. 고향에서도 다 폐가지고 오라고 몇번이나 편지가 왔는데 남편이 요지부동이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약도 쓰고 료양치료라도 시켜볼가 하여 료양권을 세번이나 떼주었다. 그래도 남편은 가지 않았다.

이번에도 료양권을 얻어주고 남편이 움직이지 않을것 같아 부문당비서를 찾아가 하소연도 했었다.

그러나 아직 그 모양 그대로였다.

기적소리가 들렸다.

시계를 보니 밤 열두시가 넘었다. 동생이 이젠 떠나갔겠구나.

남편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 웬일인가. 래일이 명절인데 오늘 정말 안들어오시려는가.

벽시계의 초침소리뿐 주위엔 밤의 고요가 깃들고

있었다.

꼭잡이 들었던 영옥은 문득 놀라 눈을 떴다.

밖은 아직 캄캄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었다. 정녕 어떻게 된 일인가. 날이 밝으면 명절인데, 혹시 사고라도? ... 가슴이 섬적해졌다.

불안해서 더 누워있을수 없었다. 영옥은 부엌으로 나갔다. 어쨌든 아침식사준비를 해야 했다. 아침에 제련소를 찾아가보자.

보라빛지평선우에 빨강게 머리를 내밀던 태양이 황백색의 찬란한 몸체를 활짝 드러내며 주위를 밝그스름하게 물들일 때 영옥은 막내이를 데리고 제련소로 향하였다.

제련소구내에 들어서니 지나치는 사람마다가 그들을 눈여겨보았다. 야간근무를 서고 명절을 맞는 그들의 눈에는 깨끗하게 차린, 음식보따리를 든 호리호리한 녀인과 아이가 행복한 이 아침의 이채로운 상징인듯 환하게 안겨왔던것이다.

용광로에선 방금 받아낸 쇠물을 전로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윽고 전로장입구로 쇠물이 쏟아져들어가며 등황색화염이 치솟고 빨간 불씨들이 천정으로 휘뿌려져 올라갔다. 그것들은 마치 용광로로공들의 끓어오르는 기세와 열정을 상징하는듯했다. 또 한 차페의 쇠물을 뽑고있는 1호용광로앞에선 빨간 쇠물이 흐름길을 따라 시내물처럼 흐르다가 커다란 바가지에 흘러 들어가는데 로공들이 긴장해 쇠물을 주시하고있었다.

남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는데 《아, 대혁이 어머니가 왔구만.》 하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남편과 함께 일하는 같은 작업반의 좌상아바이였다.

영옥은 반색하며 허리굽혀 인사를 했다.

《끝내 찾으러 나왔구만.》 하고 로인은 웃었다.

《어제 비서가 수고했어. 오늘 아침까지 우린 300프로를 했어. 가만! 내 비서를 찾아올테니 저기 선전실에 가있으라구.》 하며 바빠 로사이로 사라지는 아바이의 온몸엔 진흙이 게발려져 흰 작업복이 붉은색으로 보였다.

석탄을 절약하느라고 점토소비량이 세배로 높여졌는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로관리공들이 전투를 벌려야 했던것이다.

교대가 따로없이 명절전날밤도 현장에서 새우며 작업반원들을 이끌어나가는 남편! 그렇게 낮과 밤이 따로없이 일하니 남편의 몸이 견디겠는가 싶어졌다.

진흙투성이작업복 그대로 벌컥 선전실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을 보았을 때 영옥은 반가움보다도 아픈 마음에 그만 눈물이 왁작 솟구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정능의 얼굴은 밤잠을 못자서인지 몹시 수척해보

였다. 관골과 턱센 턱이 밤사이에 더욱 두드러진것 같았다. 그 얼굴에 줄줄 흐르는 땀이 턱에서 푹푹 떨어지는데 두터운 아마포작업복도 땅에 폭젖어 어깨와 잔등이 벌거스름하게 얼룩져있었다.

그러나 눈만은 기쁨으로 환히 빛나고있었다.

《의사선생이 왕진을 나왔구만. 잘 왔소. 돼지고기불고기맛 여기서 우리 동무들과 함께 보지요.》

남편은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어이구. 우리 대혁이도 왔구나, 장난꾸러기 꼬마곰이 아버지 일하는걸 보려구? 그래, 잘 봐라.》

영옥은 눈물이 그렇게 땀으로 미역을 감은듯한 남편의 모습을 근심스레 더듬어보았다. 이윽하여 애써 맑은 얼굴로 마음이 놓이지 않는듯 물었다.

《몸은 일없어요?》

《일없지 않구.》

정능은 빙그레 웃었다.

《난 건강하오.》

영옥은 말머리를 돌렸다. 《어제 대혁이 외삼촌이 왔다갔어요.》

《영수가? 어떻게?》 정능은 눈을 빛내며 물었다.

《출장길에 당신 만나겠다구 들렀다가... 밤차로 갔어요.》

자기를 기다렸을 처남과 안해의 마음이 헤아려져서인지 정능은 눈빛을 흐리었다. 미안해하는 눈으로 그는 안해를 바라봤다.

영옥은 애처로운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며 웃음을 지었다.

《일없어요. 그저 당신이... 건강하시면 돼요.》

문득 영옥은 구석쪽을 쳐다보며 나직이 부르짖었다. 《못써. 뭘 또 망가뜨리려구?》

대혁이가 꺽꺽거리며 선전실의자구석에 빼여져 나온 못을 비틀어뽑고있었던것이다.

《봐두오. 여길 제집처럼 여기는걸 보니 앞으로 용광로의 주인이 되려는가 보오.》

《아버지를 닮아 좋겠어요. 얼마나 부잡한지 가는 곳마다에서 신소를 받느라 정신을 못차리겠어요.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지... 아이에게 좀 엄하게 구세요》

《저 꼬마곰이 그런단말이요? 버릇을 푹 떼주어야겠구만.》 애정이 넘쳐흐르는 그 말에 영옥은 눈을 흘겼다. 《그렇게 고와만 하니까 애가 어떻게 돼가나 봐요. 아버지를 어려워 안하고...》

정능은 대답대신 빙그레 웃기만 했다.

《빨리 가서 식사를 하세요.》

휴게실 앞마당에선 벌써 슬라크우에 놓은 불고기가 구수하게 익고있었다.

영옥은 가져온 음식들을 서둘러 차려놓았다.

《비서가 어제밤에 안들어간게 한상 차리려구 그랬었구만.》 하는 아바이의 능청스런 말에 반장이 제격 맛장구를 쳤다.

《글쎄 다 조직사업을 해놓고 나와서 그러는걸 우린 괜히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소. 하마터면 이 좋은걸 다 놓칠뻔했수다.》

《비서동지, 아주머니 아예 우리 작업반에 등록하고말자요. 휴게실 꾸릴 때도 그래, 명절날에도 그래, 그저 우리가 전투를 할 때마다 후방사업을 맡아하는데 비편제전투원이라고 하면 좀 억울할거란말이요.》

《그렇가?》

《좋아. 하하하》

남편과 로공들이 기뻐하는걸 보니 영옥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 누군가 와서 반장을 데리고갔다. 반장은 정능과 무언가 토론하더니 사라져버렸다.

식사를 끝내자 정능은 모두 집에 들어가 쉬라고 하고 그릇들을 거두는 영옥에게 조용히 일렀다.

《이젠 당신도 들어가요.》

《아니, 당신은 안들어가지겠어요?》

《난 여기 있어야 돼. 로상태가 씨원치 않아.》

무슨 근심이 있는듯한 어조였다.

정능의 꺼칠해진 얼굴을 영옥은 아픈 마음으로 쳐다보았다. 자기 몸은 전혀 돌볼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그냥 돌아갈순 없었다.

《형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정능은 반가운 얼굴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편지를 읽는 그의 얼굴은 점점 엄하게 굳어졌다. 다 읽고난 그는 묵묵히 앞을 바라볼뿐 입을 열지 않았다. 남편의 무거워진 안색을 살피며 영옥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어머니도 무척 걱정하시고 형님도 기다리시는데... 한번 가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료양을 가시던지? ...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료양권을 넘겨주시겠나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용광로를 못떠나오.》

정능의 눈빛은 더 어두워졌다. 그의 침중해진 눈동자엔 어떤 간절한 빛이 타고있었다. 허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 영옥은 알수 없었다. 《왜 못떠난단 말이에요? 일을 하루이를 하고말겠어요? 그러다 쓰러지면...》 영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게 잘하는게 아니지요. 지금 당신의 건강상태를 직장에서 다 알고있지 않아요? 당신이 료양을 간다고 누가 탓할 사람이 있어요? 한달쯤 당신이 없다고 생산을 못하겠나요?》

정능은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없다고 생산을 못하겠나구?》 입속말로 따라 외운 그는 약간 어성을 높여 통탄하듯 중얼거렸다. 《십여년을 함께 살면서 그렇게밖에 날 모르겠소? 안해라는 사람이 남보다도 못하니...》

그 말이 영옥의 가슴을 가시처럼 찔렀다. 어쩌면

...어쩌면 그렇게도 안해의 심정을 몰라주는가. 남편이 직장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걸 다 바친다는걸 잘 알고있는 영옥이었다. 작업반휴게실을 꾸릴 때 안해까지 데리고 가 천장도배를 했고 한 작업반원의 아버지를 위해 안해와 딸까지 데리고가 부뚜막수리, 온돌수리를 해준데 이어 그집의 장판, 도배까지 해주고 온 정능이었다. 언제 봐도 자기 가정보다 작업반동자들의 살림살이에 더 마음을 써왔고 직장을 위해 자신뿐아니라 온 가정을 바쳐온 그였다. 그것을 영옥이 왜 모르겠는가. 세포비서로 아글타글하는 그를 이해했고 그 책임감과 정열을 존경했기에 그의 일을 안반침하기 위해 애써왔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능이 영웅이 되거나 훈장을 탄것도 아니고 또 그 작업반이 요란한 혁신을 한것도 아니었다. 단지 체련소라는 집단이 정상적이고 순조로운 활동을 하는데 이바지했을뿐이고 용광로라는 거대한 심장이 박동을 멈추지 않도록 나는 수많은 피방울들중의 하나로 되었을뿐이었다.

그것은 정능이 아니라도 누구나 할수 있을것이였다. 정능은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였다.

날이 갈수록 정능의 건강때문에 근심이 커가는 영옥이었다.

자기에 대해 누구보다 마음쓰며 속을 썩는 사람이 안해라는걸 정능은 왜 그리도 모르는지? 자기에 대해 그렇게 모르고 살았는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런것이다.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남자들이란 다 저렇게 덜통하고 무정한가? 안해의 다심한 마음을 귀중히 여길 대신 꼬불만큼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니 눈엔 또다시 이슬이 맺혔다.

그 눈물에 마음이 찢렸는지 남편은 빙그레 웃었다.

《영옥이, 장군님께서 체련소에 오시면 먼저 체련소의 심장부인 용광로에 꼭 들리실거요.》

영옥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남편을 쳐다봤다. 무슨 소린가? 장군님께서 체련소에 오시다니...

《왜, 믿어지지 않소? 그러니까 아직도 날 모른다고 하지. 장군님께선 꼭 오셔.》

《언제요?》 영옥은 긴장해져 물었다.

《언제인지야 나도 모르지. 그러나 오시리란것만은 틀림없소. 그뻔 나도 장군님을 뵈올수 있어.》

그의 눈은 환히 빛났다.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게 되는 날이 눈앞에 보이는듯...

문득 영옥은 남편에게서 그전에도 그런 말을 한번 들은 생각이 났다. 그때에도 가슴을 울렁이었는데 지금 또 그런것이였다.

영옥은 반신반의하는 눈길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정말이에요?》

《정말 아니구.》 정능은 아주 정색해서 말하였다.

《장군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말이야. 장군님께서선 로동계급과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아.》 그러는 남편을 보니 혹시 그 말이 실지로 신빙성이 있는 소리가 아닌가 싶어졌다.

정말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 뵈게 되는 그날이 올가. 그날은 과연 언제일까.

정능은 무거운 어조로 뜨직뜨직 말을 이었다.

《이번에 또 장군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선 안되지 않아?》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계속했다. 《물론... 내가 생산정상화에 이바지하는 무슨 큰 혁신을 하거나 재련소에 없어선 안될 귀중한 존재가되어 그러는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전투가 벌어질 때에 제 건강때문에 훌쩍 떠난다는건 너무나 면목이 없는 노릇이란말이요. 아직은 좀 참자구. 응, 여보...조금만 더 기다려주오. 그 다음엔 내가지.》

마치도 영옥의 건강때문에 그러는것 같았다. 어이가 없었다.

《조금만이란건 언제예요?》

《먼 장래는 아니요.》

영옥은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남편이 기다리는 장군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장군님을 뵈고싶은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너무도 천진한 꿈에 가깝지 않은가 싶었다. 그 꿈이 현실로 되면 얼마나 좋겠나만 언젠가라는것은 너무도 막연한것이어서 아직은 꿈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영옥에게는 현실적인 남편의 건강과 단란한 가정의 행복이 소중하였다. 남편의 그 마음을 존중했고 지켜주고싶었지만 그렇다고 날로 악화돼가는 정능의 건강을 옆에서 보고만 있을수는 없었다. 대책이 있어야 했다.

참자구? 언제까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었다. ...

영옥을 지켜보는 정능의 얼굴엔 쓸쓸한 표정이 어리었다. 마음과 마음의 융합을 못느낀 허전함, 이해의 마음을 고맙게 여기면서도 보다 다른 리해를 바라는 안타까움, 사랑하는 안해에게 본의아닌 피로움을 주게 되는 아픔이 그 얼굴에 짙게 어려있었다.

아바이가 다가왔다.

《비서, 자네라구 최로 빛은 사람인가? 내가 있겠으니 대책이 에미하구 같이 들어가게.》

정능의 얼굴이 엄하게 굳어졌다.

《아닙니다. 아바이, 어서 들어가십시오.》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단호한 어조엔 어떤 항변도 허용치 않는 엄격한 요구가 어려있었다. 그는 로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뒤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바이가 영옥에게 돌아섰다.

《가자구. 저쯤되면 누구도 비서마음을 꺾지 못해.》

그들은 함께 제련소정문을 나섰다.

얼마간 묵묵히 걷던 아바이가 혼자말처럼 입을 열었다.

《비서라구 해서 하는말이 아니네만 대책이 애빈쉽지 않은 사람일세. 생산을 정상화해서 장군님을 모실 날을 앞당기자구 누구보다 안타까이 모대기구 있어 .

쇠물을 광광 뽑으려면 로상태가 좋아야 하는거야. 우리에게 로의 정상운영보다 더 큰 기쁨이 없네. 그걸 위해 비서는 어려운 일이 나설 때마다 제 몸을 내대고있네. 누구나 말은 쉽게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긴 어려운 법이야.

헌데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칠줄 알거든. 우리가 전투를 하는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거네. 비서를 따라서... 그처럼 진실하게 살자구 말이지.

대책이 에미, 좀 참자구. 이 전투가 끝나면 정능이 그 사람두 료양을 가던가 휴가를 받던가 꼭 마련을 볼거네.》

남편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어린 아바이의 말이 영옥의 마음을 따듯이 덥혀주었다. 그러자 얼마전 작업반휴계실을 꾸릴 때 들은 말들이 생각났다. 그때 정능은 밖에서 대패질을 하며 나직이 노래를 불렀는데 방안의 사람들은 모두 그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였었다. 그 노래소리에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놓듯 애뜻하고 절절한 무언가가 있었던것이다. 영옥이와 함께 도배를 하던 청년이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 비서동지가 로일에 들어서면 범같은데 저럴 땐 딴 사람이거든요. 다른 때 보면 그저 불덩어리같다가두 이럴 때 보면 가슴속에 눈물이 많은 사람같단 말이에요.》

영옥을 바라주며 반장은 이런 말을 했었다.

《아주머니가 남편을 잘 만났듯이 난 비서를 잘 만났수다. 그야말루 불덩어리지요. 장군님을 진심으로, 더 순결하게 받들자구 가슴을 내대는 사람이 우다. 헌데 너무 몸을 돌보지 않는게 탈이거든요. 아주머니가 잘 돌봐주시우.》

정능이 장군님을 진심으로, 더 순결하게 받들자고 가슴을 내댄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명치는 않았으나 남편의 건강을 더 잘 돌봐야겠다는 깨달음만은 컸었다. 그러나 그 불덩어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영옥은 알수 없었다. 울고싶도록 안타까웠다. 자기는 어떻게 남편을 도와야 하는가... 그때 어떻게 하던지 료양이나 휴가를 보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것이었다. 모든것이 자기탓이었다.

×

영옥은 어떻게 집에까지 이르렀는지 몰랐다. 기계적인 발걸음으로 살림집계단을 올라갔다.

출입문이 열려져있었다. 부엌에서 물소리와 달그

락소리가 났다. 무심히 들여다보니 만팔 향미가 학교에서 돌아와 부엌에서 그릇들을 가지고있다. 중학교 3학년, 이제는 다 큰 딸이다. 남편이 웃으며 하던 말이 생각났다. 《향미는 관리위원장감이야.》 그럴는지도 모른다. 주눅을 모르는 활발한 성미였다. 《어머니, 이제 오세요?》 반가움에 넘친 활기찬 목소리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딸은 아직 모르고있다. 대답하려고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기 힘들뿐...

영옥은 휘적휘적 방안으로 들어갔다. 밖에서 토닥토닥 계단을 뛰어올라오는 발자국소리가 들린다. 오늘밤만 넘기면, 오늘밤까지만 다른 소식이 없으면 소생의 희망이 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 나직이, 쉬임없이 속삭이고있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영옥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됨을 어쩔수 없었다.

문이 벌럭 열리며 《어머니, 어머니.》하는 송미의 웨침이 현관을 짹짹 울렸다.

송미는 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오며 종알종알 말했다.

《어머니, 우리 오늘 오후에 공연이 있어요. 며칠후엔 도에 경연간대요.》

송미는 학교적으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손풍금수이다. 언젠가 송미가 아직 유치원에 다닐 때 남편이 하던 말이 생각났다.

《송미가 음악가가 될수 있겠어.》

음악가라니? 영옥은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남편을 쳐다봤었다. 할아버지는 농장원, 아버지는 로동자, 어머니는 의사... 가족, 친척중에 예술가는 한명도 없었다. 우리 집안에 음악가라니, 당치않은 소리...

송미가 텔레비전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림그리기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음악가가 될수있으리라고는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예술적인 싹도 제때에 발견하고 키워주어야지 자칫하면 묻혀버리고마오. 송미에게 손풍금이 있어야겠소.》

그때 영옥은 눈을 크게 떴다. 《손풍금같은 소릴 해요.》

하지만 정말 부모가 무관심해서 아이의 훌륭한 재능이 묻혀버린다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이겠는가. 그래서 안되었다. 영옥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손풍금이고 전자풍금이고 있어서 나쁠거야 있겠는가. 그러나 집에는 그보다 다른것들이 당장 더 필요하지 않은가. 송미에게 손풍금이 그렇게 절박한것이야 아니지 않는가.

그로부터 열흘후 남편이 빨간 손풍금을 들고 얼굴이 환해서 들어왔다.

《자, 보오. 기가 막힌거요. 음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오.》 하고 그는 붕-붕- 뻑-뻑 소리를 냈다. 손풍금을 탈줄 모르면서도 전문가연하는 그를 보고 영옥은 기겁을 했다.

《아유, 귀한걸 망가뜨리겠어요. 음질이 좋은지 나쁜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 전문가들도 보고 인정했소. 아주 훌륭한거라오.》

그 《훌륭한것》이 영옥에겐 그닥 달갑지 않았다. 세간살이를 모르는 남편이 철없는 아이같기만했다. 정능은 타이르듯 조용히 안해에게 말하였다.

《송미가 이제 훌륭한 음악가로 되는걸 보오.》

남편의 말처럼 송미가 음악가로 성공하겠는지는 아직 알수 없었지만 제련소밖에 모르는 정능의 마음속에 애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그토록 크게, 그처럼 뜨겁게 자리잡고있다는것이 영옥의 마음을 따뜻이 덥혀주었다.

과연 남편은 애들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때 아이의 장래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성장의 한걸음한걸음을 주시했던가.

오늘도 송미가 도에 경연간다고 하면 누구보다 얼굴이 환해질 남편이었다...

그러자 가슴을 어이는듯한 아픔이 온몸에 퍼져갔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가슴속에 무거운 쇠줄들이 팍 차는것 같았다.

《엄마, 왜 그러나? 어디 아프나?》 송미가 눈이 동그래 울려다보며 근심스레 물었다.

영옥은 힘겹게 몸을 돌리며 간신히 입술을 움직였다.

《아니, 아니다.》

×

창문으로 해빛이 비쳐들며 벽에 그리던 장방형무늬들도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렬차가 평양역에 들어섰을것이다. 정능을 태운 구급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평양의 거리를 질주하는 광경이 눈앞에 선히 보였다. 자기도 달려가 남편을 회복시키는 치료전투에 참가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외과과장이 끌어내지만 앓았다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영옥의 머리속엔 불현듯 집앞에까지 자기를 바래다주며 하던 아바이의 말이 떠올랐다.

《며칠전에 장군님께서 금속생산에 대해 간곡한 가르침을 주셨어.》

그런데 그만 배소로가 덜컥 뗏고말았소. 생산을 계속하자니 직접장입만으로 용광로에 광석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되었네.

비서는 원래 로감시공이였지만 장입이 걸리자 자기가 장입을 맡아나섰지. 본시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로관리작업반도 생산작업에 진입하였고...》

...장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그만 동쪽 네번째 장입구가 뻗다.

《장입구가 댔소!》

눈이 휘둥그래서 웨치는 노동자의 웨침소리에 정능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장입구가 메다니?

장입구우에 광석이 무뚝히 쌓이고있었다. 콘베어가 섰다.

장입을 못하면 로를 세워야 했다. 생산을 멈춰야 했다.

생산을 멈추지 말자고, 어떻게 해서나 생산을 정상화하자고 아글타글 해왔는데 이제는 어쩔수없이 로를 죽여야 하는가. 가슴이 바질바질 타들었다.

장군님께선 7금속생산에 대한 보고를 기다리시는데... 로를 세우고 장입구를 뚫는다면... 수십톤의 언충을 꺼내야 하고... 결국 막대한 로력과 전력, 쇠물을 낭비하게 된다. 기일도 보장할수 없고 장군님의 말씀을 관철할수 없게 된다.

아침에 부문당위원회에서 우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7금속을 계속 생산해야 한다고,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한 장군님의 말씀관철을 중단할수 없다고 부르짖던 부문당비서의 목소리가 귀전에 쟁쟁히 울렸다.

그래, 로를 세우면 안되지. 한순간도... 장입구를 뚫어야지. 가벼운 경련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심장이 쿵쿵 무섭게 뒸다.

장입구를 뚫자면 로아치로 내려가야 했다. 장입할 때 로아치에 접근하는것은 위험한 일이다.

정능은 어느새 자기옆에 모여선 세명의 로공들을 둘러보았다. 튀어나올듯 긴장된 눈망울들... 그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있었던것이다.

불과 더불어 고락을 나누며 불을 다루는 그들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쇠물의 분출은... 화상으로 그치는것이 아니었다. 누가 내려가야 하겠는가. 삶과 죽음이 치열한 싸움을 벌리고있었다. 어느 길을 택할것인가. 사랑하는 안해와 자식들의 얼굴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정능의 눈앞엔 안타까이 애절한 눈으로 쳐다보던 안해의 얼굴이 보여왔다.

《일을 하루이틀만 하고말겠어요?》 하며 안해는 머리를 젓는다.

뒤이어 꼬마곰 대혁의 귀여운 얼굴과 커다란 눈이, 송미의 감쪽스럽고 복스러운 얼굴이, 제 나이보다 숙성한 향미의 가름한 얼굴이 언뜻언뜻 눈앞을 스치며 가슴을 쳤다. 가슴저리게 그리운 얼굴들이었다...

누구든 내려가야 했다.

누구나? 결심하라, 누구나? 그 알지 못할 목소리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정능은 알고있었다. 허나 그것은... 어려운 대답이었다...

마침내 결심하자 심장의 박동이 고르로와지는듯 싶었다.

그때 두명의 청년이 몸을 돌려 계단으로 뛰어갔

다. 그들의 생각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듯... 더 시간을 끌수 없었던것이다.

《서라!》 정능이 벼락치듯 웨쳤다.

그들은 주춤 멈춰섰다.

《죽자구 그래?》

《장입을 해야지요!》

《모두 자기 위치를 차지하란말야!》

그들은 영문을 알수 없어 정능을 쳐다보기만 했다.

정능의 눈에서 불이 일었다.

《못들었어? 자기 위치로!》

제대된지 얼마 안된 청년들은 정능의 위압적인 구령에 반사적으로 한발자국, 두발자국 움직이었다. 뜨거운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던 정능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이를 악물고 계단아래로 몸을 날렸다.

그제야 정능의 결심을 깨달은 청년들은 거의 일시에 부르짖었다.

《비서동지!-》

얼마후 걸렸던 광석들이 로속으로 떨어져내렸다. 장입구가 열린것이였다!

그 순간 《쿵-》 하며 화산이 분출하듯 천도가 넘는 쇠물기둥이 솟구쳐올랐다.

폭음에 놀라 사무실에서 튀어나온 직장장이며 로 밑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로우에 서 총알같이 달려 내려오는것을 보았다.

초인간적힘으로 내려온 정능이 땅우에 쓰러지며 자기를 부둥켜안은 직장장과 동무들에게 남긴 말은 《장입하라! 장입을...》 하는 말이었다. 가슴속에 맺힌 안타까움의 분출이였다...

문이 벌럭 열렸다. 아이들의 청높은 웨침소리, 활력에 넘친 생명의 바람이 방안으로 밀려들어왔다. 영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 별일없을거야,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선 어떻게 하나 살려낼거야. 하지만 가슴속에 매달린 쇠덩어리는 가벼워지지 않았다. ...

밤이 깊었다.

애들은 다 잠들어버렸다. 대혁이는 네활개를 펴고 뒹굴며 자고있다. 향미와 송미는 몸을 웅크리고 고르롭게, 조용히 쉼쉼거린다. 곁에 남편만 있다면 어느때와 다름없는 평온하고 행복한 밤이 있을것이다.

몇시간전에 아버이가 왔다갔다. 후송도중 정능이 열차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숨을 거두다니? ... 영옥은 멍한 눈길로 아버이를 쳐다보기만 했었다.

정능은 어제저녁 며칠만에 집으로 들어왔었다.

옷을 갈아입고 오늘아침 출근하기에 앞서 송미의 가방손잡이를 고쳐주었다. 그리고 대혁의 숙제장에 오래간만에 《아버지 보았습니다》란 수표를 해주고 아들의 어깨를 도닥여주면서 《공부를 잘해야

때. 그날 배운것은 그날로 꼭꼭 알고 넘어가야해. 알겠니?》 하고 말해주었었다.

그런데 그가 죽다니? 어떻게 그렇게 끝날수 있는가? 어떻게 그가 이 세상에 없을수 있단말인가.

《평구는 직장에 안치하였네. 오늘은 나을 필요가 없어. 나오지 말라구.》

만일 영옥에게 기력이 있었다면 제련소로, 남편이 있는곳으로 가지 않고는 못견디었을것이다.

그러나 아바이의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의 피가 발 밑으로 빠져버린듯한 허탈감에 발을 움직일수없었다. 간신히 서있다가...그만 그자리에 쓰러지고말았다.

멀지 않은 역에서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생활은 역시 생활대로 흐르고있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음향이 영옥의 귀전엔 아무런 자극도 주지 못하였다. 그의 심장에서는 생활의 궤도가 끊어져버렸던것이다.

《대척이 아버지!》 영옥은 애절한 그리움을 안고 불러본다.

온몸에 봉대를 감고 담가에 실려왔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러자 그때 이미 더 어찌할수 없는 상태였다는 깨달음이 불시에 가슴을 바위돌처럼 내리쳤다.

그가 남편 아닌 판사람이었다면 영옥은 그때

《후송시킬 필요가 없어요.》 하고 머리를 흔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편이었기에 후송되면 살것이라고, 언제쯤 회복될가 하는 생각까지 했던것이다.

그 희망의 불빛이, 그 절절한 소망의 불빛이 지금은 꺼져 버렸다.

사랑하는 남편은 다시 돌아올수 없는 길로 영영 가버렸다.

《대척이 아버지!》 멀어져가는 정능의 모습을 붙잡으려는듯 그는 안타까이 다시 불러본다. 그 부름에 대답하는듯 기적소리가 《봉-》 울린다. 남편은 가버렸다. 남편의 대답은 영영 들을수 없다.

영원히.

그 아픔에 못이겨 그는 일어섰다. 무심중 책상으로 다가갔다. 책상위에 놓여있는 남편의 유물,

아바이가 가져온 빨간 생활수첩을 집어들었다. 남편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싶은 간절한 마음에서인지,

끊어져버린 생활의 궤도를 다시 잇고싶은 필사적인 충동에서인지, 자기로서도 알수 없는 기원을 담아 그는 그 책을 펼쳐들었다.

《주체85(1996)년 7월 8일

오늘은 수령님께서 서거하신지 두툰이 되는 날이다.

십여년전 우리 제련소를 찾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생

산이 정상화되지 못한것을 심려하시며 생산이 정상화된 다음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제대로 못하다나니 십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때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관철하지 못하였다.

이제는 영영 수령님을 모실수 없게 되었다. 영원히 씻을수 없는 죄가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속에 쌓이고있다. 이 죄를 어떻게 씻겠는가. 장군님의 현지도시기념일을 온 제련소가 명절처럼 맞근하지만 장군님께서 피로운 마음을 안고 제련소를 떠나셨던 그날을 나는 도저히 가벼운 마음으로 회억할수 없다. 수령님앞에, 장군님앞에 진 죄를 어찌 잊을수 있단말인가.

장군님께서 우리 제련소에 다시 오실 날은 언제겠는가.

그날이 기다려지면서도 또 심려를 끼쳐드리게 될가봐 두렵다.

아직도 우리는 장군님을 모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주체85(1996)년 8월 X 일

나도 내 몸상태가 좋지 않다는것을 안다. 날이갈수록 더 좋지 않다. 그러나... 참자. 휴가도 료양도 지금은 안된다.

나때문에 잠 못이루는 어머니나 안해를 생각하면 마음이 쓰리지만 용광로를 뒤두고 발이 떨어지지 않는걸 어찌겠는가.

어제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웠다. 용광로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내 손을 꼭 잡아주시었다.

《수고했소, 동무들.》

너무도 기쁘고 감격하여 눈을 번쩍 떠보니...꿈이었다.

그러나 장군님의 그 자애로우신 음성, 따뜻한 그 손길은 지금도 내 가슴을 끝없이 설레이게 한다.

우리 용광로엔 아직 부족점이 많다. 언젠가 장군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들이 그대로 장군님의 마음에 못이 되고 가시가 되리란걸 알면서 내가 어떻게 잠시라도 여길 떠난단말인가. 우리 동무들이 나를 대신해 일을 더 잘한다 해도 용광로에 대한 근심은 한시도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것이다. 만약 내가 없을 때 로가 선다면 로의 정상운전을 보장 못한 죄를 어떻게 씻겠는가.

우리는 너무도 많은 맹세를 입으로만 외워왔다. 더는 그럴수 없다. 더는 안돼. 쇠물만이 우리의 충성심을 말해줄수 있다!

그렇다. 농장원은 쌀로, 탄부는 석탄으로, 우리 로공들은 쇠물로 장군님을 드림없이 억세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의 창조물을 떠난 맹세는 맹세가 아니

다.

비록 내 힘이 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량심에 부끄럽지 않게 내 힘껏 무엇인가 한다면, 한치라도 더 높은 쇠물탑으로 장군님을 받들어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다면… 더 원이 없을것이다.

참자,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높이에 생산을 올려 세울 때까지, 그날까지 참자. 안해가 나와 한뜻이 된다면 정말 큰 힘이 되련만.

기다려주오. 조금만 더…여보, 그때에 가선 내 당신이 하라는대로 다하겠소…》

영옥은 책을 덮었다. 눈은 앞을 향하고 있었으나 그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걸잡을수 없는 눈물이 샘솟듯 솟아오른다.

료양도 휴가도 마다하고 아글타글하던 정능의 심정을 지금 비로소 똑똑히 알게 되는 그였다.

장군님께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정능의 꿈, 자기가 천진한것으로만 여겼던 그 꿈엔 얼마나 절절하고 순결한 님이 고통치고있었는가. 저 용광로처럼 언제나 식을줄 몰랐던 그 불덩어리의 가슴속엔 얼마나 맑고 뜨거운 지향이, 얼마나 큰 아픔이 숨쉬고있었는가.

안해라는게 너무도 자기를 모른다고 하던 정능의 말이 불시에 그의 흉벽을 바위돌처럼 때렸다. 그렇다. 너무도 몰랐다. 남편을 위해 원심을 써왔다고는 하지만 도리어 남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준 자기였다. 눈보라 사나운 겨울밤, 향미를 안고 병원으로 찾아왔던 정능의 질척어린 눈길이며 안타까이 앞을 응시하면서 몸부림치던 《아무래도 지금은 용광로를 못떠나.》 하던 그 부르짖음이 가슴을 갈가리 찢는것 같았다.

《조금만 참자구. 응.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자기에게 사정하듯 간절히 말하던 그 목소리가 광광 심장을 두드렸다.

《대혁이 아버지!…» 영옥은 눈을 꼭 감으며 가슴을 움켜잡았다. 심장이 터져나가는것 같았다.

그처럼 기다리던 그날을 끝내 보지 못하고 간 남편, 그날을 위해 얼마나 안타까이 몸부림치던 남편이였는가.

지금 그는 반장이 언젠가 하던 말이 리해되었다. 정능이 진심으로, 더욱 순결하게 장군님을 받들자고 가슴을 내댔다면 말이…

아바이가 하던 말이 들려왔다.

《우리가 전투를 하는것두 스스로 말아하는거네. 비서를 따라서… 그처럼 진실하게 살자구 말이지…》

실로 진실하게 산다는것은 어떤것인가. 번지르르한 빈말이 아니라 자기의 피와 땀을 바친 창조물로 장군님을 받든다는것이 아니겠는가. 심장을 바치

않는 진실한 삶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그러한 남편을 돕자면 무엇보다 그의 지향을 이해하고 있는 힘껏 떠밀어주었어야 했을것이였다.

불현듯 남편의 최후의 웨침소리가 고막을 두드렸다. 《장입 하라, 장입을…»

그 웨침은 마치도 자기에게 하는 부탁같았다. 남편이 못다한 그 일, 남편이 관철하지 못한 장군님의 말씀을 안해인 영옥이 마저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목소리같았다. 그렇다. 그가 못다 한 일을 자기가 마저 해야 할것이다. 드림없는 쇠물탑으로 장군님을 받들기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던진 남편의 뜻을 실현하는것이 남편의 마음에 지웠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길이 아니겠는가.

×

용광로직장에서 살다싶이하는 현장치료대의 녀의사를 사람들은 생각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친누이로, 어머니로 되고저 아글타글하는 녀인, 진정 그전날 세포비서의 모습이 그대로 비친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지금 녀인은 묵묵히 서서 쇠물이 쏟아지는 용광로를 바라보고있다. 눈에선 눈물이 방울져 떨어진다.

드디어 7급속생산량은 련일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높이에 올라서고있다. 102%, 120%…

오렌지빛의 화염, 날아오르는 선홍색의 불씨…

저것은 바로 정능의 피와 땀, 그가 장군님께 올리는 충성의 꽃보라가 아닌가.

환희에 넘친 정능의 얼굴이, 그 불꽃튀는 눈동자가 보이는것 같았다. 당장 그가 달려나와 자기를 그러안고 춤을 출것 같았다. 심장이 터져나올듯 세차게 고동친다.

문득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우신 영상이 눈앞에 선히 보여왔다. 너무도 선명하게, 너무도 몸가가이 안겨오는 모습이였다. 꿈인가, 생시인가.

장군님께서선 미소어린 눈길로 영옥을 바라보신다. 사랑과 믿음에 넘친 자애로우신 안광이 영옥의 얼굴을 뜨겁게 어루만지신다. 영옥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장군님께서선 말씀하신다.

《수고했소, 동무들.》

정능과 영옥의 간절한 마음을 깊이깊이 헤아리신듯 더없이 친근하고 다정하게 하시는 말씀!

그 음성, 따뜻한 손길, 그 체취가 귀와 피부로, 온 심장으로 감각되는 순간 누를수 없는 흥분과 감격이 온몸에 줄달음친다.

《아…여보.》 떨리는 입술로 영옥은 속삭이듯부르짖었다. 《그날이… 그날이 왔어요. 당신이 그처럼 기다리시던 그날이…»

봄비내리는 강반에서

김숙

내 때없이 찾아와도
쉬이 못떠나서 해지우는
여기 보통강반에
봄비 내린다
못잊을 5월의 그날처럼

유유히 흐르는 저 은빛물결도
있새마다 비방울 굴리며
내 머리채를 스치는 실버들도
어머님을 못잊어
정답게 속삭여주는가

해맑은 저 하늘가
노고지리도 기쁨에 겨워 지중이던
해방된 이듬해 봄
보통강개수공사착공식 그날에
수령님 모시고 나오신 어머님
여기서 건국의 삽을 드셨나니

아 그리움에 젖어 또 한결을 옮기면
어머님 등에 지신 흙짐에도
허리에 치마끈 단정히 동이신
옷자락에도 흐르던 비방울
그날의 진창길에 고이던 그 비방울
내 마음에도 젖어라

목메여 부르며 찾으면
금시 어머님 뵈울것만 같아
눈시울 적시며 둘러보나니
피여난 꽃들은

해빛같은 그 미소이런가
기슭에도 강반에도 숭고한 뜻 어려있는
력사의 강 보통강

들려와라
백두의 풀물오른 그 손으로
손수 빛은 하얀 인절미
마을녀인들과 허물없이 나누시며
어머님 부르신 《사향가》의 노래소리

아 달밝은 밀영의 그날에
어머님은 그려보았으리
눈물의 강 수난의 이 강반에
젊음이 넘치고
행복의 노래 끝없는
오늘의 이 유보도를

걸음걸음 꽃그늘속에
걸음걸음 꽃바람에 젖어
목메여 부르노라 어머님을
오늘도 비내리는 그 길로 가시는가
그리움만 여기 남기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오는비 가는비 제일로 많이 맞으신
우리 어머님
내 한생토록 그날의 봄비 맞고싶어
천년이고 만년이고
이 강반에 서있고싶어라

나는 보웠네

(총련)리명옥

나에게도 있네
위대한 수령님을 뵈웁던
행복넘친 그날이

사무치는 그리움 안고
정원길을 달려갈 때
위대한 수령님 기다리셨던듯
나에게로 마주 걸어오셨네

꿈결에도 그림던 어버이수령님
미처 그이께 인사도 올리기전에

해빛같은 미소로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두팔을 벌리시며 나를 맞아주셨네

-네가 왔구나...
자애로운 그 목소리에

나는 인사도 모두다 잊고
그저 그 품에 와락 안겼네

멀리서 왔다고 멀리서 왔다고

내 젖은 볼을 닦아주실 때
인자하신 어버이 품속에서
아이적목소리로 수령님을 불렀네

달래는듯 내 등을 두드려주시며
할아버지도 잘 계시느냐
아버지, 어머니도 잘 계시느냐
다정히 물어주신 수령님

몇해전 만나신
그 얼굴들을 그려보시는듯
잠시 말씀도 없으셨다가
그의 손녀에 그들의 딸이라
수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네

-총련이
이런 동무들이 있어
꼭꼭하게 대를 이어나가고있습니다

만족하신듯
기쁘신듯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어버이수령님
나의 팔을 끼시고 걸어주셨네

붉은 노을이 피어나는
이른 아침의 정원을
그렇게 어버이수령님은
오래오래 나와 함께 걸으셨네

나는 뵈웠네
어버이수령님을
할아버지가 그이를 뵈웠듯
아버지, 어머니가 그이를 뵈웠듯
나는 수령님을 뵈웠네
그날은 세월이 가고가도
영원한 행복의 날로 마음속에 있네

나는 어머니를 봅니다

-제1중앙군관학교 2기 졸업식 사진앞에서~

박경심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그 어이 고개를 숙이시었습니까
환상의 이 기념사진에
그 모습 밝게 남기시라고
그날은 햇빛도 눈부셨는데

어머니를 뵈옵고저
밀림에 총성높이 준마를 달리시던
전설의 백두산녀장군을 우러러
그리움 더치며 정렬한 대오

어머님 수놓으신 군기 들고
어머님 지어주신 군복 입고
끝끝한 새 조선의 군관들
마음속에 삼가 큰절을 드리는 그 순간

보고싶어
전우들 생각에
만리광야 피어린 혈전장
이름모를 산기슭, 눈덮인 언땅에
눈 못감고 묻힌
전우들 생각에 소리없이 흐르는 눈물
그 심장으론 멈출수 없는것이어서
어머님은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까

나는 압니다 어머니
맑게 하염없이
그날의 어머님 눈에 썸썸것은
군대가 없어 앓았던 이 나라에
살아 못이루고간 전우들의 넋원
의리로 안아
의리로 꽃피운
한없이 크나큰 기쁨이었던줄을

멀리 오늘을 그날에 먼저 내다보신 어머니
수령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무력의 앞길에
영광의 축복을 없으시며
금할길 없으시던 행복의 오열이 아니옵니까
숫구쳐 숫구쳐오르던 환희의 걱정이 아니옵니까

아, 웃으시며 남기셔야 할 기념사진
영원히 고개숙인채 남기셨어도
나는 봅니다 인민은 봅니다
그리움의 세월우에 햇빛처럼 빛나시는 어머니모습
우리 군대의 영원한 어머니로
감사의 경의를 길이길이 받으실
빨찌산어머님의 위대한 초상을
봅니다 아 조국은 봅니다

변함없는 모습

장미현

건설부문의 이름있는 박사이며 대학교수인 홍석규는 흘러내리지도 않는 머리카락을 공연히 올리며 강의안을 훑어보고 있었다.

서쪽으로 향한 넓은 창문으로 비쳐드는 저녁노을이 그의 불긋불긋한 얼굴을 더욱 붉게 물들어놓았다. 반곱슬머리와 잘 조화를 이룬 그의 부한 얼굴은 노을빛에 반사되어 더욱 화기가 흘렀다. 그 모습은 그의 나이 선여섯에서 대여섯을 대변에 없애버린 듯싶었다.

조심스러운 손기척소리가 울려왔다.

《들어오시오-》

낮은 학년의 학생들만이 대체로 이렇게 두드린다고 생각하며 홍석규는 틀지게 앉은 자세로 길게 대답하였다.

방안에 들어선 사람은 뜻밖에도 학생이 아니라 꽃보자기에 무엇인가를 싸든 중년녀인이었다.

흰저고리, 검은 치마...

(가만, 낮이 익다...)

얼굴이 가름하고 선이 또렷한 입술,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크고 검은 쌍꺼풀진 두눈, 한마디로 첫인상에 아주 세련되어보이는 중년녀인의 눈귀에는 주름이 연하게 가로 건너갔지만 처녀시절의 미모가 아직 그 잔잔한 주름살 밑에 살그머니 그대로 숨겨져 있었다.

처녀때 뒤로 치렁치렁하니 한가닥 길게 드리웠던 까만 머리를 지금은 보기 좋게 틀어올렸지만 교수는 윤옥심이란 그의 이름을 대뜸 기억해내었다.

《안녕하십니까?》

녀인은 교수의 놀라운 태도에는 아랑곳없이 머리를 곱게 숙여 인사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였다.

《안성고등건설전문학교 교원 윤옥심이라고 합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를 소개한 녀인은 이어서 자못 저어하는 기색으로 말을 이었다.

《저- 선생님께 미안한 부탁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안성고등건설전문학교에서요?》

안경을 벗어들며 일어서던 교수는 윤옥심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충격을 지그시 내리눌렀다.

《무슨 부탁인데요?》

그의 말마디에는 당황함이 어리었다.

녀인은 붉은 꽃무늬가 촘촘히 박힌 나이론보자기에 싼것을 책상 한귀퉁이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이건 제 남편의 미완성논문입니다.》

녀인이 보자기를 풀어헤치는것을 지켜보던 홍교수는 원고묶음의 첫장에 찍여진 《로진건》이란 이름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로진건은 그가 대학교단에 섰던 첫시기에 키워낸 제자들중의 한사람이었으며 대학시절에 두각을 나타내어 선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학생이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그곳 건설사업소의 현장기사로 일하면서 고향도시를 건설하는데 크게 한몫을 하였다.

교수는 오래전에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제자들에게 가치있는 논문을 써낼것을 권고하는 편지들을 곳곳에 띄운 일이 있었는데 로진건도 그 대상중의 한사람이였었다.

(로진건동무가 저 윤옥심의 남편이였단말인가.)

《어서 앉으십시오. 앉아서 차근차근 이야기하십시오.》

교수는 제가 먼저 앉아 원고를 끄당겨 자기앞으로 가져다놓으며 아직도 송구스러운 마음안고 서있는 녀인에게 거듭 자리를 권했다.

《저의 남편은 살아계실 때 사실 이 논문을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왔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박사논문준비로 하도 바빠하시기에 차마 내놓지 못하고 말았답니다.》

의자에 앉는것이 미안스런듯 녀인은 어느새 꺼내든 손수건 한끝을 두손으로 만지작거리었다.

《어서 앉아서 이야기하십시오.》

의자를 가리키며 교수는 녀인에게 재촉하였다.

그제야 더는 사양하지 않고 녀인은 치마폭을 얹전히 감싸며 자리에 앉았다.

《저의 아들이 올해 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애가 대학입학시험을 치고 와서 저에게 아버지는 왜 논문 하나 발표하지 못하고 학위도 못받았는가고 캐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루루이 설명할수 없어 대학이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입학하는것이 아니라는것과 네가 공부를 착실하게 하여 시험을 잘 쳤으니 이 어머니는 기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고있지만 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답답하게 이야기하는 윤옥심의 목소리를 듣노라니
홍교수는 몇달전 대학입학시험때 자기가 학생인물
심사에 동원된 일이 생각되었고 로진건의 아들과
나누었던 미묘한 대화가 머리에 떠올랐다.

《학생은 왜 건설건설대학을 지망했습니까?》

《전 아버지처럼 건설자가 되고싶기때문입니다.》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누군데?…》

《이 대학을 나온 건설기사였었는데 이름은 로진건
이라고 합니다.》

《뭐?!로진건?…그럼 네가 로진건의 아들이란말이
냐?…그 사람은 재능이 있고 정열이 있는 사람이였
지. 참 아쉽다. 논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너무도 일
찌기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 네가 아버지뻘까지 합
쳐 이름있는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너의 어
머니도 떠나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한결 나아질
게다!》

《저의 어머니 늘 아버지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이름있는 건설자였고 한생을 보람있게 살으셨다고
저에게 자랑스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때 있었던 이런 대화를 되새기는 교수에게 또다
시 윤옥심의 절절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전 안해로서만이 아니라 혁명동지로서 남편이 못
다한 이 일을 뒤늦게나마 마무리하기로 마음먹었습
니다. 그래 제 혼자서 애써봤지만 잘 안됩니다. 선
생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윤옥심은 자기가 찾아온 사유를 이렇게 솔직하고도
명백하게 설명하였다.

홍석규는 더는 해설이 필요없다는듯 안경을 한번
추슬러올리더니 두눈을 내리깔고 논문을 한장씩 번
지며 눈여겨보기 시작하였다.

교수는 논문의 제목과 첫머리를 보고 지방건설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과학적해명을 위해 애쓴 논문
이라는것을 인차 알았다.

교수는 소리가 나지 않게 종이장을 번지며 또박또
박 씌여진 글줄들을 읽어나갔다.

허나 이 시각 그는 원고지에 씌여진 글줄을 따라서
내용을 읽는것과 함께 자기의 뇌리에 새겨진 추억
의 갈피를 헤치고있었다.

윤옥심, 교수가 이 녀성을 알게 된것은 온 나라가
판개공사로 들끓었던 1960년대초였다.

그때 대령장상류의 한 골짜기에서는 산과 산사이를
막아 저수지를 건설하는 거창한 공사가 벌어지고있
었다.

이 공사에는 군안의 각지에서 선발된 3천여명의 남
녀청년들과 함께 건설대학의 다섯명의 실습생들도
참가하고있었다.

북소리, 팽파리소리, 밀차달리는 소리, 발파소리,

호각소리, 웨침소리… 그리고 떠들썩하는 웃음소리.
이 모든것이 뒤엎켜 메아리치는 저수지공사장, 이
곳 처녀들속에 언제나 진한 남색작업복을 가쁜히
입고 늘 뛰어다니는 처녀가 있었다.

그가 바로 속보판에 이름이 크게 나붙곤하는 처녀
목고대장이며 배구선수이면서도 노래 또한 잘 불러
인기를 모았던 스무살의 외태머리처녀 윤옥심이였
다.

방금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윤옥심은 남달리 섬세하
고 부드러운 처녀여서 매력적이면서도 인정이 뜨거
웠다.

휴식일이면 처녀들을 총동하여 건설자들의 옷가지
들을 깨끗이 빨아주곤하였었는데 건설대학의 실습
생들의 흙발린 옷들도 언제나 잊지 않았었다.

그때면 그는 작업복이라 하여도 늘 깨끗해야 한다
며 밤새워 다림발을 곱게 세워서 보내주었고 때로
는 큰어머니가 보내준 찰떡보따리를 통채로 안겨주
곤했다.

성급한 한 처녀가 질통을 메고 달리다가 다리를 상
하였을 때에는 남편저 자기 등에 그를 업고 근10리
길을 단숨에 달려간적도 있었다.

저수지공사장에서 건설자들의 사랑을 받고 인기있
던 이 처녀혁신자가 뜻밖에 봉변을 당하고 쓰러진
일이 있었다.

건설대학 실습생들이 나무기중기를 창안하여 설치
하고 시험하다가 뜻하지 않게 이 처녀에게 흠벼락
을 들썩웠던것이였다. 중상은 아니였지만 처녀는
여러날동안 일터에 나오지 못했다. 이 일이 있은후
대학실습생들은 건설장에서 특히는 처녀들속에서
한동안 말없는 규탄의 대상이 되였다.

대학생들은 두번씩이나 음식꾸레미를 요란하게 꺾
겨들고 처녀들의 숙소를 찾아갔으나 처녀들은 그들
을 들여놓지 않았다. 윤옥심이 허락하지 않았던것
이였다.

대학실습생들의 책임자였던 28살의 체대군인대학
생 홍석규는 여간만 자책감이 크지 않았다. 자기들
의 실수로 하여 한 처녀의 운명이 불행으로 이어진
다면 어찌하랴?…

홍석규는 생각끝에 윤옥심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서 그는 자기들의 불찰을 구구히 사죄하였고
어떻게든 그의 회복을 촉진시킬 대책을 세우며 몸
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의 몫을 자기네 대학생들
이 담당해서 해제끼겠다고 썼다.

《대학생동지! 기중기기초나 잘해서 성공해주십시
오!》라고 윤옥심은 회답하였다. 참으로 짹짹했다.
홍석규는 모욕감과 수치를 느끼었다.

그후 기중기는 성공하였다. 허지만 그는 다시 편지
를 쓰지 않았고 옥심이를 만나지도 않았으며그 일

을 잊어버리기로 하였다.

얼마후 처녀목고대장은 몸을 털고 다시 공사장에 나타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듯이 기운차게 일을 하였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제방쪽에까지 전이나 변함없이 크게 나붙었으며 저수지완공의 날에는 공로메달수훈자로 되었었다.

홍석규와 윤옥심사이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30여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홍석규 교수 자체도 그 일을 다 잊은듯하였는데 윤옥심이 이렇게 불쑥 나타난것으로 하여 그 추억이 생생히 되 살아났다.

이러한 회고의 갈피를 헤쳐보며 교수는 논문의 마지막까지를 번져보는것을 끝내었다.

(좀 늦었지만...이 논문의 완성은 물론 가치있는 일이다. 그러나 얼마나 품이 많이 들어야 하는가! 이런 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복잡한 생각이 담긴 눈길을 책상아래로 떨구면서 먼길을 온 윤옥심의 끈색편지화 앞코능이를 바라보던 홍교수는 조심스레 말하였다.

《윤옥심선생, 이 논문... 이 논문을 살리자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엄청난 큰품이 들어야 될텐데...》

못할 말이라도 한듯 홍교수는 윤옥심의 눈길에서 벗어나려고 황황히 고개를 돌렸다.

론문이 늦어졌다는 말은 입안에 삼킨채로...

《그래요? 정말 그렇게도 힘든것입니까?》

실망에 젖은 목소리로 힘들게 되물으며 윤옥심은 교수의 뒤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이 논문에 대한 랭답한 그 기색때문인지 윤옥심의 망막에 안겨진 교수의 뒤모습은 갑자기 별스레 결 늙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윤옥심은 책상앞으로 다가서서 보자기를 반듯이 펴고 원고를 떨리는 손으로 주섬주섬 거두었다.

그것을 만류할 용기도 내지 못하고 말없이 건너다보면서 홍교수는 자기의 마음이 번거로와짐을 느꼈다.

(남편이 못다한 사업, 그것을 끝까지 끝맺어주려고 이토록 애쓰는 이 녀성의 행동- 이것은 자식에게 아버지가 짧은 생이지만 결코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치려는 그 지성만도 아니지 않는가.

여기엔 조국의 지방건설을 걱정하는 한 건설자가정의 그 가뜰한 심정도 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서슴없이 받아안을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선생! 로진건동무가 10년전에만 이걸 가져왔더라도 나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창문너머 서쪽하늘엔 어느덧 해가 넘어가고 붉은

저녁노을이 넓게 펼쳐졌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조용히 고개들 숙여보이고나서 윤옥심은 지척지척 방을 나섰다.

《저... 나도 논문에 대해 좀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너무도 실망해하는 녀인이 측은해져 홍교수는 위안삼아 그의 등뒤에다 작별인사처럼 던지었다.

교수의 그 어조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진정이 섞였다면 윤옥심이 다시 돌아설수도 있었지만 그 음성에는 진실한 감이 느껴지지 않았던지 녀인은 그냥 걸어나갔다.

...

어느날 오후 홍교수가 대학운동장에서 롱구선수들의 훈련경기를 나무그늘밑에서 보고있을 때 학부직 일학생이 편지를 전해주었다.

편지 곁봉에는 윤옥심이란 이름이 정성스럽게 또박이 씌여져있었다.

윤옥심. 이 세 글자를 입속말로 읽어보는 순간 홍석규교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쿵하였다.

서둘러 곁봉을 떼고서 편지를 펼치고 몇줄 읽어내기 시작하자 그의 얼굴은 점점 붉어져갔다.

그는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아무도 없는방안에서 마음을 녹잡히면서 다시 한자한자 새겨가며 읽었다.

《...

선생님께서 저를 알아보셨다는것을 알면서도 그냥 돌아서 나온 자신을 사죄합니다.

선생님을 만나뵈옵고 하고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저는 이제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자주 전쟁이 끝난뒤 폭격자리를 메우고 그우에 학교를 지을 터를 닦으며 토피를 빚던 때와 잊지 못할 저수지공사장에서 질통과 목고를 메고 달리던 때를 감회깊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돌이켜 보기도 합니다.

그 보람찼던 공사장에서 선생님들이 나무기중기를 만들던 일도 되새겨봅니다. 그 기중기는 기초와 같은 받침목이 약해서 두번이나 넘어지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저수지방향을 쌓는데서 큰몫을 했었지요.

저는 선생님도 그 기중기를 만들던 한사람이었다는것을 잊지 않고있답니다.

선생님께서 그 기초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의의를 부여하여 논문을 심중하게 대하는 그 리유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건축에서 기초와 인간생활에서 기초! 이 두가지 문제는 제 생각엔 호상 깊은 련관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빛나는 창조물이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 일떠

선다는것을 전제로 할 때 선생님, 그 논문이 단순히
건축학적견지에서만 의의를 가지는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게만 생각한다고 탓하지나
않겠는지요.

우리가 자식들, 우리의 후대들인 새 세대들에게 어
떤 신발을 신기는가 하는 문제도 건축의 기초문제
와 다를바 없다는것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대학교단
에 서계시는 선생님께서 더 절감하실줄 믿습니다.
사람들속에는 눈에 뜨이고 세상에 알려지는것에는
관심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것에는 주의를 덜돌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봐요.

저는 요즈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며 대학에
다니는 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의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할가 하는것으로 머리가 복잡해지는것
을 어찌지 못하겠구만요.

바쁘신 선생님께 저의 이러루한 심정을 적어 죄송
스럽기 그지없습니다만 이렇게 펜을 들고보니 어쩐
지 스스로없이 저의 속마음까지도 쓰게 됩니다.

선생님, 저는 건설대학을 마치고 평양의 과학원배
치를 마다하고 고향땅에 내려온 로진건동무를 알게
되고 그와 마음합쳐 일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류달리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암질이 약한 우리 고향땅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기
초공법을 찾아내고 대를 이어 굳건히 서있을 멋진
건축물을 창조하려고 건설현장에서 밤낮을 이으며
서 일을 하던 그이였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다싶이 로진건동무는 몸도 체소하고
말도 없어 평시에는 별로 눈에 띄우지 않는 그런분
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불같은 사람이였습니다.
불길을 안은 불덩어리라고 비유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기에 그인 자기의 리상을 담은 고향땅건설전망도
를 만들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애쓰다가 뜻하지 않
은 정황에서 동지들과 건설설비를 구원하기위해 한
목숨 서슴없이 내대였답니다.

자기 논문에서 해결할 문제들에 대한 많은 해답을
실천에서 풀어놓고 그것을 마무리하지 못한채말입
니다.

...

선생님, 제가 남편의 논문을 선생님께 들고간 저의
심정을 이젠 조금이라도 이해해주셨으리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성땅에서 윤옥심 드립니다.》

윤옥심이 자기 자신을 알고 찾아왔었다는 그것도 그렇
지만 여러가지 깊은 의미가 담긴 글줄들은 그의 속
이 떨리게 하였다. 윤옥심이 이렇듯 절절한 마음을

안고 왔었다는것을 미처 가늠하지 못한 홍석규였다.
(내가 어느새 이렇게 되였는가?)

아득한 옛시절에는 나무기중기가 넘어져 윤옥이에
게 흠벼락을 썩었다면 오늘은 또 자기의 실책으로
이렇게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홍석규의 마음은 무거워졌고 생각은 깊어만갔다.
그전에 홍석규는 저수지공사장에서 기초문제로하
여 나무기중기가 넘어지고 사람들이 받침목걱정을
해주었을 때 기중기만이 아니라 자기자신이 넘어진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했어야 하였으며 그것을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였어야 했었다.

교수의 눈앞에는 자꾸만 그해 저수지공사장언덕의
속보관들에 썩여졌던 윤옥심의 그 이름과 보람찼던
공사의 나날들이 화폭처럼 펼쳐졌다.

해빛밝은 창문은 활짝 열려져있고 부드럽게 흘러드
는 바람은 마치 그날의 저수지공사장 골짜기에서
불어오는것 같이 교수의 얼굴을 가볍게 스치며 그
의 마음을 더없이 번거롭게 하였다.

이렇게 자기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홍교수는 며칠을
보내었다.

그날도 하루수업을 끝나치고 자기 방에 들어서는데
그를 뒤따라 한 대학생이 찾아왔다.

바로 로진건의 아들인 로태영학생이었다.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키가 아직도 고등중학교학생
티를 벗지 못한 축이였으나 눈만은 크고 정기가 넘
치였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학부 1학년 학생 로태영입니
다.》

로태영학생은 교수가 자기를 알아보았지만 각듯이
인사하면서 자기를 소개하였다.

《태영학생이 어떻게?...》

《어머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

《어머님이 인편에 이것을 보내여왔습니다. 저더러
이걸 선생님께 가져다드리했습니다.》

그제야 로태영학생은 들고온 가방을 책상우에 올려
놓고 가방뚜껑을 열더니 몇권의 책을 꺼내놓았다.

건축공학과 관련된 참고도서들이였다.

구하기 어려운 희귀한 도서들이였다.

《아니, 이런 좋은 책들을 어떻게 구했소?》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교수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
게 높아졌다.

자기의 심부름이 교수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만족감
으로 하여 동그스름한 얼굴에 웃음을 담고 서있는
로태영학생과 책들을 번갈아보면서 홍교수는 의아
함을 금할수 없었다.

《저의 할아버지와 삼촌이 구해서 우리 집에 보내준
책들입니다. 모두가 건설분야에서 일보셨습니다.》

로태영학생의 말을 통해 윤옥심의 가정이 바로 건설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으며 그의 모습이 친견을 더 진하게 닮았다는것을 교수는 새삼스럽게 알아보았다.

《참 좋은 책들이구만.》

홍교수는 다시금 탄성을 올리며 다음말을 이었다.
《어머니에게 내가 고맙다고 하더라고 인사를 전해 다구.》

그의 말은 토막토막 끊어졌고 이렇게밖에는 달리 자기의 심정을 내비칠수가 없었다.

《이걸 좀 보아주십시오.》

로태영학생은 교수앞에다 다시 수첩장의 사진들과 자료철 비슷한 계산용지뭉음을 내놓았다.

문화회관, 학교, 병원, 고층주택, 농촌문화주택, 다리 등을 찍은 사진들이었다.

《이건 다 저의 고향땅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설계하고 지은것들입니다. 설계는 아버지가했지만 기초계산은 어머니가 많이 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계산이 더 빠르고 정확했으니까요. 이런것두 선생님께 필요합니까?》

사진들과 자료들을 책상우에 차례로 퍼놓으면서 로태영학생은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필요하구말구. 이건 다 귀중한것들이야.》

기초설계평면도와 함께 붙어있는 한장한장의 사진들을 보면서 홍교수는 윤옥심이 자기가 사는 땅을 얼마나 사랑하며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해놓았는가를 생각했다. 그 사진들과 자료들은 윤옥심이야말로 교육자이면서도 숨은 건설자라는것을 알게 하는 증건물이었으며 이 하나하나의 노력의 창조물들에 그들의 성실한 땀이 얼마나 뜨겁게 배여있는가를 충분히 알게하는 자욱들이었다.

《정말 이렇게까지...하긴 그는 처녀때도 그랬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뇌이면서 홍교수는 로태영학생에게 물었다.

《그런데 너의 어머니가 논문은 왜 함께 보내지않았는지...혹시...》

《아마 미처 생각을 못한것 같습니다. 제가 곧 편락을 하겠습니다.》

로태영학생은 교수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빨리 알아차리고 어느새 만류할 사이도 없이 방에서 사라졌다.

원고뭉음을 안고 홍교수를 로태영학생이 다시 찾아온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뒤였다.

《선생님, 아버지가 썼던 논문입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어왔습니다.》

《그래 다른 소식은 없구?...》

《저한테 편지를 보내어왔습니다.》

《다른 말은 없더냐?》

《론문을 분실하면 안된다는것, 받은 즉시로 선생님께 정확히 전달해야 되며 선생님을 힘껏 도와드리라는것입니다.》

《그렇다. 어머니의 말씀이 옳다. 이 논문은 꼭 완성해야 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꽃피우려는 너의 어머니의 그 지극한 마음을 봐서라도말이야.》

《선생님, 그 논문은...그래서가 아닙니다.》

《뭐라구?...》

순간 홍교수의 잔주름덜인 눈까풀이 크게 떠지고 입귀가 푸들푸들 떨렸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그 논문을 그처럼 완성하려고 하는것은 결코 우리 아버지의 뜻을 잇고 아버지의 생을 빛내이려고 하려는데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아버지가 고향땅의 특성에 맞는 건설기초에 대한 기술문제를 잡았을 때 건설자들, 노동계급아저씨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또 어떻게나 극성스럽게 도와나섰는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논문을 안고 밤늦게까지 모대길 때에도 또 현장에서 심혈을 기울일 때에도 건설자아저씨들이 얼마나 힘을 주고 고무를 주면서 도와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아버지가 그 논문을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신후에 어머니는 그 건설자아저씨들을 만나기가 죄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애를 쓰고있는것입니다.》

로태영학생의 깊은 심정을 담은 이야기를 귀담아듣는 홍교수의 가슴속으로는 뜨거운것이 차올랐다.

(그랬었구나. 그가 그토록 열렬히 뜨겁게 바란것은 남편만이 아닌 자기 고향의 모든 건설자들의 뜻을 꽃피우기 위해서였구나.)

그날저녁부터 홍교수의 사무실은 여느때없이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교수가 새로운 논문집필에 착수한것이였다.

로진건의 건설경험을 과학리론적으로 확증하는 방향에서 논문을 쓰기로 작정하였다.

지난 기간 자기가 이미 준비해두었던 가치있는 자료들도 그는 서슴없이 꺼내어 제자의 논문을 완성하는데 리용하였다.

홍교수의 심장은 무섭게 박동을 일으켰고 두뇌는 청춘기를 다시금 되찾은듯 열정에 불타올랐다.

참으로 홍교수가 심혈을 바쳐 집필하고있는 논문의 글줄들은 과학적문구들로 이어진것이였지만 그 마디마디뒤에는 심오한 삶의 철리까지 담겨진것이기도 하였다.

논문집필을 위해 도서관에도 건설장에도 찾아다니며 분망한 나날을 보내던 홍교수는 어느날 로태영을 불렀다.

윤옥심이 걱정하는 아들을 만나보고싶었고 이야기

도 나누고싶었던것이였다.

《너와 함께 오늘 저녁식사를 하자구 찾았다.》

홍교수는 학적부를 보고 바로 오늘이 그의 생일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고 말하고싶었지만 왜서인지 그 말은 그만두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교수의 환대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로태영학생은 벋글거리였다. 사실 그는 은근히 교수선생님과 가까와지고싶은 심정 이였다.

스승과 제자는 나란히 옥류관을 향해 걸었고 식사 뒤에는 함께 대동강변을 걸었다.

잔잔한 대동강은 그 물결위에 온 우주의 별바다가 그대로 내려앉은듯 별빛에 반짝이고있었다.

《태영인 대학입학인물심사때의 일이 생각나겠지?》

《제가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전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죄다 말했습니다.》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면서 홍교수는 진주처럼 반짝이는 물결에 시선을 던지시 던지였다.

대학생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애티가 가서지지 못한 그에게 이 순간 홍교수는 참으로 뜻깊고 의의있는 말을 해주고싶었고 윤옥심이 자식에게 바라는 그 간곡한 념원에 자기의 마음을 덧었고싶었다.

《첫손가락에 꼽히는 이름있는 건축가가 되는것도 좋은 일이지. 그렇지만 태영이! 난 네가 참된 인간이 되는것을 대학기간에 배워야 한다구 생각한다. 다시말해 기초를 든든히 쌓아야 하지. 자신을 책상이나 종이장우에가 아니라 튼튼한 기초를 한 땅우에, 우리 조국 현실에 세워야 한다는그걸 명심해야 왜.》

그리고 너는 성실하고 충실했던 아버지와 온갖 헌신을 보람으로 삼고 살아가는 훌륭한 어머니를 자랑으로 여겨야 한다! 물론 너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찌하여 자기가 전에 없이 이러한 말들을 하고있는지 홍교수는 스스로 의심스러웠다.

아니 논문집필과정에서 체험한 이 말은 건축학을 배우는 초학도에게가 아니라 바로 자기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교수는 이밤이 제자의 인생속에 오래동안 깊이 남아있게 하고싶어 발걸음이 련광정을 지나 대동교에 이르도록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아득히 먼 우리 나라 력대 봉건왕조의 무덤구조로부터 시작하여 고대에쥘트의 피라미드와 오늘 강의시간에 논의되였던 병풍식고총살림집기초에 대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화제의 폭을 넓혔다.

《어머니에게서 편진 자주 오나?》

《예, 가끔 옵니다.》

《너두 편지를 보내구?》

《저도 자주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계시는 어머님께서 무척 걱정하시니까요. 전 어머님께 오늘 저녁 이 일을 죄다 써보내렵니다. 그래두 괜찮겠지요?》

《그건 네 마음에 달린거다.》

두사람은 정말 마지막 시내빠스가 떠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이 유유히 흐르는 물결을 따라 뻗어있는 대동강변을 걷는 이들을 부러움게 내려다보고있었다.

그날 그 대화가 있은후부터는 로태영학생이 제스스로 공부끝난후에 시간이 있을 때면 홍교수의 방에 와서 교수가 바라는 자료를 찾아주고 자기가 알고싶은 문제를 해명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내여온 여러가지 계산자료들, 자기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연구하고 정리하여두던 그 푸른 표지의 자료첩에 대해 아는껏 설명하기도 하였다.

참으로 건설전문학교 수학교원이 만든 자료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훌륭하게 종합된것이여서 홍교수는 그것을 오래도록 그리고 자주 펼쳐보곤하였다. 마침내 논문집필은 석달이 넘어서야 끝났다.

홍교수는 윤옥심에게 전보를 쳤다.

예전처럼 여전히 검은 긴치마우에 새하얀 저고리를 산뜻하게 받쳐입은 윤옥심은 아들을 데리고 홍교수를 찾아왔다.

바라고 바라던 소원을 끝내 성취한 윤옥심의 기분은 그의 밝은 얼굴과 유난히 빛나는 그 눈동자에 그대로 비껴있었다.

《인사해라. 교수선생님이시다.》

이미 아들과 교수가 구면인줄 뻔히 알고있었지만 혼자 들어서기가 거북하여 이렇게 아들을 앞세웠다. 《아들을 잘 두었습니다. 앓으십시오. 자, 여기에, 그간 앓지는 않았습니까?》

《전 보다싶이 건강하답니다. 선생님께서 펍 추가셨군요.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윤옥심은 전보다 한결 자연스러운 몸가짐을 가지고 진심어린 고마운 마음으로 말꼬리를 맺지 못한채 아들과 나란히 의자에 앉았다.

《옥심선생! 선생이 보내준 참고서들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생의 그 귀중한 자료들도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선생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해야 될것입니다.》

사실말이지 나는 이번에 이 논문을 쓰면서 새로운 대학을 나온것 같습니다.》

답답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홍교수는 자신의 정신세계가 새롭게 정화된듯이 느껴졌다.

그는 책상우에 있는 《로진건》이란 이름이 크게 썬여진 원고뭉음을 자기앞으로 끄당겨놓았다. 그 원고옆에는 홍교수가 새로 시작하려는 론문의 자료들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또 새로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것 같군요.》

예민한 촉감과 판단력을 가진 윤옥심은 홍교수가 전과는 다른 자세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알아차리고 감동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탐구를 계속해야지요.》

활기에 넘친 그의 태도는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듯 청춘의 정열로 넘쳐났다.

《윤옥심동무! 이걸 받으십시오.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로서는 힘자라는것 했습니다.》

홍교수는 윤옥심을 예전처럼 동무라 부르며 그 꽃보자기에 원고뭉음을 귀중한 보물처럼 정히 꾸려생기에 넘치는 그에게 주었다.

《고맙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애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아 아니, 우리 건설자동무들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선생님, 선생님께 무엇이든 인사를 드려야할지...》

윤옥심이 목이 꼭 메여올라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커다란 그의 두눈에는 눈물이 그득히 고이더니소리없이 흘러내리었다. 흐르는 눈물을 씻을념 없이 자기의 가슴에 한아름되는 이 중한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손끝마디에 힘을 더 주며 론문을 그려안은 윤옥심의 얼굴에는행복감과 더불어 고마움이 한가득 넘쳐났다.

아들과 함께 교수에게 인사를 한 윤옥심은 방문을 열고나가다가 되돌아서서 다시한번 가볍게 고개숙이며 뜨거운 인사를 하고서야 발걸음을 떼었다.

홍교수는 건측분야에서 로진건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것이 또한 기뻐다.

한 인간 아니 한 가정, 집단의 념원이 담긴 기쁨을 위해 자신을 조금이나마 바쳤다고 생각하니 절로 가슴이 뿌듯해졌다.

(얼마나 훌륭한 녀성인가! 남편과 아들을 저렇듯 극진히 위하며 자기를 아낌없이 바쳐가는 윤옥심! 저 녀인의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로진건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이런 생각과 함께 윤옥심이 남기고 간 따뜻한 미소를 더듬으며 홍교수는 다음 강의를 위하여 부피두터운 책을 펼쳤다.

그 일요일 아침으로부터 몇달이 지난후에 윤옥심은 새로 나온 잡지를 들고 홍교수를 찾아왔다.

《론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선생님.》

윤옥심의 목소리는 감격에 젖어있었다.

교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와 마주앉아 집계를 펴

치었다.

큰 활자로 두드러지게 찍혀있는 제목글을 본 그 순간 홍교수는 깜짝 놀랐다. 자기가 혹시 잘못보지 않았나 착각까지 하였다. 분명 잘못보지 않았다.

그 론문제목말에는 필자인 《로진건》이란 이름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홍석규》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뚜렷이 써있지 않는가.

자기는 필자의 이름을 《로진건》이라고 정확히 썼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였다.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홍교수의 놀라움에 찬 음성이었다.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이름을 그렇게 썼습니다.》

윤옥심의 조용하고 잔잔한 목소리는 공명을 일으키며 교수의 귀전에 더욱 크게 울려어왔다.

《뭐라고요? 그건 왜서입니까?》

성급하게 되묻는 교수였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선생님의 동의를 얻을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그간 외국에 출장을 가게셨구 그래서 전 론문심사자들이 그렇듯 높은 평가를 할 때 선생님의 수고를 말했고 또 저의 의견은 심사자선생님들의 지지와 찬동을 받았었습니다.》

《아니, 그래두 이건...》

《선생님, 론문이 완성되어 세상에 나왔고 또 우리 건설자들에게 새로운 공법이 알려졌으면 그만이지 그 이름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아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동무야 바로 그것때문에 나를 찾아왔구 또 그것때문에 그토록 온갖 지성을 다한것이 아닙니까!》

홍교수는 이해되지 않다가보다 너무도 뜻밖인지라 저으기 열기를 띠었다.

《선생님, 마음 녹잡히시고 저의 말을 마저 들어주세요.》

저 멀리 창밖의 푸른 하늘에 점점이 떠있는 하얀 구름송이들에 뜻깊은 눈길을 박으며 윤옥심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름도 귀중해요...》

그러나 이제 앞길이 막힌 지방건설에서 우리 안성땅의 기초건설경험이 온 나라에 일반화될수가있지 않는가요. 전 이것이 기뻐요. 이것이 제가 바라던것이요. 선생님도 그것때문에 밤을 새우며 심혈을 바치신게 아닙니까!

전 전후복구건설의 그때가 자꾸 생각납니다.

저의 아버지는 전선에서 전사하시구, 어머니와동생마저 미국놈폭격에 잘못되구, 집은 하늘로 날아나 버렸지요. 그래 저는 그때 피눈물을 안고 어린 몸이지만 내 집, 내 고향을 보란듯이 일떠세워야 원썬을 갚는 길임을 너무나도 똑똑히 알았기에 힘든줄 모

르고 걷는것마저 안타까워 뛰어다녔던것입니다.
 전 10년이나 100년만이 아니라 천년이 넘도록 끄떡없는 그런 집을 짓고싶었어요.
 선생님, 것처럼 안타깝게 모대기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논문은 참으로 훌륭해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전 건축도 삶도 그 기초가 잘 되어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또다시 새롭게 느꼈답니다.
 전 말하고싶어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셨듯이 훌륭한 창조물이 중요한것이지 그 창조자의 이름이 중요한건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구 우리의 후대들도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우기 저의 아들 아니 우리 조국의 후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선생님의 이름을 썼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교수를 향하여 몇몇한 자세로 아무런 후회도 없이 마디마디 힘을 주어 말하는 윤옥심의 그 모습은 바로 그때 저수지공사장에서 대학생 홍석규가 보던 언제나 열정에 넘친 처녀시절의 윤옥심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때처럼 쌍까풀진 그의 큰 두눈은 청신한 호수의 물결처럼 시원한 기운을 풍기고있었다.
 《세월이 무척 흘렀는데두 그때나 조금도 다름이없군요! 윤옥심동무!》
 자기는 그때도 오늘도 윤옥심에게서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가 너무도 명백히 안겨왔다.
 홍교수는 사무실의 창문을 두팔로 힘껏 벌리며 활짝 열어제치었다.
 이 순간 그는 비로소 이 논문의 필자란에 자기이름이나 로진건의 이름뿐아니라 윤옥심의 이름 세 글자를 나란히 함께 써놓았어야 옳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자랑스런 녀성이다.
 정녕 저런 녀성과 함께 걸어온 로진건의 생은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얼마나 행복한 일생이었가!)
 열려진 창문너머로 파아란 하늘에 꽃송이마냥 흰 구름송이들이 드문드문 떠있었다.
 그 하늘아래로는 웅장하려하게 일떠선 평양의 모습이 안겨왔다.
 가없이 뻗어간 푸른 하늘밑에 펼쳐진 평양의 아름답고 황홀한 전경을 두사람은 말없이 생각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있었다.

초록의 나무에게

(총련)강명숙

나무여
 초록의 나무여

피약별 사정없는
 한여름 더위에
 시원한 그늘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린잎들 파릇파릇
 어서 자래워
 무성하게 설레여라

나무여
 초록의 나무여

가지마다 알알이
 주렁질 가을에
 미운 태풍을
 용케 맞서기 위하여
 뿌리끝마다 힘주어
 대지를 치받고
 똑바로 서거라

나무여

초록의 나무여

다시 돌아올
 화창한 봄날에
 활짝 꽃필
 분홍색꿈을 위하여
 미더운 네 가지는
 알몸이 되어도
 눈서리 겨울을
 이겨낼것이니

나무여
 초록의 나무여

이제 네가 겪게 될
 모든 기쁨과 시련을 위하여
 오늘을 귀중히
 싱싱 자라라
 향긋한 바람속에
 량팔을 벌려
 저 하늘 닿도록
 키돋움하여라

하나의 영근 이삭을 두고

—가요 《대홍단삼천리》의 가사형상에 대하여—

김철민

이렇게 제목을 달고보니 마치도 어느 농업일군의 수필같은 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가사를 창작하는 우리 시인들이 가사문학이라는 포전에서 가사라는 이삭을 가꾸는 사람들이라고 상상해보니 별로 틀린 생각같지도 않기에 그냥 두어두고 쓰기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영근 이삭이란 가요 《대홍단삼천리》(작사 박정애, 작곡 안정호)의 가사형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나는 이 작품이 우리의 가사문학포전에 매우 귀중한 경험을 남기었다고 보면서 가사를 놓고 생각되는바를 글로써 옮기려고 한다.

여문 이삭은 무겁다

여문 이삭은 어떻게 알리는가? 그것은 무게로 알린다. 여문 이삭일수록 무게가 많이 나간다. 마찬가지로 성공한 작품일수록 무게있는 사상이 실리고 무게있는 형상이 실리어 무겁다.

이로부터 나는 상기한 가사가 구체성과 생동성, 심오성을 가진 풍만한 정서가 실린 무게있는 가사, 성공한 가사라고 말한다.

1. 홍단수 물결우에 황금빛 물들고
밀보리 설레이네 감자꽃 춤추네
수령님 지어주신 그 이름도 대홍단
금나락도 삼천리요 노래도 삼천릴세

가사는 나로 하여금 단숨에 풍년든 대홍단 넓은 들판의 한복판에 서게 하였다. 기슭에 펼쳐진 금나락의 색조에 물들었는가 황금빛으로 출렁이는 홍단수물결, 드넓은 전야에 설레이는 밀보리와 감자꽃! 이러한 형상은 벼이삭, 강냉이이삭이 설레이는곳에서 살아온 나에게 다름아닌 대홍단의 특유한 전경앞에 서있다는것을 현실적으로 감득하게하였다. 아마 여기에서 황금물결, 황금들판이라거나 풍년든 대홍단이라고만 표현하였더라면 나는 이 땅의 그 어느 농촌풍경앞에서나 받아안을수 있는 그런 범상한 느낌밖에 가지지 못하였을것이다. 홍단수와 밀보리, 감자꽃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에 의거하여 서정적화폭을 펼침으로써 가사는 대홍단의 전경을 매우 섬세하게 보여줄수 있었으며 대홍단에 넘치는 금나락의 자랑, 만풍년의 환희를 새로운 눈, 새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흥분하게 하였던것이다. 더우

기 우리 수령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대홍단이라니 그 선정, 그 화폭이 홍단수와 밀보리, 감자꽃으로 더더욱 승엄하게 느껴져 심장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느낌속에서 나는 가사의 1절에서부터 가슴을 활짝 열어제끼고 대홍단의 풍요한 대지에 가슴을 맞부빌수 있었으며 심장으로 대홍단에 울려퍼지는 금나락의 노래에 심취되게 되었다.

이처럼 구체적이며 섬세한 정서적형상이 자아내는 매력은 한없이 크다.

2. 아득히 구름우에 펼쳐진 백두벌
온 세상 부러웁게 풍년가를 부르네
그림같이 아름다운 살기 좋은 대홍단
기쁨도 삼천리요 노래도 삼천릴세

2절가사의 시형상은 살아움직이는 현실적인 생활화폭으로 안겨온다. 백두벌에 풍년가가 울리고 대홍단이 살아움직이는 시형상! 이 협상우에서 기쁨이 설레이고 노래가 울린다.

흰구름도 높이 떠도는데 그보다 더 높은곳에 무연하게 펼쳐진 백두벌! 아득히 울려다보이는 그곳에서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풍년가가 울려퍼진다. 풍년가는 인간의 기쁨이고 행복이며 보람이다. 비옥한 땅에 울리는 풍년가도 더없이 환희롭고 반가웁게 여겨지는데 하물며 구름도 너무 높아 깃들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 풍년가가 울려퍼질 때 그 기적에 대하여 감탄하지 않을수가 있으며 무거웁게 느끼지 않을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느낌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공장도시 대홍단이라는 구절에서 더욱더 승화되고 깊어진다. 공장도시! 우리 당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대강을 내놓으면서 리상적인 사회주의 농촌의 면모가 농업은 공업에 접근되고 생활수준이 도시생활수준에 따라선 농촌이라고 밝히었다. 이 리상촌의 면모가 대홍단에 있음을 가사에서는 공장도시-공업화된 농업, 도시화 된 농촌이라는 의미로 집약화하여 노래하고 있다. 나는 가사형상을 통하여 농업생산의 기계화수준이 비할바없이 높고 공장들이 즐비하게 일떠섬으며 집집마다 전기화되어 문명의 첨단에 올라선 대홍단을 보았다. 구름보다 더 높은곳에 펼쳐진 리상촌 대홍단, 그것은 그림이라고밖에 달리는 표현할수 없는 아름답고 기쁨진 화폭이었다. 이것을 두고 살아움직이는 화폭이며 생동하고 직관적인 정서

라고 하지 않을수가 있겠는가! 생동한 정서로 부각된 가사의 형상은 더 나아가서 심오한 정서를 구현한 품위있는 형상으로 되고있다.

3. 인민의 무릉도원 펼치여주시려
수령님 한평생 가꾸신 풍년벌
그 뜻을 우리 장군님 꽃피우신 대홍단
충성도 삼천리요 노래도 삼천릴세

우리 인민의 행복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누리는 행복이다. 이 행복은 시작부터 우리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으로 꽃피났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애민의 인덕정치에 의하여 오늘은 물론 래일까지도 확고히 담보되는 무상의 행복이다.

그래서 가사에서는 인민의 무릉도원을 펼치여주시려고 수령님께서 바치신 한평생을 노래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의 자옥자옥을 노래한 것이 아니겠는가! 흠모에 젖고 감사에 젖은 마음이 무릉도원의 대홍단에 넘쳐흐른다.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서는 그 바탕에 불같은 충성의 맹세를 깔고 더욱더 무거웁게 대홍단의 형상적화폭에 실린다.

가사의 형상은 이처럼 금나락의 기쁨과 행복에서 수령과 령도자의 위대성으로, 다함없는 충성의 맹세으로 즐기차게 이어지는 시형상인것으로 하여 심오한 정서적형상으로 되는것이다.

구체적이고 생동한 정서, 심오한 정서로 특징지어지는 풍만한 정서적형상의 무게는 그 풍만한 정서속에서 밝혀진 사상의 무게와 크게 합치여진다.

우리 수령, 우리 령도자의 위대성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는 행복의 가치와 크기를 발견한 철학적인 시형상!

위대한 수령을 모시여 우리 인민이 누리는 거대한 행복을 털끝만한 꾸밈도 없이 직선적인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기쁨과 희열, 환희의 밝고 약동적인 정서로 노래한 랑만적인 시형상!

나는 여기에서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크나큰 행복을 노래한 심오한 사상의 분출을 보았고 대홍단삼천리의 노래를 내 나라 삼천리에 울려가는 전인민적인 감정, 전인민적인 환희와 기쁨의 노래로 크게 확증시켜 노래한 시대의 메아리를 느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구체적이고 생동한 정서를 통하여 의의있는 사상을 노래한 가사형상이 바로 정교한 시로 된 명가사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이 귀중한 가르치심에 가사의 형상을 비추어보면 알수 있지 않는가?

가사는 다름아닌 정교한 시인것이다. 그래서 무거웠으며 그래서 성공작으로 느껴졌다. 역시 여문 이삭은 무겁다.

무거운 이삭으로 되기까지...

풍요한 가을만 되면 저절로 이삭이 여무는가?

이삭은 공을 들인만큼 익는다는 말이 있다. 비오고 바람부는 속에 한공수, 두공수... 공력을 들여야 이삭은 한그람, 또 한그람 무거워지고 풍년기쁨을 안겨주는것이다.

가사의 성공에도 이런 사연이 깃들어있지 않겠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시인의 심장이 불라올라 생활에 대한 정서적 경험이 깊어지고 사색의 세계가 비삼히 높아져야 시문학에서 끊임없는 변혁을 일으키고 명시, 명가사 풍년을 안아올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충실한 녀류시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떠날 때에는 별로 모르겠더니 정작 대홍단에서 며칠 있어보니 다시 돌아오고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홍단에 펼쳐진 눈부신 현실은 나의 심장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시다. 그때의 흥분이란 지워지지 않고 자꾸만 커만가는 흥분이었고 나를 끝없는 사색과 감동의 세계으로 이끌어난 흥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쓰자고보니 가사의 용적은 작고 하고싶은 이야기는 많고... 아마 여기서부터 나의 창작은 정서적체험의 정수를 담기 위한 어렵고 힘든 단계으로 넘어갔던가봅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다시금 가사를 읊어보고 싶은 충동을 안겨주었다. 다시 곱씹어 읊어보니 역시 가사에는 깊은 사색과 탐구의 흔적이 있었고 심오한 정서적체험이 비껴있었다.

홍단수 물결우에 황금빛 물들고
밀보리 설레이네 감자꽃 춤추네

사실 대홍단 넓은 벌의 가을풍경을 다 담자면 그럴것이 얼마나 많은가. 보기에도 흐뭇하게 난알을 털어내는 종합탈곡기며 날가리를 산같이 떠실고 질주하는 자동차, 트랙또르들은 물론이고 황금나락우에 지지귀며 날으는 새들도, 난알향기를 듬뿍 실어오는 가벼운 바람결도, 지어는 이삭에 가리워 보일듯말듯하는 한가닥 포전길조차 대홍단의 풍년가을을 읊조리고있다. 아마 이를 다 담자면 소설의 몇십페이지로도 모자랄것이다.

하지만 시인은 밀보리 설레이고 감자꽃 춤춘다는 간결한 하나의 구절로써 풍요한 대홍단의 가을전경을 노래하고있다. 더우기 이상한것은 밀보리와 감자꽃만으로는 모자란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않는것이다. 여기에 무슨 조화라도 있는가? 있다. 그것은 고도로 양양되고 심화된 시인의 정서적체험이었다. 지난날 대홍단은 사람못살 척박한 땅, 불모의 땅이었다. 그 땅에는 가을이 와도 금나락이 설레이지 않

있고 난알향기가 풍기지 않았고 흙먼지와 바람만이 황량한 들판에 몰아쳤다.

가을을 모르던 황량하고 척박한 땅! 과연 그 땅에서 밀보리가 응당 설레일것을 설레였고 감자꽃이 응당 필것을 피었느냐? 시인은 밀보리와 감자꽃을 불안고 몸부림치며 느낌과 체험의 불을 황황 태워 올리던 가운데 마침내 거기에서 대홍단의 풍요한 가을전경을 집약한 본질적인 시형상을 찾아내었던 것이다.

밀보리와 감자꽃은 노래한다.

혁명선열들의 피가 스민 흙 한줌한줌을 소중히 여기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현명한 령도가 해빛이 되고 풍성한 자양이 되어 불모의 땅에 금나락이 펼쳐졌다고, ...진정 우리 수령님은 대홍단의 새 땅을 탄생케 하신 위대한 은인이시라고...

수령님 지어주신 그 이름도 대홍단
금나락도 삼천리요 노래도 삼천릴세

특히 《금나락도 삼천리요 노래도 삼천릴세》의 시구절은 제시된 내용을 강조해주고 커다란 형상력으로 삼천리도 삼천리에 감정의 긴 여운을 전해가는 함축된 시구절로서 시인의 정서적체험의 높은 경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2절과 3절에서도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인의 정서적체험은 더없이 뜨겁고 심오하다. 대홍단의 비약적발전면모를 아담한 시형상으로 생동하게 펼쳐놓은 부분이나 대홍단에 넘치는 행복한 인민의 감정이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의 분화구로 솟구쳐 오르도록 형상한 부분, 지어는 《공장도시》, 《무릉도원》과 같은 시적표현들조차 끝없는 사색과 탐구, 양양된 정서적체험의 거대한 세계를 안고있다. 시인의 정서적체험은 기쁨과 행복의 노래로,

충성과 맹세의 노래로 즐기치게 이어지며 더더욱 깊어져 대홍단삼천리의 폭넓은 시상을 시대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게 하나의 완벽하고 심오한 형상으로 굳게 다져놓고있다.

원래 정서적체험이 고도로 양양된곳에 음악이 있기마련이다. 체험의 정수만을 담자고 하니 자연히 군말이 없어지고 문구가 다듬어지며 음수가 정확히 배열되는것이 아니겠는가?

양양된 정서적체험! 바로 여기에서 3.3조를 기본으로 하여 흘러가는 음수들과 《노래도 삼천릴세》를 비롯하여 표현들의 반복, 강조적수법들에 의하여 랑랑하게 울리는 가사형상의 강한 음악성의 원천이 설명되는것이다.

이렇듯 풍만한 서정과 강한 음악성을 가진 정교한 가사는 바로 시대와 현실에 대한 뜨거운 긍정과 찬양의 열정으로 충만되어있는 시인의 열렬하고 심오한 정서적체험의 산물이라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심오한 정서적체험이 가사를 성공케 한 비결인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요 《대홍단 삼천리》를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통속적이고 내용도 좋은 가사를 쓴 녀류시인을 영광의 자리에 내세워주시였다. 이는 우리의 모든 작가들이 받아안은 영광이기도 하다.

알찬 열매! 무거운 이삭!

나는 가사의 형상적무게와 그 성공의 비결을 내 나름으로 밝힌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만 더 우리 가사문학의 포전을 향해 웨치고싶다.

뜨겁고 풍만한 정서적체험으로써 서정을 무르익히고 가사문학의 대풍을 안아오자!

영웅에 대한 생각

박웅전

불밝은 열람실 창가에서
혁명소설 폐지를 조용히 넘기며
남달리 흘러던 그대의 눈물
미처 몰랐네
사나이 눈물도 해 뜬것인가

정다운 그대의 친누나가
영예군인 찾아서 떠나던 그날에
바래며 흘러던 그대의 눈물
미처 몰랐네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락동강 넘어온 할아버지
두고오신 고향을 못가고 숨질 때
목놓아 흘러던 그대의 눈물나는 알았네
그 눈물 피처럼 진한것임을

모교에 돌아온 영웅이여
그대 모습 반신상 반기여주는
못잊을 교정을 조용히 거닐며
나는 알았네
눈물이 많은이 참영웅임을

내 선뜻 다가설수 없어라

진춘근

공원인듯
유원지인듯
온갖 새 우짖고
벌나비 날아드는
구내숲의 휴식터

취할듯 감향기도 그윽해라
우리 장군님 함흥에 오실 때면
영예군인들을 생각하시어
제일먼저 뜨겁게 품안아주신 그 사랑이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난곳

열가지 비닐제품 만들어 내면
백가지 제품 더 만들어 내고싶고
고운 제품 만들면
더 고운 제품 만들고싶어
기대결을 쉽게 뜯줄 모르는
우리를 부르건만

금붕어 은붕어떼 모여드는
칠색무지개 다리놓은 못가
내 날마다 혁신자의 기쁨안고 찾아와도
가벼이 앓을수 없어라
포도넝쿨 그늘을 드리운 대리석의자에
자동화로 흥겨운 일터

로동이 그대로 기쁨인데
밥맛이 날 정도로 일하라시며
휴식터까지 손수 잡아주신
김정일장군님의 고마운 은정이
마음가득 구내가득 차넘치여

한그루 나무
한송이 꽃에도
우리 장군님의 높으신 그 뜻
한량없는 그 사랑
너무도 숭고하고 뜨거워
화선천리길을 달리던 병사시절처럼
로병의 이 가슴에 청춘의 피가 끓어올라

아 붉고푸른 비닐박막
산더미처럼 높이 쌓아가도
그우에 더 얹고싶은 마음
마냥 뜨겁게 달아올라
내 선뜻 다가설수 없어라

장군님의 만복만을 받아안은
응석둥이가 아니라
혁명의 꽃을 계속 붉게만 피워가는 로병
영예군인의 남다른 충성과 위훈 없인
마음 가벼이 찾아올수 없기에...

북창은 말한다 외 1편

류명호

하늘을 들고
일어서는 흰연기들
팔뚝같은 고압선들에
왕왕 소리쳐 흐르는 전기
오, 북창이 힘을 쓰기 시작했다!

최후승리를 위한
올해의 강행군은 북창
전력문제로부터 시작되었거니

우리 장군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어버이수령님께 새해 설인사를 드리시고
일군들에게 하신 첫 말씀은 전기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 대한 말씀

실토리에서 실이 풀리듯
북창에서 전기가 나와야
나라일이 제대로 풀리지니
장군님 북창에 주신 과업은 전력증산

전력, 전력을 위해

어른들이 뛰고 아이들이 자라는 북창
우리 인민경제의 운명의 웨침인 전기
전기를 위해 낮과 밤이 있는 북창

오, 전력으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리라
오늘은 어제보다 더
래일은 오늘보다 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땅을 번디디고 일어서는 거인처럼
북창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봉쇄와 압살에 미쳐날뛰어도
전기만 있으면
겨울도 따뜻이 지내고
열차들은 높은 령도 단숨에 날아넘고
공장과 농촌에선 만부하의 동음소리 노래처럼
울리고
우리의 거리와 마을은 더욱 밝아지려니

우리 혁명이 어려운 때에
강선이 12만톤의 강편으로 돌파구를 열었듯이
오늘의 강행군이 어려운 때에
북창은 전력으로 돌파구를 열리라

우리 북창의 로동계급은
장군님 보내주신 인민군대와 제대군인탄부들
그들과 손을 맞잡고
기어이 전력을 증산하려니

힘을 쓰자 나의 북창이여
북창이 힘을 써야 힘을 써야
올해의 강행군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우리 조국이 전진한다
우리 혁명이 전진한다

오오
이 하늘아래
이 땅에서
장군님 높이 모시고
천만년 행복하게 살아갈 래일을 위하여
북창이 힘을 쓰기 시작했거니

하늘을 들고 일어서는 흰 연기들로
나날이 높아지는 전력생산으로
북창은 말한다
북창은 웨친다
우리는 승리하리라!

후대들은 말하리

먼 후날
후대들은 말하리
오늘에 산 우리에게 대하여
하루이틀도 아닌 수년세월
허리띠를 조여매고 장군님 따라 우리 걸은
《고난의 행군》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낮과 밤들에 대하여 다 말하리

말하리라 후대들은
허리띠 풀고앉은 풍성한 식탁앞에서
배부른 투정질하는 아이들에게
수령님을 뜻밖에 잃고
때일찍 철이 든 오늘의 우리 아이들
음식타발을 모르고 강냉이밥도 달게 먹으며
어른들과 함께 강행군을 한
오늘의 우리 아이들을 두고

말하리라 후대들은
누구보다 수고많은 오늘의 우리 녀성들
그들은 항일의 작식대원들처럼

아무것도 없는데서
모든것을 다 만들어낸 기적의 녀인들이였다고
영웅적인 사회주의 강행군의 승리엔
가정과 일터에서 뿌린 녀성들의 땀이
피처럼 진하게 배여있다고

그리고 말하리라 후대들은
전군이 오중축7련대
장군님 결사옹위의 총폭탄되여
원썹들을 발밑에 꿰어앉힌 우리 인민군대에 대하여
병사들이 피와 땀으로 닦아세운 명산들을 보며
병사들이 피와 희생으로 열어놓은 안변물길을 보며
할수 있는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한 혁명의 주력군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성에 대하여 길이 말하리라

나는 지금
먼 후날 우리 후대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것을 듣나니
자력갱생에 운명을 건
우리 로동계급이 어떻게 중소형발전소들을 일떠세

왔는가를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땅을 걸 구고 난알을 익혔는
 가를
 우리 과학자들이 어떻게 원썬들을 공포에 떨게 했
 는가를
 그때 사람들은 다 영웅이라 부르는 소리를 나는
 듣는다
 오늘의 고생을
 먼 후날 후대들의 행복에 두고
 만난을 헤치며 걷는 우리의 강행군

남들이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 때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붉은기 높이
 웃으며 강행군을 하는 우리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이나

우리의 붉은기는 그래서 좋고
 우리의 사회주의는 그래서 좋거니
 가자 인민이여 조국이여
 장군님 따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투사들이 항일의 고난의 행군을 했듯이
 우리도 사회주의강행군을 하자

래일을 보며
 오늘이 웃고

오늘을 보며
 래일이 마주 웃는
 우리의 강행군은 이제 머지 않아
 위대한 승리의 봄언덕에 오르려니

나는 듣는다
 먼 후날 후대들이 우리를 두고 하는 소리를
 그들처럼 아름다운 리상을 지니라!
 그들처럼 량심적이고 순박하고 부지런하라!
 그들처럼 붉은기를 끝까지 지키라!
 그들처럼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라!

아, 후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소리
 나는 듣는다 나는 듣는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계시여
 영웅적인 사회주의강행군은 승리했다고
 사회주의강행군의 승리는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장군님의 위대한 철학의 승리있다고
 우리 후대들이 장군님께 드리는 뜨거운 감사를
 나는 듣는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뜨거운 인사를
 나는 듣는다!

나의 길동무

김명철

걸음걸음 따라서며
 묻는것도 많을 때는 다정한 동생인가
 부드럽게 속삭일 때는
 살뜰한 어머니 같고
 잘못을 꾸짖을 때는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 같더라

인생의 먼먼길 같이 가면서
 잃으면
 길을 헛들게 되고
 속이면
 가슴아픈 후회를 하게 되고
 저버리면
 제자신의 가치도 짓밟게 되는

그 밝은 시선은
 천만의 눈빛을 한데 모은것
 그 밝은 음성은
 열백사람 목소리를 한마디에 담은것
 내 만일
 그것을 싫어한다면
 언제든지 파멸을 면치 못하려니

아, 내 한생
 조국과 인민앞에 부끄러움 없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언제나
 떠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참된 길동무
 나의 량심이여!-

영웅의 마음

동의희

최근에는 글을 쓰는 우리 작가들의 걸음이 더 한층 바쁘게 되었다. 이름없던 수수한 고장들이 세상이 들썩하게 소문을 내기때문이다.

평범한 노동자가 새로운 버섯을 연구해서 박사가 되었소, 어느 군당책임비서가 군내 전기문제를 자체로 풀었소, 어느 공장 지배인이 자체원료로 계획을 짤라 하고있소, 들리는 소식마다 가슴을 훈훈하게 해주는데 증산군 신흥리에서 한뼉 소만 관리해온 박홍원소관리공이 로력영웅이 되었다는 희한한 소식이 전국에 날아갔다.

바다에서 피여오는 안개가 허리를 감돌아 무연한 안개천지를 이루는 그 경치가 하도 장관이어서 사람들이 자꾸자꾸 모여왔다는 전설이 있는 증산땅이지만 역시 평범한 고장에 지나지 않던곳이 갑자기 유명해지였다.

내가 박홍원농장원을 찾아간 날은 마침 그가 영웅칭호를 수여받는 날이였다.

영웅아바이는 인사를 나눈후에도 별로 말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담배를 맡기만 했다.

군당일군이 새 담배갑을 터치며 권하자 오히려 자기가 가꾼 독초맛을 보라고 씹지채로 내놓았다.

반백을 넘긴 머리칼들이 성글게 덮인 차분해보이는 얼굴은 반짝거리는 영웅메달로 하여 더욱 두드러지였다.

《홍원아버지, 어서 말씀을 해야지요. 평양에서 우정 작가선생이 왔는데.》

결에 앉았던 리당비서가 민망한듯 은근히 재촉했다.

《내가 무슨 말을...》

붉어지는 얼굴에 먼구한 웃음을 지으며 박홍원농장원은 몹시도 주땃거리였다.

《그저 홍원아버지가 일한 그대로 말씀하시라요.》

《허.》

박홍원은 난처한듯 입술만 감빨았다.

《처음 여섯마리의 소를 집에 끌어들인 이야기로 시작해요.》

리당비서 리금옥이 또다시 텅겨주자

《예, 처음엔 여섯마리로부터 시작했지요.》 하여 박홍원아바이는 띄엄띄엄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홍원은 원래 농사군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농사일로 뼈가 굳은 그는 무슨 일이나 막힘이 없었다. 그중에서도 밭갈고 후치질하고 밭구를 끄는 등 소를 다루며 하는 일에 무엇이냐 능했

다. 작업반적으로도 손꼽히는 기동보잡이였다. 늘 소하고만 일하여서 소를 다루는데서는 누구도 박홍원을 당하지 못했다.

그리던 어느날 홍원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부림소를 많이 기를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농장을 찾으신 수령님께서서는 부림소 실태부터 알아보시고 소기르는 문제는 단순히 농사짓는 문제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봉쇄를 뚫고 우리 식으로 혁명을 해나가는데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었다는것을 알게 된 홍원은 눈앞이 흰해지는것을 느끼였다. 그날로 분조에 있는 소들을 다 말을 결심을 하고 집으로 끌고왔다. 도합 여섯마리였다.

《아이구나, 이 소들을 우리가 다 말을 생각하시우?》

저녁밥을 짓던 안해가 바가지를 든채 내다보았다.

《자 어서들 들어가자. 이젠 여기가 너희집이다.》

홍원은 안해의 말은 들은듯만듯 소잔등을 어루쓸며 우리안으로 들이몰았다.

마침 일을 마치고 들어서는 막내아들이 눈에 띄우자 홍원은 기다렸다는듯 그의 손에 고삐를 쥐여주었다.

《너도 한마리 말아야겠다.》

《내가 소를요? 내 일은 어떻게거요? 기계화의 시대인데 아버지는 락후하게 밤낮 소야요.》

막내의 입이 비쭉 내밀어지였다.

《이녀석, 아무리 기계화의 시대라두 기계가 할일이 따로 있고 소 할일 따로 있다. 네가 이 소관리를 잘하면 네 일도 잘되지 않나 두고봐라.》

홍원은 막내가 두말도 못하게 그의 등을 돌려세웠다.

《어이구 참, 저 령감의 고집은...》

허를 차는 안해의 목소리가 들려와도 홍원은 제 할일만 했다. 우선 여섯마리중에서 두마리는 따로 갈라내어 창고안으로 들이밀었다. 토종인 조선소가 뒀니뒀니해도 귀한 소들이다. 허리가 늘씬하고 잘생긴 이 조선소는 특별히 잘 길러 종자를 받을생각이였다.

홍원은 이날 온밤 잠들지 못하고 우리안을 들락날락거리였다.

새벽이면 안개가 축축히 흐르는 풀밭에 소들이 나갔다. 물속에나 있던듯 후줄근히 젖어든 바지가 땀을 걷어올리는 홍원이였지만 새벽이슬이 돋은

풀을 뜯는 소들을 보면 눈섭끝에 매달리었던 새벽 잠이 씻은듯 가시지였다. 낮은 낮대로 발을 가느라 녹초가 될 지경이었지만 저녁노을이 피어나는 동구 길이 미여지게 집으로 돌아오는 소들을 보면 마음은 흐뭇하기 그지 없었다.

그가 제일 질색하는건 소를 주인답게 관리하지 않으면서도 부리는데서는 혹사하는것이였다.

소를 때려모는 농장원만 보면 달려가 피대를 올리며 싸움을 걸곤했다.

《어서 날 때리게.》 하고 그앞에 자기의 잔등을 들이대면서 열을 올리였다.

《소를 천대하고서야 무슨 농사군인가 응? 어디 사네한번 때려봅세 어서.》

홍원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채찍을 잡으려 들면 그가 누구든 용서를 빌지 않을수 없었다.

부지깽이도 편다는 모내기철이였다.

씨레를 맡은 홍원은 며칠째 논에서 살다싶이했다. 분조에 배속된 트랙토르는 모내기기계의 선행을 맡고 홍원은 바로 이 구석진 논배미의 선행을 맡은것이다. 이달말까지 농장적으로 모내기를 끝내자고 뛰어다니는 판이라 선행을 맡은 홍원이가 허리결 째미 있을리 만무했다. 게다가 점심참엔 분조에 나간 소들을 찾아다가 풀을 먹여야 했다. 이 논머리언저리엔 소먹이풀이 많았다. 논씨레를 치느라 소를 몰아가던 홍원은 멈칫했다. 재글거리는 불별이 정수리를 지지는걸 보니 점심참이 다 된 모양이였다.

홍원은 고개를 들어 논머리를 바라보았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던 안해의 모습이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

《이랴!》

홍원은 내쳐 쪽으로 올라서려는 황소잔등을 툭툭 치며 돌려세웠다.

《자 한번 더 나가자. 그렇지.》

홍원이하고는 사람못지 않게 의사가 통하는 소들인지라 황소는 순순히 주인의 말대로 느슨느슨 앞으로 나갔다. 안해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려오지않았다. 아무래도 점심밥이 늦어진 모양이였다. 한바퀴 돌 때까지도 안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더위를 먹은것처럼 헐떡거리는 소를 더 다우쳐 물수는 없었다. 올해 처음으로 부리는 점백이는 눈에 띄게 힘들어했다. 아무래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것 같았다.

《자 그만두자. 옳지 돌아선다. 마라 마라.》

홍원은 점백이 잔등을 쓸어주며 둔덕으로 물고나갔다.

그제야 저멀리에서 치마자락이 감기도록 짹짹 발을 놀리는 안해의 모습이 보이였다.

땀투성이 얼굴을 닦을새도 없이 다가온 안해는 보자기를 편다 밥그릇을 내놓는다 서둘렀다.

《좋은 구경 하느라구 늦었수다. 어찌면 그리 말두 잘하구 노래두 잘하는지, 참 령감두 보았으면

...》

《쫓쫓.》

홍원은 시답지 않아 혀를 찼다.

《구경만 한줄 아나요. 회의두 했수다. 령감이 이제 락후해지지 않나 보시구려.》

《내가 락후해져? 다 알아요. 모내기를 빨리 끝내자는거겠지.》

홍원은 둔덕에서 풀을 뜯는 소들을 대견스레 바라보며 대꾸했다.

《아따 령감은 그저 소만 톱내다레. 자 어서요.》

안해의 재촉에 홍원은 군말없이 손가락을 들었다. 땀흘리며 일하다가도 이렇게 안해가 차려준 점심을 먹는것이 참으로 별맛이였다.

홍원이 밥그릇을 비우고 물러앉아 안해는 기다렸다는듯 입을 열었다.

《누가 우리를 알아나 준답데까? 점심참에도 이렇게 소끌고 다니는걸 말이유. 남들이 뭐라는지 아시유? 공수보고 소기른대요. 뭐 리기주의자라나요. 안해는 수건을 활활 흔들어대며 부채질을 했다.

《히-》

홍원은 헛웃음이 나갔다. 소 한공수에 사람노력의 배가 넘으니 여섯마리만해도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가?

(내가 공수를 바란다구?)

웃고넘기려니 입안이 말라들었다. 목안이 갈갈해오며 침조차 넘어가지 않는다.

《여보, 분조소고 뭐고 썩 그만듭시다.》

《...》

《오늘 분조장을 만나시려우?》

안해가 바짝 다가들며 따지듯 물었다.

《쓸데없는 소리.》

홍원은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시켜버리었다. 그리고는 아까부터 제 하고싶던 말을 꺼냈다.

《내려가다 말이보고 저녁에 좀 들렀다 가라구하구려.》

《왜요?》

《누령이를 잡아야 할가봐.》

《누령이를요?》

《암만해도 점백이가 팔리누만.》

《아니 봄갈이전에 집의 개들을 다 잡아먹이지 않았나요. 그리고도 종자개까지 ...》

안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였다.

《이제 여름만 지나면 새끼들이 누령이만큼 크지 않으 리.》

홍원은 여전히 범상스레 말했다.

《당신은 참.》

안해는 그만에야 아무말을 못했다. 그저 치마자락으로 눈귀만 꺾꺾 누를뿐이였다.

《여보, 당신 요진날 텔레비존에서 하는 연극봤지?》

연극소리가 나오자 시들해하던 안해의 입이 곱게

다물어지었다. 아닌게아니라 그 연극을 보면 소가 이만저만 귀한것 같지 않았다.

전쟁시기 전선에 나가는 중요한 군수품이며 군대들이 저마다 기차를 타러는데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의해 쌍둥이를 낳은 소부터 실려가는 이야기였다.

그때 박홍원은 무릎을 치며 회한해했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소를 그렇게 귀이 여기신다. 암, 소가 귀하구말구. 내가 소를 기르는건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하는게 아닌가? 누가 뭐라든 소를 기르자. 농사군이 소를 귀중히 여기는건 제일 좋은 일이다.)

박홍원의 가슴속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곳곳이 자리잡고있었다.

안해가 내려가자 박홍원은 잠시 풀밭에 허리를 펴고 누웠다. 술까지 한잔 마시었는데도 온몸을 칭칭 감은듯한 피곤이 풀리지 않았다.

안해가 남기고 간 말이 자꾸만 가슴을 번거롭게 하였다. 눈앞에서는 뭉게뭉게 피어오른 흰구름송이가 유유히 흘러가고있었다. 끝내 홍원은 일어났다.

어디선가 단조롭게 울어대는 빠꾸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있었다. 빠꾸기의 울음은 구성지다고 하는데 홍원의 귀에는 무엇인가 쉬임없이 당부하는 소리로만 들려왔다.

(점백이를 추세우고 다른 소들도 잘 기르자. 내가 소를 기르는거야 누가 알아주기를 바래서 하는게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차츰 가슴이 진정되며 훈훈해왔다. 한증탕마냥 단김을 올리던 여름철이 지나가자 누래진 강냉이잎이 서적거리는 가을철이 찾아왔다. 말짱 개였던 하늘이 번덕을 부리더니 어느새 시꺼먼 먹장구름이 짙 덮이였다. 후드득후드득 들던 비방울이 점심녘에는 한본새로 줄금줄금 내리였다.

그날도 홍원은 점심도 변변히 못먹고 뚝으로 나갔다. 비오는 날이라고 소들을 굶길수도 없었지만 팽쪽우에 넣어놓은 소풀을 빨리 거두어야 했기때문이었다.

그는 벼짚으로 엮은 뜰영을 소잔등에 씌우고 자기도 꼭같이 소들처럼 벼짚뜰영을 감았다. 비웃을 입으며 버그덕거리는 소리에 소들이 풀을 잘 먹지 못할가봐 걱정이 되는것도 있었지만 더우기는 소와 꼭같은 차림을 해야 마음이 편해서였다. 을씨년스런 날이라 들에는 사람그림자 하나 없었다. 홍원은 풀을 뜯는 소들을 한옆에 두고 풀을 베기 시작하였다. 뜰영을 꼭 적신 비발은 점점 옷속에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속일수 없는 계절이라 선풍선풍 몸서리가 치지며 오한이 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한창 풀을 뜯는 소들을 돌려세울수는 없었다. 한창 풀을 베던 홍원은 왁작 떠들어대는 소리에 허리를 폈다. 선전실이 있는쪽에서 젊은이들이 경충경충 뛰어가느라 떠드는 소리였다. 한 우산밑에 오구구 모여서

깔깔 웃는 패도 있었다.

(아차 강연회가 있다고 했지.)

그제야 홍원은 분조장이 대주던 강연회 생각이났다. 박홍원은 방푹에 널었던 풀이며 소생각에만 빠진 자기의 실수를 탓하며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정말 이러다간 안해의 말대로 립후분자가 될것같았다.

이때였다.

《홍원아버지 여기 계시는군요.》

반색하는 목소리에 이어 주르르 미끄러져내려오는 녀인은 뜻밖에도 리당비서 리금복이었다.

《아니 리당비서가 어떻게?》

박홍원은 비오는 날 독에 나타난 리당비서를 놀랍게 바라보았다.

《홍원아버지를 찾아 나오됐지요. 어서 들어가십시오. 감기들겠어요.》

리금복은 홍원에게 부득부득 자기의 비웃을 씌워주며 둔덕에 있는 포전막으로 이끌었다. 들어서자마자 한옆에 세워져있는 선정나무로 숨씨있게 불을 피웠다. 그리고는 한옆에 엉겨주춤 서있는 박홍원을 불앞으로 이끌었다.

《오늘 점심시간에 강연회를 했어요.》

《강연회가 있다고 한걸 내가 그만...》

박홍원은 벌개지는 얼굴을 숙이며 중얼거리였다.

《홍원아버지, 앞으로는 채심하세요. 소를 먹인다면 강연회같은데 빠져서야 안되지요. 오늘 강연 내용은 제가 따로 전해드리지요.》

리금복이 방긋이 웃어보이자 박홍원은 더욱 송구해났다.

《그래서 여기까지...》

홍원은 어쩔줄 몰라 찢찢맨다.

《그래야 소먹이는 아버지를 만나보지요. 소기르기가 힘들지요?》

리당비서의 따뜻한 물음에 홍원은 인차 대답을 못했다.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그였지만 우는 소리를 하고싶지 않았다.

《홍원아버지, 며칠전에 어느 한 회의를 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였어요. 지금은 총포탄이 울리지 않는 전쟁시기나 같다고하시면서 연유사정이 긴장되는 시기에 맞게 소를 더 많이 길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어요.》

《장군님께서요?》

불앞에 쭈그리고 손을 내밀던 박홍원이 흠칫 물러났다.

리금복은 박홍원의 투박한 손을 잡아당기며 옆에 앉히였다.

《웃이 다 젖었군요. 이런 비오는 날까지 들에 나오시구, 홍원아버지, 일부 농장원들속에서 소를 먹이느라 공동일에 빠져도 그래, 공수요 뭐요 하면서 뒤소리를 하는걸 알면서도 변함없이 소를 많이 기르시는걸 보니 기쁩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이 우

리 나라를 어찌보자구 하지만 어림두 없지요. 소를 기르면서 농사를 팡팡 짓는것은 장군님의 뜻입니다. 홍원아버지,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재간이 있어 장군님께 기쁨을 올리겠어요. 그저 장군님 하라는대로 하면 됩니다.》

《?!》

심장이 뛰놀았다. 가슴에 묵직한것이 꼭 들어차는것 같았다. 량손에 수류탄이나 권것처럼 마음이 든든했다.

홍원은 그런 자기의 심장을 활 터뜨리고싶었다.

입을 비쭉하던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가 하면서 혀를 차는 안해의 목소리도 들려오는것 같았다.

(소를 기르는건 장군님의 뜻이다! 장군님께서 다 알아주신다!)

눈곱이 화끈 달아오르며 입안이 말라들었다. 자꾸만 말라드는 입술을 추기였지만 왜서인지 한마디도 나가지 않았다.

한뼉 소만 다루며 소하고만 일해 온 그는 다사스럽게 말할줄도 몰랐다. 그저 수걱수걱 일만 하면서 말보다도 손발을 먼저 놀리곤하였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시뻘겍게 달아오른 불담이 그의 젖은 못에서 김을 올리였다.

젖은 나무는 불이 붙기 힘들지만 일단 묻으면 실실 연기를 날리며 곧잘 탄다.

박홍원의 가슴은 한껏 달아올랐다.

《소걱정일랑 마시우.》

한참만에 박홍원은 입을 열었다. 한마디로 자기의 결심을 표현한 박홍원은 묵묵히 모닥불을 내려다보았다.

치지직...

타들어가는 젖은 나무가지들이 인차 불길에 말려들어갔다. 너울거리는 불길은 홍원이의 가슴에 부채질하는듯했다.

(부림소를 더 늘쿠자. 우리칸도 늘쿠자. 그렇지, 사료전도 일쿠어야겠군.)

홍원의 가슴은 폭으로 넓어지는듯했다.

박홍원아바이의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중지되었다. 나의 취재도 전진할수가 없었다.

영웅이 된 아바이와 그 가족, 리당비서를 중심으로 해서 소박하게 차려진 점심식사에 나도 초빙되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이튿날 새벽에 원고작업에 달라붙었다.

소와 함께 살아온 아바이의 한생, 그 한생이 은혜로운 태양의 빛밭속에서 빛나게 된 모든 사실을 쓰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었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멀었다. 밤은 휘영청 밝은달이 누리를 비치고있었다.

그러나 나는 어디라없이 누렇게 익은 밀보리가 설레이는 둔덕에 서있는듯한 착각이 들었다.

눈앞에는 온통 금바다였다. 햇빛도 금빛이었고 대지도 금빛이었다.

나는 원고지우에 펜을 달리였다.

...어느날 홍원은 가슴이 터지는듯한 희한한 소식을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박홍원과 그가 기르는 소들을 친히 료해하시고 소들의 사진을 찍어오라고 사진사를 보내주신것이다.

(장군님께 우리 소들을 보여드리다니!)

뜻밖의 영광앞에서 온몸이 두둥실 뜨는것만 같았다. 도무지 발이 땅에 붙여지지 않고 기울기울 노닐었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린 박홍원이 헤덤비며 소들을 몰았다.

《왜 그러십니까?》

사진사를 데리고 온 당중앙의 일군이 홍원이 앞을 막으며 물었다.

《이대로야 어떻게... 미역을 줌...》

홍원은 먼지를 뽀얗게 들썩 소들을 바라보며 얼굴을 붉히였다.

《일없습니다. 저기서 풀을 뜯는 소도 그대로 찍고 일하는 소도 그대로 찍읍시다. 아버님도 그 차림 그대로 여기 서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생김 그대로의 모습을 더 좋아하십니다.》

당중앙의 일군은 밀보리 설레이는 발머리에 서있는 소들을 가리키였다.

《아니 그래두 이대로야 어떻게...》

박홍원은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자기의 흠손을 자꾸만 옷설에 문지르기만 했다.

《장군님께서 아버님을 왜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억센 두손으로 우리 당을 제일 앞장에서 지지하고 우리 당에서 내놓은 정책을 제일 높이 받든데 있습니다.》

《아니 제가요? 제가 언제요?》

박홍원은 꺾쩍 뛰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눈이 휘둥그렇게 뜨고 손을 내저였다.

《장군님께서 가슴속에 애국심을 뿌리깊이 간직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조선소를 보존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요즘같이 정세가 긴장되는 어려운 속에서도 끄떡없이 소를 길러 온 박홍원농민이야말로 《고난의 행군》을 하는 우리 대오의 맨 앞장에 서있는 핵심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요? 아니 그제...》

박홍원은 말을 더듬으며 그자리에 굳어지였다.

누런 밀밭이 온통 황금색바다로 느껴지면서 눈을 뜰수가 없었다.

《원래 소기르는 일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래전부터 교시하신 문제인데 박홍원농민은 늘 가슴에 수령님의 뜻을 안고 산 실농군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농민은 당장 전쟁이 터진대도 끄떡없이 소를 몰아갈 농민이라고 치하하시였습니다. 자신께서 시간만 있다면 그 소들을 다 보고싶다고 하시면서 저희

들을 보내신것입니다.》

《장군님!》

박홍원은 자기도 모르게 그자리에 폭 주저앉았다. 구수하면서도 들큰한 밀밭향기가 취할듯 풍겨왔다.

홍원은 어리광치듯 가슴으로 쓸어드는 밀이삭을 어루쓸며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아버님!》

《홍원아버지!》

뒤에서 리당비서며 사진사가 박홍원을 부축하러들었다.

《리당비서, 이럴 땐 어떠해야 돼우, 응?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주시우. 아, 장군님!》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을 잡아흔들며 부르짖는 홍원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었다.

그날밤에도 박홍원은 도무지 안절부절을 못하였다. 밥상앞에 다가앉았는데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술가락을 뜨는등마는등이었다. 자꾸만 헛손질을 하는 평감을 보다못해 안해가 이것저것 그의 앞으로 그릇들을 옮겨놓았다.

끝내 밥그릇을 절반도 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아니 웬일이시우? 입맛이 없어요?》

안해가 각근히 물어도 대답대신 벽시계만 흘끔보았다. 일곱시가 못되었다.

그는 버릇처럼 담배불을 붙이었다. 왜 그런지 불이 켜지지 않았다. 한동안 신고해서야 불을 붙일수 있었다.

박홍원은 묵묵히 담배연기를 날리었다. 한모금 빨고 또 시계를 보았다. 그사이 겨우 십분이 지나갔다.

박홍원은 자기의 가슴이 꼭 바짝 마른 강냉이잎이 빠지직빠지직 타들어가는것처럼 생각되었다.

애써 마음을 진정하느라 떨어뜨린 담배부스리기를 하나하나 집어 꼼꼼히 재떨이에 털었다.

《아버지, 그 아저씨들 이젠 평양 갔을가?》

한가지 생각에 움해있었던듯 막내가 하는 말이였다. 또다시 버릇처럼 시계바늘에 눈길이 갔다.

그사이 또 오분이 지나갔다.

그러니 당중앙의 일군과 사진사가 평양으로 떠나간지는 세시간 십오분이 흘러갔다.

《여보, 정말 장군님께서 우리 소를 찍은 사진을 보실가요?》

상을 치우다말고 안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시지 않구.》

홍원은 안해쪽은 보지도 않고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으로 슬그머니 살아난 미타한 생각은 점점 커만지였다.

안해앞에서 장담한 자기였지만 정말 장군님께서 언제 소를 찍은 사진을 보실지는 자신이 없었다. 얼마나 바쁘신 장군님이신가? 글썄 장군님께서 저런

소들이 무엇이길래 친히 사진사까지 보내시랴. 먼지를 뒤집어쓰고 일하던 차림의 소들과 자기 생각이 예까지 미치자 홍원은 벌떡 일어났다. 《여보, 아까 내가 무슨 옷을 입었드라.》

홍원은 마치 뒤에 누가 따라오기나 하는것처럼 헤덕비었다.

《저 옷이지요.》

웬일이냐는듯 어리둥절해진 안해가 말코지에서 옷을 벗겨내리었다.

퍼르스름한 작업복, 구겨진 앞자락에는 퍼르퍼르 풀물이 배여있다.

(내가 이 옷을 입고 사진을 찍다니.)

박홍원은 허둥거리며 작업복을 입어보았다. 이제 생각해보니 걸어올린 팔소매를 내렸던지 기억조차 안났다.

박홍원은 거울앞에 섰다. 어수선하게 일어난 머리칼밑에 주름살투성이 얼굴이 울상이 되어 바라보고있었다. 허름해보이는 작업복때문에 그 얼굴은 더욱 본꼴이 없었다.

왜 나는 남들처럼 체구도 번듯하지 못하고 이렇게 체소하담. 박홍원은 이때처럼 자기의 얼굴이 환하지도 못하고 어깨도 널적하지 못한가를 통단한적이 없다.

《아버진 이대루 사진 찍었나요?》

거울속에 어이없어하는 막내의 얼굴이 나타나자 홍원은 얼른 물러났다. 자기만이 아니라 소꼴은 또 얼마나 한심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홍원은 우리안으로 나가려다말고 빙글빙글 감은 전기줄을 풀었다.

홍원이네 방안전등은 우리안까지 갈수 있게 길었다. 깊은 밤에도 우리안을 비칠수 있게 긴 전기줄은 어느때는 동그랗게 말린채 천정의 못에 걸려있었다.

홍원이가 다 풀린 전기줄을 끌고 마당을 지나오자 우리안은 대번에 환해지였다.

비스듬히 누워 느슨느슨 새김질을 하던 소들이 일시에 홍원을 바라보았다.

홍원은 우두커니 선채 우리안에 가득한 소들을 바라보았다.

역시 소들은 한날 짐승에 불과한것들이다. 이 소들은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어데까지 갔는지도 전혀 모르고 썸평종게 누워만있다.

(저것들의 사진이 올라가다니, 한두마리도 아닌 이 소들.)

생각만해도 꿈만 같았다. 불덩어리같이 뜨거운것이 자꾸만 그들먹하게 들이차는 바람에 숨이 차올라왔다.

언제인가 막내가 뛰어와서 자기 사진이 학교 벽보판에 나붙었다고 자랑한 일이 있었다.

그날로 학교갔다온 안해가 정말 막내의 얼굴이 번듯하더라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호기심이 부쩍동한 홍원은 소를 몰고 돌아오는 저녁길에 우정 학

교까지 가서 막내사진을 본 일이 있었다.

다섯이나 되는 자식들뿐 아니라 자기 한생에도 빠졌이 찍은 사진이 어디에도 난적이 없다. 그런데 이 소들의 사진이 장군님께 올라가다니...

장군님께서 시간을 못내시여 사진을 못보신다 해도 박흥원은 한이 없었다. 그저 이것들의 사진이 장군님 계신 평양으로 간것만해도 더 바랄것이 없었다.

그러나 흥원의의 예상을 뒤집는 일이 그 이튿날 생길줄이야... 불시에 사진사와 함께 왔던 그 일군이 박흥원이네 집을 찾아왔다.

바로 어제 깊은 밤 장군님께서 친히 소들의 사진을 보아주시었다는것이다. 훌륭한 조선소들을 보신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시며 이렇게 술한 소들을 관리하기까지 박흥원농민이 얼마나 품을 들였겠는가고 하시며 박흥원농민과 그의 가족을 잘 도와준 리당비서에게 평양견학을 시키도록 일일이 날자며 참관대상까지 찍어주시었다는것이다.

(그렇게 바쁘신 장군님께서 우리 소들의 사진을 친히 보아주시고 평양으로 불러주시다니.)

그러나 박흥원이 미라한 생각을 앞세우며 우리안에서 밤을 밝히는 그 시각 장군님께서 친히 소들 찍은 사진을 보아주시었다.

(아, 이 사랑에 과연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가. 무슨 말을 해야 이 가슴이 시원할가?)

박흥원은 온 동네가 모여들어 들썩이는 방에서 빠져나왔다. 저도 모르게 발길은 우리안으로 향해진다. 그는 우리안에 쭈그리고 앉아 자꾸만 솟구치는 눈물을 씻고 또 씻었다.

며칠후 평양에 도착한 박흥원이네는 장군님께서 정해주신 일정으로 견학을 시작했다.

만경대부터 찾아가서 유서깊은 어버이수령님의 생가앞에서 사진도 찍고 유희장에서 한껏 웃어보기도 했다. 그 다음날은 봉화가 활활 타는 주체사상탑 전망대로 올라갔다. 불야성을 이룬 평양시내가 손에 잡힐듯 뵈히 보였다. 불빛이 어린 대동강의 철교 위로 달리는 궤도전차도 봉화탑우에서는 장난감처럼 보였다. 아무리 높은 고층건물도 다 눈아래에 있었다. 일생 발고랑을 누비던 흥원은 난생처음 구름발을 타고 나는듯한 꼭대기에 올라와보았다.

박흥원은 안내나온 당중앙의 일군에게 물었다.

《장군님께서 계신곳은 어디입니까?》

《저쪽입니다.》

박흥원은 사무치게 그리운 장군님의 영상을 그려보며 다시 물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계실가요?》

《장군님께서서는 정말 불면불휴의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언제 쉬시고 언제 식사를 하시는지 곁에서 늘 가르치심을 받는 우리들도 도무지 알수없습니다. 올해 그이의 탄생일을 맞으며 우리가 계획하고있는 행사일정을 말씀드리자 장군님께서서는 아직

수령님의 3년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뭘 그렇게 흥성이겠는가고 하시며 승인하시지 않았습시다.》

《? !》

박흥원은 그만 아무말을 못했다. 얼얼해나는 가슴을 부여안은채 굳어져버리었다.

눈앞에서 평곳평곳 불빛장식등이 번쩍거리였지만 그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웃음이 그칠줄 모르던 눈가가 갑자기 심각해지었다. 숙소에 돌아오는 길에서도 통 말이 없었다.

모든 행동이 실얼음을 맑는듯 조심스러워지었다.

갑자기 《아버지, 빨리요. 장군님께서 나오세요. 하고 웨치듯 목청을 높이는 막내의 소리가 들려왔다. 한발 먼저 들어온 막내가 텔레비존을 보며하는 소리였다. 환하게 켜진 화면에서는 녀성구분대를 찾으신 장군님의 모습이 방영되고있었다.

흥원은 숨을 숙이고 화면을 주시했다.

달려와 에워싸는 녀성군인들속에 계시며 환히 웃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 앞에서 녀성군인들이 복을 치며 노래를 부른다.

친딸의 집을 찾으신듯 장군님께서서는 식당안이며 창고안을 일일이 돌아보신다. 발을 동동 구르는 녀전사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장군님. 흥원은 갑자기 얼이 빠진듯했다. 그는 그자리 꼼짝않고 서있었다.

《에그머니나, 장군님께서 평양에 계시지 않는구려.》

앞에 서있던 안해가 놀라서 하는 소리였다.

평양에 올라와서 그의 마음속이 항상 혼 혼해있는것은 장군님 계시는 평양에 왔다는 자랑과 긍지가 컸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지금 파도소리 높고 바람세찬 구분대에 가계신다.

문득 안내하던 일군이 하던 말이 뇌리를 쳤다.

몽상중에는 자신과 관련해서는 그 무엇도 계획하지 말라고 당부하시었다는 장군님.

이 촌놈은이한테는 온갖 사랑 다 안겨주시고 자신께서는 끊임없이 최전연을 찾고 계신다. 그런데 어제밤에도 지금 이 시각에도 장군님 안계신다는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흥원은 꼭 자기곁에 장군님께서 계시는것만 같았다. 그랬다.

장군님께서서는 언제나 흥원의 마음속에, 그가 일하는 발고랑에 늘 함께 계시었다.

흥원은 서서히 고개를 돌리었다. 그의 눈가에 사랑의 선물들이 비쳐지었다. 천연색텔레비존수상기이며 신귀한 보약들과 나이론이불과 모포...

흥원은 심장이 터질듯한 격정을 안은채 그 모든것들을 어루쓸었다. 그러던 흥원은 고개를 버쩍들었다. 그저 앉아서 이 산갈은 은덕을 받아안을수만 없었다. 당장 내려가야 한다. 장군님께 소기른일이 그리도 큰 기쁨이 되었다면 한마리라도 더 많이 걸러 그것으로 장군님을 받들어올려야한다.

그는 한밤중에 리당비서에게 조르고 줄라 다음날

에는 해당 일군의 승인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박홍원은 그길로 앞마당에 널직하게 터를 닦고 우리칸을 늘구었다. 그는 우리안을 짝 채운 소에 대해 보고울릴 한마음으로 소를 늘어나갔다. 한두달 흘러가는 사이에 널직하던 우리안도 가득히 채워지였다. 어느덧 스물일곱마리로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날 소기르는 일에만 마음쓰던 홍원은 놀라운 소식을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소를 많이 기르면서도 농사일을 성실하게 해오는 박홍원농민이야말로 우리시대의 훌륭한 농민영웅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며 친히 자신의 감사를 보내주신 것이다.

《장군님!》

박홍원은 터지는 감격을 억제하지 못하고 얼굴은 싸쥘였다.

나는 잠시 여기서 펜을 멈추었다. 이제까지 써나가는 글줄은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 그대로였다. 그랬어도 이 마간장면은 어제 내가 목격했던 그대로 글을 끝맺고 싶어서였다.

가슴에 금별메달을 달고 돌아오는 고향길은 별스레 유정하였다.

박홍원은 읍에서 들어오는 곧바로 늘 자기가 오가던 둔덕길에 올랐다.

가리마갈이 끈게 뻗은 외가닥 길 좌우로는 누렇게 익은 벼이삭들이 무겁게 고개를 숙인채 설레이고 있었다. 밋밋하게 울러 뻗은 야산은 온통 파수원이다. 빨강고 노란 사과, 배들이 가을별을 받아 타는듯하는 등성이밑에선 하얀 메밀꽃이 파도처럼 설레이고있었다. 흰물결같은 메밀꽃을 보니 미역을 감던 칠부지소년시절로 되돌아간듯하였다. 늘보던 이 둔덕길이 얼마나 정다운지 랑긋 팔을 벌리고 안아보고 싶었다.

꿈속같은 환각에 잡혀 발을 옮기던 홍원은 처음 어디선가에서 노래소리가 울리어온다는것도 미처 느끼지 못하였다. 목메여 부르는 노래는 분명 포전방송에서 들려오고있었다. 마치 이 시각을 기다린듯 울리는 저 노래, 자기를 위해서 지어진듯하고 자기를 위해서 부르는듯한 저 노래.

...

지난날 갖은 천대받던 이몸이
오늘은 영웅으로 되였습니다
아 자애로워라 수령님품이여

홍원은 가슴이 무뎡해지여 그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영웅메달이 달린 왼쪽가슴에 손이 갔다.

(내가 영웅이 되다니? 내가 무엇을 했대구?)

더는 한발자국도 움직일수가 없었다. 이 순간 홍

원은 자기의 가슴속에, 자기의 곁에 늘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에 바로 자기 이 박홍원이가 든듯히 자리잡고있음을 느끼며 소스라쳐 놀랐다. 아무리 도리머리질을 하여도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듯 그 생각은 점점 굳어만지였다.

농촌의 이름없는 늙은이의 가슴에 영웅메달을 달아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니 인민의 가슴속에 장군님 계시고 장군님 심중에 인민이 자리잡고있는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장군님 이끄시는 으뜸가는 내 나라이다.

장군님 계시는 평양하늘을 우러르던 홍원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갑자기 걸음을 재우쳤다.

뒤에서 따르던 리당비서며 막내아들이 왜 그러는가고 물어도 그는 걸음만 다우칠뿐이였다.

집으로 돌아온 박홍원은 우리안에서부터 들어가 소들을 얼싸안았다.

《이것들아, 글썄 내가 영웅이 됐구나. 세상에 꿈만 같구나.》

홍원의 눈가는 단박에 젖어올라왔다.

소들은 마치 무엇을 알아들은것처럼 고개를 버쩍쳐들고 주억거려였다.

박홍원은 한마리한마리 어루쓸며 소들을 눈여겨보았다.

아버이수령님 영생의 모습으로 계신 금수산기념궁전에 보내고싶어서였다. 수목원을 가꾸는 일에 품이 많이 들겠는데 장군님의 사랑을 많이도 받은 우리 소가 한가지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가, 기념일때마다 장군님 찾아주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이 아닌가.

홍원은 제일 든든하고 일잘하는 소한마리를 골랐다. 스물일곱마리의 소들을 끌고 장군님을 뵙고싶은 간절한 자기의 마음을 그 한마리의 소에 담아시고 우리안을 나왔다.

며칠후 박홍원은 소방울을 절렁거리며 평양으로 들어섰다.

저 멀리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이 보이였다.

박홍원은 그자리에 멈춰서서 옷섶을 여미며 간절히 아뢰였다.

(아버이수령님, 이 소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부디 안심하시고 로고를 푸십시오. 우리는 끄떡없이 장군님을 모시고 내 조국을 지켜갑시다.

아버이수령님 찾아주신 이 하늘아래 이 땅을 가꾸며 위대한 장군님만 길이길이 모시렵니다.)

박홍원농민영웅의 마음은 그대로 온 나라 우리인민들의 충성의 한마음이였다.

사랑의 그 씨앗외 1편

엄애란

아득히 펼쳐진 백두삼천리
밀보리 설레는 벌에 나서니
몽클 가슴이 젖어드는구나
항일의 그날 김정숙어머님
내 고향 신사동에 두고가셨던
잊지 못할 두되박의 그 씨앗이 떠올라

그래서 감히 다칠수 없구나
이삭에 맺힌 한방울의 이슬도
그 방울방울의 깨끗한 이슬이
어머님 두고가신 씨앗을 불안고
등잔불아래서 목메여 흐느끼던
그날의 사람들의 눈물만 같아

세월은 흘러 반세기 지났어도
상기도 내 가슴속엔 녹지 않아라
천금같은 귀한 난알 다 털어놓으시고
천만리 싸움길에
어머님 삼키셨던 그 얼음덩어리

아프게아프게 응어리로 박혀

불어오는 바람결에 설레는 이삭이여
어머님 그리워 너도 속삭이느냐
백두삼천리벌에 꼭 차넘친 밀향기여
어머님 기다려 너도 목땀느냐

고난의 행군길 떠나시면서도
마음과 함께 두고가신 씨앗
그 씨앗이 움트고 자라
오늘은 벌가득 금나락으로 설레나니

해마다 자라고 또 자라는 이삭과 함께
해마다 커가고 또 커가는 어머님 사랑
아 어머님의 크나큰 그 사랑이
백두삼천벌을 다 안았구나
그 사랑속에
우리의 행복이 무르익는구나

하고싶은 이야기

홍단수의 물을 막아
전기를 돌리는것도
내가 할일이었어
내가 사는 집에 불빛을 주고
온돌방도 덥히니
그러니 대홍단 내 고향 사람들
누군들 성수나지 않았겠나요
제손으로 제 행복을 가꾸는데야

벼랑을 깎고 로반을 다지는것도
내가 할일이었지요
먼먼 사흘길을
한것이면 얼마든지 갈수 있는데야
땀때문에 걸어서 가겠나요
그래서 힘을 합쳐 철길도 놓았지요

제일이라 생각하니 힘든줄 몰랐어요
내 혼자서
30정보 넓은 벌을 다루면서도

아름찬 밀보리난가리
넘치는 감자무지
모두가 내뿜을 더해주는것이니까

절로야 염소때도 늘어나나요
지성이 감천이라 들인 공이지요
산마다 주렁진 황금열매도
동이채로 쏜은 구슬땀이지요

생각마세요
강행군하는 어려운 날에
우리가 가꾼 사회주의지상락원
하늘에서 그저 떨어진다고
행복이란 그저 찾아온다고
오직 제힘을 믿고
자력갱생 간고분투할 때만이
온답니다
행복도
기쁨도

부러운 고장

권태여

장작가리 바라보며
길손들 목어갔다는 고장
자강땅 십산골 겨울해 저물건만
연기피는 굴뚝은 아니 보여

낮선 집 대문을 조용히 두드리니
두손 잡아 이끄는 고마운 주인님
통성은 몸녹여 천천히 하자네
아래목 따로없으니 허물말고 앉으라네

저녁상 차리던 안주인
네모소반 무릎 바투 놓아주며
식기전에 들라네
별식은 아니래도 많이 들라네

따뜻한 대접에 꿈같은 생각
수저를 들면서도 놀라운 생각
묻기도전에 자랑을 하네
말끝을 서로 채며 웃음 굴리네

앞내천 물모아 일꾼 전기로
굴뚝없이 동자짓는 세상 산다고
불밝은 전등아래 쫓아 웃는 안주인

눈굽을 적시며 말을 못잇네

6천리 멀고먼 현지시찰의 길
눈보라 헤치시며 찾아오신 장군님
친정아버님처럼 구들을 짚어보셨다고
꽃장판 쓸어만지며 아이들을 껴안네

얼마나 부러운 고장이냐
얼마나 부러운 사람들이냐
《고난의 행군》길 다같이 걸었건만
백걸음 천걸음 앞서 뼉 사람들

제 힘으로 제 살림 뼈심들여 꾸린
자력갱생의 거울 밝은 얼굴들
제손 가두고 바라기만 했다면
오늘이 있으랴 래일이 있으랴

장군님 확신하신 최후승리의 웃음을 먼저 웃으며
강행군의 북소리 높은 강산에
락원의 행군길을 걸어가는 자강도사람들
오늘의 《강선》
장군님 지펴주신 위대한 봉화여

량심이여

리정택

량심은
돈속에 묻히길 바라는
돈벌레의 알곳은 웃음이 아니다
멋아닌 멋을 부려
제 잘난체 저만 아는체 타발질하는
해사한 얼굴 간사한 눈길이 아니다

내 생각하노니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옹호보위해온 선렬들의
혁명의 깨끗한 량심
고운 처녀가 영예군인에게 한생을 바치고
동지위해 터지는 수류탄을 한몸에 안고간
영웅전사의 땀뿜은 량심에 대해

하거니
삶은 그대로 량심이여라
량심은 빛나는 한생의 어머니여라

내 이제는 습관되었노라
드바쁜 출근길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수많은 모습들앞에서도
자신의 량심을 다잡는것이

량심이여
나의 심장이여
너는 숨길수 없는 사람의 됄됨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인간의 넋이여!

서정시 《어머니》에서 새롭게 탐구된 서정세계를 두고

류만

서정시 《어머니》는 우리 작가들과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에 서정시 《어머니》를 또다시 훌륭한 작품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서정시 《어머니》는 우리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가장 열정적으로 훌륭히 일반화한 성과작이며 우리 시문학이 도달한 높이와 풍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로동계급의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국가기관들과 모든 조직들을 인민의 복무자로 건설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시면서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한다는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듯이 돌봐주듯이 당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는 진정한 인민의 향도자로, 보호자로 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 시대에 와서 주체시문학의 주류를 이루고있는 당에 대한 송가를 창작하면서 당의 존엄과 위업과 함께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노래하는것은 시인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보통일로 되였으며 그만큼 그것은 또한 새로운 탐구와 발견을 전제로 하고있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시문학에서 당을 어머니에 비유하여 서정을 펼친 작품들이 창작되기 시작한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당을 어머니에 비유하여 서정을 펼친 작품들은 가사 《어머니당이여》가 창작되던 1960년대초를 전후하여, 특히 그 이후에 활발하게 창작되였으며 그가운데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우러르며 칭송하던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시가작품들은 전성을 이루었다.

지난 시기 우리 당을 어머니에 비유하여 노래한 시가작품들을 놓고보면 그 서정세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 귀착된다고 말할수 있다. 그 하나는 당을 어머니라는 보다 일반적인 표상, 다시 말하여 자애롭고 인자한 어머니모습으로 서정화하고있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에서 당을 어머니의 모습으로 서정화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정세계는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환희와 기쁨, 따뜻한 정으로 충만되어있는것이 특징이 었다.

서정시 《어머니》는 지난 시기 시문학에서 보여준 그 모든 서정세계를 바탕으로 깔면서 당을 어머니로 비유하는 체험과 사색의 세계를 지금까지 시들과는 구별되는 보다 새롭고 구체적이며 특색있는 높은 경지에 끌어올림으로써 참신하고 심오한 서정세계를 펼칠수 있었다.

서정시 《어머니》에서는 무엇보다도 당을 상징한 어머니라는 대상자체에 대한 시인의 체험과 느낌을 철학적으로 심화해들어간 깊은 사색속에서 새로운 서정세계를 심오하게 탐구일반화하였다.

내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
어느덧 귀밑머리 희여졌건만
지금도 아이적 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어머니,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

기쁠 때도 어머니
피로울 때도 어머니
반기여도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며
천백가지 소원을 다 아뢰고
잊을번한 잘못까지 다 말하는
이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누구에게나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추억은 눈물겹도록 가슴에 젖어오르는 다정다감한 감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한생을 살면서 때없이 어머니를 그리며 찾는 일이 헤아릴수 없이 많은것이다. 더우기 철부지시절에는 어머니없이 살수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사람이 철이 들고 나이 들어 어느덧 귀밑머리 희여진 그때에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가슴에 젖어있어도 어머니 없이 살수 없다는 생각은 사람들속에서 점차 사라져가게 되는것이다.

어머니 없이도 살수 있는 그 나이에 어머니 없이는 못산다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어찌보면 귀밑머리 희여진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수있는 그 철부지다운 순진성과 순결성에 서정시 《어머니》에서 탐구된 서정세계의 새로운 경지가 펼쳐져있다.

시인이 송구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옷깃 여미고 경건히 그리고 열렬히 우러르는 그 어머니 바로 조선로동당이다.

신성한 조선로동당을 한 시골아낙네의 이름과 나란히 어머니라 부른다는것은 얼마나 외람된 일인가. 그러나 시인은 당을 두고 어머니란 말밖에 더 존경스럽고 친근한 말을 찾지 못한다. 그렇듯 조선로동당은 시인-《나》에게 있어서

그대는 어머니!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주며
바람도 비도 죽음까지도
다 막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에 휩싸안아 대오에 세워주는
영원한 삶의 품! 혁명의 어머니!

이기때문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친어머니에 대하여 느끼는 따뜻하고 인정깊은 다정한 서정세계가 절절하게 펼쳐져있으며 거기에 더하여 자기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도 줄수 없는 고귀하고 신성한 모든 것을 다주는 당에 대하여 느끼는 우리 인민의 고상하고 숭엄한 체현세계가 웅심깊게 펼쳐져있다.

바로 당에 대한 이 웅심깊은 감정을 한 시골아낙네-어머니에 대한 느낌으로부터 시작하여 시인 자신의 생활체험에서 얻은 고귀한 진리에 기초하여 정서적으로 파고들고 사색을 심화하여 풍만한 서정의 줄기찬 흐름으로 진실하게 재현함으로써 시는 풍부한 서정성을 구현한 시형상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었다.

지난 시기 당을 어머니에 비유하여 노래한 작품들이 적지 않은 경우 당을 어머니로 표상하게 하는 그 이상의 더 깊고 심오한 세계들 파헤치지 못하였다면 서정시 《어머니》에서는 당을 어머니에 비유하여 노래하면서도 그것을 혈육적인 관계와 함께 거기에 심원한 사상정치적의미를 체현시킴으로써 당에 대하여 느끼는 우리 인민의 모든 감정세계를 응당한 높이에서 진실하게 재현하였다.

여기에 서정시 《어머니》가 도달한 높은 사상에 숭성이 있는것이다.

서정시 《어머니》에서의 새로운 서정세계의 탐구는 또한 당을 어머니로 의인화하면서 시를 소박하고 친근하고 진실하면서도 심오한 생활감정으로 일관시킨 시인의 뜨거운 느낌과 사색, 그 느낌과 사색의 결과로 얻어진 생동한 시형상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서정시 <어머니>를 좋아하는것도 거기에 소박하고 친근한 생활감정이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표현되었기때문이다. 당에 대한 송가는 <어머니>에서와 같이 꾸민데도 없고 현란한 표현

도 없지만 생활적으로 표상되고 모든 사람에게 지난날의 체험을 깊이 되살려주는 진실한 감정을 펼쳐줄 때 그 어떤 정치적내용도 형상적으로 소화할수 있다.》

당을 어머니에 비유하여 노래한 많은 시작품들 가운데서도 서정시 《어머니》가 유난한 광채와 후더운 온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에 뜨겁게 젖어드는것은 바로 거기에 당에 대한 고마움, 감사의 정, 당에 한몸바쳐 충성하려는 심장의 뜨거운 열정과 량심으로 여물치는 시인의 류다른 느낌과 사색이 안반침되어있기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많은 시들에서 당을 어머니라 불러오면서 어머니란 말을 자랑스럽게 긍지높이 웨쳤지만 당을 두고 어머니라 부르는데 대하여 송구스러운 감정에 젖어본 시는 없었다.

그것도 보통어머니가 아니라 《한 시골아낙네》의 이름과 나란히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송구함이...

당의 은덕과 사랑을 두고, 당의 위대함과 고마움을 두고 그 무엇이라 더 형언할수 없어 자기에게서 가장 가깝고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이름을 불러 주저없이 어머니라 하였건만 정작 어머니의 이름과 나란히 하고보니 불현듯 떠오르는 《나에게 젖조차 변변히 먹여줄수 없었던》 한 시골아낙네의 순박한 모습, 정녕 당을 한 시골아낙네의 이름과 나란히 할수밖에, 달리는 어쩔수 없는 시인의 심정인들 얼마나 송구스럽고 안타까웠을것인가. 그러니 젖조차 변변히 먹여못 준 어머니들이였지만 세상에서 그 품보다 더 크고 따스롭고 자애롭고 사려깊은 품을 더는 모르는 《나》에게 있어서 당이라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하고 성스런 품에 안겼을때 그 품을 두고 주저없이 어머니란 이름으로밖에 달리는 부를수 없었던것을 우리는 충분히 납득한다.

어머니나 아낙네나 본질에 있어서 다름바 없지만 어머니들 한층 더 《낮추》어서 《시골아낙네》라고 부른 시인의 속깊은 생기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다. 시인은 그만큼 우리 당을 다정하고 친근하게 생각하고 더 높이 숭상하고 존대하면서 숭고한 높이에서 우러르는것이다.

만일 시인의 뜨거운 심장의 느낌과 사색속에서 당을 두고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당의 사랑과 은정을 두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지 못하였다면 이런 숭고한 감정이 솟아나올수 없었을것이다. 또한 시인이 당과 어머니의 모습을 갈게도 보고 다르게도 보면서 자기의 운명과 성장의 갈피마다에 어린 《두 어머니》의 손길을 두고 깊어지는 사색의 심연에 붓을 적시지 못하였다면 《시골아낙네》의 모습이면서도 그에 비할바없는 숭고한 높이에서 빛을 뿌리는 당의 인자하고 존엄높은 모습을 그렇듯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우러를수 없었을것이다.

이처럼 당과 어머니를 하나의 유기체로 느끼고 사색하면서 어머니의 친근함과 부드러움과 자애를 당의 모습에 비껴담고 우리 당을 더없이 위대하고 존엄높고 신성한 모습으로 우러르는 여기에 이 시의 느낌과 사색의 심오한 세계가 있다. 그리고 한시끝아낙네와 위대한 당의 이름을 나란히 하면서도 그것이 더없이 소박하고 친근하고 진실한 생활감정으로 안겨오게 한 여기에 시형상의 높은 경지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이 작품의 임의의 시적세부나 표현을 통해서, 시형상전반을 놓고도 느끼게 되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되고있다.

서정시 《어머니》에서의 새로운 서정세계의 탐구는 하나하나의 언어표현과도 뗄수 없이 련관되어 있다.

이 시의 언어표현을 놓고말할 때 전반적으로 파장과 분식이 없고 소박하고 진실하고 참신하며 깊은 뜻을 담고있는것으로 특징적이다.

시에서 형상적인 표현을 잘 살려쓰는것은 시형상의 간결성, 함축성과 함께 뜻이 깊고 알기 쉬운 언어표현을 찾아쓰는 문제와 련관되어있다.

이 시에서 《시끝아낙네》란 표현 하나만 두고보더라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그것이 너무도 범상하고 일반적인 말 같지만 시에서 그것은 형언할수 없는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이런 표현을 비롯해서 이 시에서 언어표현 전반이 생활정서적이며 소박하면서도 뜻이 깊고 또 고도로 세련되고 함축되어있는것을 찾아볼수 있다.

지금 우리의 일부 시들이 이러저러한 사상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직선적인 표현을 쓰는데 머물고있는 실정에 비추어볼 때 서정시 《어머니》의 언어표현들은 창작실천상 매우 교훈적인 의의를 가진다.

무엇을 아끼랴 그 무엇을 서슴으랴
그대 숭엄하고 존엄높은 모습에
산줄기 빛이라도 더해드릴수 있다면
내 불붙는 석탄이 되어
어느 발전소의 화실에 날아들어도 좋아라
그대의 은정 가없이 펼쳐진
저 푸른 이랑들을 더 푸르게 할수만 있다면
내 한숨 거름이 되어
어린 모 한포기들 살찌운들 무슨 한이 있으랴

아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이여
하늘가에 흠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나는 다시 그대 품에 돌아올 그대의 아들!
그대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 목소리로 부르고 부르리라
어머니!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여기서 한줄기 빛 등 정서적색갈이 진한 언어표현은 더 말할것도 없고 불붙는 석탄, 발전소의 화실, 한줄의 거름 등 평범한 언어표현들도 얼마나 뜻이 깊게 정서적으로 안겨오는가.

고도로 양양된 시인의 내면적체험을 정서적으로 일반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인 이러한 표현을 평하여 시에서는 그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당에 보탬을 주고 당의 뜻을 받드는 그 길에 삶도 운명도 다 바쳐갈 우리 시대 인간들의 불타는 충성과 효성의 마음을 형상적으로 훌륭히 노래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시에서 빛, 석탄, 화실, 거름과 같은것을 단어 그자체의 의미로 리해하는것이 아니라 저기에 체현된 시인의 사상정서적지향을 정서적으로, 형상적으로 받아안게 되는것이다.

또한 《하늘가에 흠어 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아이적 목소리》,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등이 표현들은 아름답고 숭고하고 격양된 감정을 천백마디 설명으로 대신하여주는 참으로 뜻이 깊고 함축된 형상적인 시적표현들이다. 특히 시의 첫 련과 결구에 주어진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하는 표현만 두고보더라도 여기에는 당을 어머니로 믿고 따르며 당을 떠나서는 육체적생명도 정치적생명도 생각하지 않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 꾸밈없는 진정이 참으로 뜨겁고 절절하게, 웅심깊게 노래되어있다.

당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을 다 안으면서도 당에 대하여 누구나 가지는 이러저러한 느낌이나 흔히 쓰는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라는 어머니를 떠나서 살수 없는 절박이아기의 심정으로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느낌을 토로한 여기에 이 표현이 작품의 서정세계를 더욱 깊고 풍만하게 해주는데 이바지하는 몫이 있다.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를 비롯한 모든 시적표현들은 물론 그것이 단순한 시적표현문제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 열정적인 체험세계를 깔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때문에 그 표현 하나하나가 천만근의 무게를 가지고 독자들의 가슴에 웅심깊게 새겨지는것이며 서정의 풍만성과 심오성에 커다란 보탬을 주었던것이다.

서정시 《어머니》에 구현된 독창적인 서정세계와 그 탐구를 위해 기울인 시인의 창작적노력은 우리 시인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있다.

오늘 우리 시인들에게 있어서 당에 대한 송가, 시대의 명시를 창작하는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에 대한 송가에서는 자그마한 파장과 분식도 필요없다고 하시면서 시인이 직접 보고 체험한 느낌을 그대로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아직 우리의 일부 시작품들에 구체적인 생활을 알지 못하고 등 떠서 일반적이며 상식적인 감정을

토로하거나 시적표현에서도 하나들 통하여 하나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직선적이며 개념화된 표현에서 벗어 못나고있는 현상이 있다는것을 생각할 때 시인들의 창작적립장과 자세, 작품창작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야 할것이다.

무엇보다도 생활에 발을 든든히 붙이는것이 중요하다. 시는 생활의 문학인것만큼 구체적이며 생동한 생활이 없이는 시에서 그 어떤 참신한 서정도 떠나갈수 없다.

이와 함께 시인의 체험과 느낌, 사색은 시가 참다운 시로 되게 하고 시의 서정성과 시인의 개성을 담보하는데서 중요한 고리로 된다. 체험과 느낌, 사색이 없는데서는 개념과 상식이 자리잡고 서정이 고갈되며 표현도 일반적이고 직선적인것에 머무르게 된다. 시인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고유한 체험과 느낌, 깊은 철학적사색을 가지고 시를 써야 하며 그 래야 시다운 시가 태어날수 있다.

시인의 깊은 체험과 느낌, 사색은 시적표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할수 있다. 새롭고 절절한
담시

체험과 느낌, 사색이 있는데서만 뜻이 깊고 참신한 언어표현이 생겨난다. 그렇다고 해서 언어표현이 피동적인것으로만 되여야 한다는것은 아니다.

심오한 체험과 느낌, 사색과 동시에 언어표현에 대한 깊은 탐구가 결합될 때 보다 풍부한 서정성을 가진 개성이 뚜렷한 시작품들이 성과적으로 창작될 수 있다.

서정시 《어머니》는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주도적인 감정으로 노래하면서 그것을 시인자신이 걸어온 생활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깊은 체험과 느낌, 사색속에서 시적으로 훌륭히 일반화함으로써 사상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시대의 명작으로 될수 있었다.

우리 시인들은 더욱 분발하여 서정시 《어머니》와 같이 시대의 요구에 맞고 주체시문학의 풍격을 훌륭히 갖춘 그런 시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절개

김정철

우리 군대 전사의 절개를 꺾어보려

원썬들은 지꽃게도 달라볼었다

-승용차를 주마 귀순하지?

구미여우같은 《안기부》의 고관놈

전사는 못들은척 대답이 없다

-그럼 미인은 어때?

이번엔 요염한 너자의 사진

거들떠보지조차 않는다 전사는

안달이 난 놈은 연신 섬긴다

-딸라는? 위스키는? 나이트클럽은?

책상을 탕 치며 악에 반친놈

-도대체 네놈은 무엇을 달라느냐

시커먼 총구앞에 전사를 세워놓고

놈은 마지막주패장을 던졌다

-두 길밖에 없다, 귀순이나 죽음이나

허나 바위처럼 끄떡없이

태연자약한 인민군전사

천만뜻밖에도 그 말은

-군복이나 돌려달라 수령님 초상휘장이

모셔진 인민군하사의 내 군복...

...

승엄한 정적이 깃들었다

죽음도 어쩔수 없는 절개앞에

원썬들은 드디어 무릎을 꿇었다

-김하사, 당신이 이겼소

가시오 하사를 기다리는 그 품으로!

백두삼천리벌의 설레임소리 외 1 편

박정애

무심히 들리지 않는다
키높이 자란 아름다리 방풍림
때없이 잎새들 흔드는 소리
이삭패는 밀보리 푸른 들의 설레임소리
백두삼천리벌의 설레임소리

눈보라와 싸우며
부식토 나르고
고난속에서도 웃으며 이랑이랑 묻은 씨앗
내 흘린 땀우에 뿌리내려 자랐어도
풍년을 부르는 소리로만 들을수 없는것은

기름진 대지 이 땅이여라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벌 저 한끝까지
우리 수령님 자애론 손길
따뜻한 온기 숨배여있는곳

혈전만리 항일대전의 그날부터
장장 50여성상
깊은 밤 비오는 새벽
조국의 고산지대 5호대지 찾고 또 찾으시여
사랑에 사랑을 기울여 가꿔주신 력사의 땅

눈시울 젖어드는 마음으로

흙 한줌 쥐여보면
버림받던 땅에 숨결을 준 그 사연 전하고
밀보리 한포기 쏴해보면
바람에 날릴세라 막아주신
세월가도 못잊을 그 은정 속삭여라

내 목숨과 같은
행복의 땅 사회주의 무릉도원
너도 이해의 풍년을 불러
걱정에 목메였구나
수령님!
수령님!

감사에 넘친 가슴속 마디마디
네가 내 진정 터치는것이나
내가 네 마음 전하는것이나
나도 몰래 목소리 합치니
삼천리벌이 하늘땅 가득 설레여라

오, 백두삼천리벌의 설레임소리
수령님 안겨주신 만복 대대로 누리며
천년만년을 웨치고싶은
내 고향사람들의 심장의 메아리
다함없는 충효의 노래여

어머니는 웃습니다

진달래 고운 대홍단의 봄산처럼
홍조핀 내 얼굴
랑태머리 모습 꿈만 같아서
어머니는 웃습니다

철부지 어린애였던 내가
밀보리종자 척척 갈라내고
땅속을 들여다보며 농약을 주는
기수가 되었다고 웃는것일가요

흘러간 처녀시절
60에 다시 찾은듯
커가는 이 딸의 모습
어머니의 청춘이기라도 한듯

왜 그렇지 않을가요
열손가락 닳도록 나무뿌리 뽑아
기름진 옥토로 가꾸어갈 때는
복많은 날을 앞당겨오리
밤낮을 벌에 살며 눈물도 많고
겹겹이 시련도 많아

처녀의 아름다움보다
래일에 대한 열망으로 불태운 마음
젊음을 북방의 난바람에 날려보낸다
남몰래 애태우며 후회도 했건만

서두수 물길돌려 전기를 일으키며
물길굴에 바쳐진 못잊을 위훈
그대로 대홍단에 남아있다고
어머니는 웃습니다

어디를 둘러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대홍단의 젊은 모습속엔
어머니의 청춘이 고스란히 비껴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가장 순결하고 깨끗함으로
래일을 위해 오늘을 값높이 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하여
처녀시절을 다시 만난듯이
어머니는 즐거이 웃습니다
이 딸처럼 웃습니다

북창은 숨신다

최주원

화실은 화실마다
불을 뿜으며
타빈은 타빈마다
우뢰를 터치며
화력기지가 끓는다

준엄한 강행군길에
비약으로 내려편 조국
그 넓은 가슴에
빛을 주며 열을 주며
거센 숨 몰아쉬는 오, 북창!

이 땅에 북창이 있었음을
내 비로소 알기라도 한듯
공동시설의 굴줄을 다시 또 새겨보며
걸음앞서 마음이 달려오던곳

말해다오
흰연기 타래치는 굴뚝이여
푸른 섬광 번뜩이는 발전기여
어이하여 네 숨결 그리도 높고
어이하여 온 나라가
신심넘쳐 너와 숨결을 같이하는것이나

아, 북창의 타빈소리를
조국의 숨결로 헤아리신 우리 장군님
전기만 있으면
경제건설은 문제없다고
여기도 사회주의 지키든 전선이라고
높이 불러주신 그 이름 북창!

마치도
56년 강선의 그자리에 선듯
크나큰 그 믿음앞에
높뛰는 계급의 숨결로 대답하며
맹세도 새로이 북창은 일떠섰나니

여기에 있구나
조국에 더 많은 빛을 주려
제 심장의 불을 먼저 추켜든 사람들
여기에 있구나
조국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제손으로 제힘으로 덜어내리며
보이랴를 살리고 발전기를 돌린 사람들

무엇이었던가,
장군님 보내주신 병사들
석탄은 넘려말라 웨치며
령너머 탄전에서 발파소리 높일 때
전기는 넘려말라 화답하며
그 가슴들에 높뛰던것은

진정 그 무엇이었던가
장군님 보내주신 감사에 목매여
평양하늘 우리러 눈굽을 적실 때
그 가슴들에 굵어진것은...

오, 묻지 말자 묻지 말자
화실에 이글대는 저 열풍은
그 숨결이 옮겨붙은 불이 아닌가!
타빈에 번뜩이는 저 섬광은
그 숨결이 뿜어낸 빛이 아닌가!

장군님 바라시면
황황 타빈지는 탄덩이 되어
화실에 날아들 북창의 신념
장군님 요구하시면
하늘의 번개를 잡아서라도
땅우의 전기로 길들여 낼
견인불발의 그 의지!

그 신념 그 의지로
기적을 떨치며 지새운 밤들이
조국땅에 불이 되어 흐르고
그렇게 흘린 땀 방울방울이
이 강산에 빛이 되어 비껴간다

전기를 위하여
부강조국건설의 제1선에 선
오, 북창이여
네가 끓으니 조국이 힘을 쓴다!
네가 숨쉬니 사회주의가 비약한다!

최후승리의 대축전장에
영광의 축포를 터칠
신념의 불을 안고 우뢰를 안고...
끓어라, 북창이여, 더 한껏!
숨쉬라, 북창이여, 더 거세차게!

합성

최승칠

항쟁의 도시 광주에서는 민주를 요구하여 봉기한 수많은 사람들이 폭압자들의 총칼에 쓰러지고있었다. 미제의 지령으로 동원된 괴뢰군공정대는 젊은 사람만 만나면 대학생이건 로동자이건 장사군이건 가리지 않고 무리매를 쳐서 잡아가거나 몇마디안팎에 죽여버렸다. 군화소리가 울리면 어른들은 사색이 되었고 아이들까지 울음을 삼키며 인형을 감추었다.

방금 해가 진 초저녁이었다. 갈색잠바차림을 한 키클이 후리후리한 청년이 주력지구의 좁은 골목길을 바삐 지나가다가 큰길에서 불쑥 나타난 서너명의 군인들과 맞닥들었다. 얼룩무늬군복에 철갑모를 쓰고 가슴에 자동소총을 드리운 그들 수색조는 먹이감을 만난 짐승처럼 눈들이 커졌다.

한순간 어리뻑해있던 청년은 타산도 없이 뒤돌아 들고뛰었는데 그것은 큰 실수였다. 군인들은 그를 《폭도》로 단정하고 제격 추격했다. 곧 잡히고 만 청년은 총탄에 목덜미를 호되게 찍히우는것과 함께 여럿이 내지르는 군화발에 채워 땅바닥에 골을 찢으며 넘어졌다.

하판이 폭 퍼진 얼굴에 꺼렇게 독이 오른 병장이 손에 쥔 총을 어깨에 메며 쉼소리로 켹켹거렸다.

《오썩썩, 갈비를 확 걷어뿌린다이. 어디라고 뺨소니쳐, 쌍, 넌 눈깔만 봐두 대학생 데모군이야. 양?》

땅바닥에 쓰러져 몸을 뒤틀며 신음하던 청년은 옷몸을 겨우 일으키고 군인들을 쳐다보다가 겁에 질려 킁킁 막히는 소리로 말했다.

《아, 아닙니다. 난 담양서 동생 만나러 오는길이 입니까. 정말입니다!...》

그는 잠바의 안주머니에서 증명서를 꺼내보이며 덧붙였다. 《담양중학교 교사입니다.》

《행, 담양은 또 뭐야.》 병장은 증명서를 쥐였으나 펴보지도 않고 찢어서 어깨너머로 핵 뿌려던지며 쏘아붙였다. 《헛수작 마. 임마, 시국이 바뀐것 두 몰라? 젊은놈은 다 죽어야 하는거야.》

그의 곁에 신 토막키에 눈매가 뿔뿔보이는 상병이 손등으로 턱밑의 땀을 닦으며 덧붙였다.

《임마, 네 상관대기에 《폭도》라는 글자가 딱

새겨있단말야.》

두 사병이 청년의 팔을 뒤로 묶어 일으켜세웠다. 그러자 병장이 토막키의 상병에게 명령했다.

《진두석상병, 이놈 끌고가. 요리감이라고 민중위임에게 보고해.》

《요리감》이라는 말에 청년의 눈에서 린팡이 튀었다. 군인들은 《폭도사냥》의 실적을 올리려고 그의 증명서는 보지도 않고 찢어버린것이였다. 명령을 받은 진상병의 대추씨만한 눈에 잔인한 희열의 빛이 흘렀다. 그는 지체없이 청년을 물고 떠났다.

체포된 청년은 그가 말한대로 담양에서 중학교교사로 근무하는 문상기였다. 상기는 광주의 J대에 다니는 동생의 생사를 알길 없어 속을 태우다 못해 동생이 살아있다면 빼여돌리려고 경계초소들을 간신히 에돌아 도시에 숨어들었다가 마수에 걸려든것이였다.

상기는 너무도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이 치욕과 공포가 생시 아닌 꿈이나 야인이 하고 생각했다

(나는 시장이 든든지 못해서 자주 가위눌리는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가. 이 미친듯한 통분, 피가 얼어드는 공포, 의지마저 마비시키는 이 속박감, 이건 분명 꿈이다. 그렇다. 이건 생시일수 없어. 아궁이에서 꺼낸 돌덩어리같이 시꺼먼 호송병의 저 야인같은 상통, 담벽에 물러붙은 행인들의 어두운 얼굴과 재내가 나는 이상한 침묵, 지진을 탄듯 느리게 기우뚱거리는 어스름한 골목에 짙 찬 정적과 애수, 이건 분명 악몽속의 풍경이다.

흐리마리 이런 생각을 하며 무거운 다리를 끌던 상기는 진상병이 새된 고함소리와 함께 구두발로 배들 걸어차는 바람에 《으-》 비명을 토하며 어푸러졌다. 숨을 막으며 전신을 전율케 하는 모진 아픔이 흐릿한 뇌리에 찌곤 불꽃을 튀기며 절망적인 의식을 떠올렸다.

(아이구, 이건 꿈이 아니구나!)

포로가 도망치지 못하게 몸을 어느정도 마사놓은 상병은 쓰러진 상기의 덜미를 잡아 왁살스레 일으키고는 다시 구두발로 엉치를 내지르며 빨리 걸으라고 소리쳤다.

아픔보다도 치욕감에 견딜수 없게 된 상기는 무

맥하게 끌려가 죽을바에는 차라리 다시한번 도망치는 모험을 하는쪽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생각을 고쳐먹자 끌려가는 한걸음한걸음이 죽음의 충계를 오르는것처럼 괴로웠다.

앞쪽 어디에선가 자동차의 경적소리가 울리더니 옆길로부터 헌팅뱅이 삼륜차가 급하게 각도를 꺾어 마주왔다. 요행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한 상기는 차를 어기는채하면서 담벽쪽에 물러서서 얼마간 호송병과 나란히 걸었다. 그러다가 삼륜차가 기우뚱거리며 다가온 순간에 머리로 적수를 죽어라 들이받는것과 함께 몸을 날려 그를 차앞에 확 밀어던졌다. 소동이 났다. 불시에 받기운 진상병은 반사적으로 허공에 총을 쏘며 길복판에 나뉘어졌다. 제동이 걸린 차는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미끄러지며 앞바퀴로 쓰러진자의 철갑모를 짓조았다.

한편 문상기는 한줄기 구원의 희망을 쫓아 어망결에 삼륜차가 나왔던 옆길로 정신없이 내뺐다. 그러나 팔을 뒤로 묶이워 표가 난 그는 얼마 가지 못하고 앞길을 막아선 기동순찰대에 잡히고말았다. 한놈이 쑥 나서더니 힘자랑이나 하듯이 팡팡한 손으로 그의 목살을 잡아 몇번 치켜들다말고 확 밀쳐버렸다. 그통에 속을 뽐이운것처럼 땅바닥에 실그러진 상기는 숨이 가빠 눈도 뜨지 못하고 헐떡거리면서 자기는 담양에서 온 중학교 교사라고 다시금 맥없이 주장했지만 이놈들 역시 그의 청을 들어줄 귀가 없는지 반응이 없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싶어 눈을 떠본 상기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죽은줄로 알았던 진상병이 어느새 뒤따라와서 동료들에게서 문상기가 자기를 넘겨받고있지 않는가. 다시금 악몽과 현실이 뒤섞였다.

...둘은 묵묵히 길을 떠났다. 진상병은 걸음을 좁영기적거리고 한쪽 팔뚝이 꺼명게 상했을뿐 기세가 등등했다.

그는 포로의 구부정한 잔등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시시한 귀신이 사람 잡아먹는다더니 하마트면 고참인 내가 오히려 어리퐁해보이는 이놈의 꺾에 걸려편포작이 났번했는걸. 이놈은 나하고 같은 조건에 놓인다면 나 같은건 심심풀이로 주물러댈거야. 제가 고집하는것처럼 담양의 어느 중학교 교사라면 인생경력도 나보다는 월등하지. 새파랗게 젊은놈이 벌써 중학선생이라. 흥, 보나마나 대학물도 먹었을거구 반질반질한 계집들도 차고다니겠지. 그런데 나는 뭐냐. 어려서부터 미운살이 박혀 계모에게서 눈치밥만 먹다나니 키도 자라지 못했겠다 읊거리에

서 어깨패노릇 하다보니 중학졸업증도 따지 못했지. 군에 말뚝 박은지도 석삼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졸업이지. 서른살 넘긴놈이 장가도 못하고 고작 밤거리의 통깡치나 넘겨다보는 신세 아닌가...

진상병은 자기 인생이 초라해보일수록 세상의 년놈들이 죽도록 미웠다. 폭도이건 늑다리들이건, 마구 싸잡기고 대검으로 와락와락 휘젓고싶었다. 군대에서 정신을 증오로 비틀어다진터에 지성이니 인격이니 하는 소리따위는 듣기만 해도 욕지기를 느꼈다.

그는 문약해보이는 문상기가 자기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을 도무지 허용할수 없었다. 지어는 그가 희멸속한 호남아로 생긴것도, 그의 기가 우뚝 솟은것도 패섬했고 그 갱빳한 어깨며 머리칼이 더부룩한 뒤덜미에 지성인의 멋스러운 그 무엇이 비쳐있는것도 참을수 없었다. 진상병은 분격을 모아 상대를 무섭게 차고 때렸다.

상기는 거듭되는 행패질에 온건히 걸을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쓰러져있을수도 없었다. 발길에 배를 채워 어푸러지면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얻어맞았고 겨우 일어나 걸음을 옮기면 빨리 걷지않는다고 등때기를 호되게 맞고 다시 쓰러지곤했다.

기력이 쑥 빠진 상태에서 골목을 지나 큰길을 허덕허덕 건너간 상기는 어떤 음침한 세멘트건물로 끌려갔다.

그는 머리를 푹 떨구고 외등의 푸릿한 불빛에 번들거리는 낮은 돌충계를 간신히 올랐다. 그때 집안 어디에선가 자동총을 쏘아대는 소리가 들렸다. 런발로 쏘아대는 날카로운 먼 소리가 처음은 짧게, 다음은 조금 길게 울렸다. 어느 깊은 골방에서 사람들은 죽이는 모양이었다. 상기는 탄알이 제몸을 꿰뚫은듯한 환각과 함께 몸이 공포에 휩싸여 발을 옮길수 없었다.

《짜식, 버텨다리가 뻗어?》

진상병은 웅얼거리며 총구로 상기의 잔등을 찔러 집안으로 밀었다. 전등이 켜있는 좁은 복도에 들어선 상기는 복도의 한쪽 벽에 어깨를 박고 겨우 서 있었다.

저편 굽도리로부터 두명의 위급장교가 다가와서 상기의 물골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그중 하나는 눈살을 찌프리고 밖으로 나가고 실한 몸집에 살갗이 창백하고 반질한 중위가 입귀에 문 담배에 라이타로 불을 켜물이며 진상병에게 심드렁하게 말했다.

《흥, 랜참아. 이놈 A 부류인가? 어느 구역에서 잡

았나?》

진두석상병은 쓰더분한 표정을 꾸미는것으로 고참다운 성깔을 내비치며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민중위님께 아홉번째 진상하는 요리감 아십니까. 서북구역에서 결려든 새끼데 도중에 난동부려서 하마트면 놓칠뻔했심더.》

그리고는 납작한 코등을 찌프려 사교적인 미소를 대신했다. 중위는 담배연기를 내뿜며 턱짓으로 신호를 했다. 진상병과 중위는 상기를 끌고 복도의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어느 한 철문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꺼밋한 천정에 축수났은 전등이 켜있는 악취나는 침침한 뿡방에 내깔려진 상기는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에 어스레한 구석쪽에 청년들로 짐작되는 몇사람이 팔을 뒤로 묶이운채 어푸러져있는것을 얼핏 보았다.

쓰러진 상기는 몸을 틀어 출입문쪽을 돌아보았다. 진상병과 창백한 중위가 문을 등지고 엄엄히 서있었다. 그들은 말 한마디 없었다. 군화밑에서 돌가루가 바스라지는 소리가 귀따갑게 울렸다. 중위는 혁띠에 한손을 얹고 입귀에 문 담배를 빨며 서려오르는 연기사이로 실눈을 쪼프리고있었다. 어떤 기회에 전두환의 특별한 신임을 얻은바 있어 그 점을 코에 걸고 우쭐대는 그는 높은 직급에 비약하려고 노상 안달이 났다. 그러한 탐위욕은 엇서는 모든 자들을 사정없이 요정내고 마음껏 피를 즐기고싶은 욕망과 정비레하고있었다. 지금 그는 땀흘려 잡아온 획득물을 바라보는 사냥군의 쾌감을 맛보고있었다.

그의 표정을 본 상기는 자기의 목숨이 짧은 시간안에 한정되어있음을 깨달았다. 피할수 없이 닥친 죽음의 함정이 목시록적인 풍경으로 떠올랐다. 선혈이 불같이 타는 시뻘건 언덕너머에 학살당하는 무수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천동소리처럼 들려오는 죽음의 캄캄한 함정이 커다란 입을 벌리고 차거운 뿡기를 뽑고있는것만 같았다. 그것은 항쟁에 나섰던 광주의 술한 남너로소들을 삼키는 함정이였다. 이 도시의 대학에 다니는 동생도 필경 항쟁에 뛰어들었을것이니 그역시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죽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타고장사람이니 광주봉기에는 관여한 일도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나는 본래의 나를 밝힐수 없고 거기로 돌아갈수도 없다. 진실은 허위로 부정되고 《폭도》

라는 가짜딱지에 운명이 매이지 않았는가. 시골읍 거리에 늙은 어머니와 귀여운 약혼녀를 둔 교육자인 나의 실체는 어디로 갔는가? 나는 마구다지로 날조된 광주사람이니 이제는 죽어도 자기가 아닌 그 어떤 남을 대신하여 값없이 죽어야 하는가?

그의 짧은 한생은 백정에게 끌려가는 연약한 송아지처럼 걸음마다 뒤돌아보고 양번치면서 저 멀리 저녁노을도 꺼진 어두운 하늘밑으로 한을 품고 가물가물 사라져가고있었다. 자기를 잃어버린 상기는 눈보라의 벌판에 버려진 돌이나 다름없었다.

엄혹한 처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울분은 더욱 거세여졌다. 부지중에 상반신을 솟군 상기는 이제 그 어떤 항의도 통할수 없다는것을 알면서도 무릎걸음으로 중위에게 다가가며 한을 토했다.

《아니요. 이건 억울하요! 생사람을 왜 죽이자는거요. 난 동생 찾아 담양서 온 사람이요!...》 그는 발작적으로 푸닥거리며 울음섞인 규성을 질렀다. 《난 데모한 일 없-소-! 제발 놓아주소시오!...》

《이놈 웃기는군.》담배를 뱉어버리며 뇌까린 중위는 상병에게 조용히 말했다. 《제껴 해치우는거다.》

그리고는 부하를 데리고 방에서 나갔다. 철문이 아츠러운 마찰음을 내며 닫히고 자물쇠가 잠겨지는 소리가 났다. 상기는 세멘트바닥에 쓰러졌다. 이제는 목숨도, 번거로운 세상에 대한 미련도, 지어는 절망까지도 의미를 잃었고 시효가 지난것이였다.

살을 조이는 정적이 흘렀다. 상기는 중위가 뱉어버린 담배꽂초에서 가느다란 한오리 연기가 곧추 피어오르는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뒤쪽 어디에선가 뜻밖에 웬 너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놈들에게 빌다니, 부끄럽지도 않아요?...》

상기는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몸을 돌려 소리난 쪽을 돌아보았다. 그제야 그는 구석쪽에 각각 몸을 묶이워 쓰러져있는 세사람의 존재를 간신히 가려보았다. 먼지투성이가 된 샹츠에 피얼룩이 꺼밋꺼밋한 곱슬머리의 중년사나이의 웃몸을 발가벗기운채 입에 수건같은것이 틀어박힌 건장한 청년이 이쪽을 주시하고있었다. 세번째는 그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엎드려있는 너대생으로 보이는 애젊은 너인인데 이마로 드리운 머리칼사이로 날카로운 검은 눈이 회미하게 보였다. 상기는 자기를 줄곧 지켜보고있던 항쟁투사들로 보이는 그들이 자기를 비난한것임을 깨달았다.

상기는 그 녀자가 던진 부끄럽지 않은가고 한 그 말을 다시 생각했다. 그러나 부끄러워할 일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다. 나같이 분한 사람을 동정은 커녕 비난하다니. 녀자가 혹시 피로와서 헛소리를 친것이나 아닐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상기에게는 그들이 자기의 최후를 지켜보려고 썩 오래전부터 그자신도 몰래 그의 뒤를 소리없이 추적해온 미지의 존재처럼 느껴졌으며 자기가 부지중에 어떤 몰럼치하고 부끄러운짓을 하여 그들의 기대를 저버린것 같기도 했다. (나는 닥쳐온 죽음이 비론리적이고 무자비하다는것을 알면서도 살구멍을 찾아 버둥거리는데 저 사람들은 어찌하여 저렇게도 태연할수 있을가. 저들은 험악한 세상과의 싸움에 너무도 지쳐서 사는것도 이미 언더리나고 죽는것도 서럽지 않은 그런 절망상태에 이른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곱슬머리의 중년남자가 피얼룩과 먼지가 찍힌 얼굴을 들고 석싹한 소리로 느직느직 말했다.

《거 안됐구려. 현대 자네 광주폭동에 참여치 않은 담양사람이란건 사실인가?》

무게있는 그 사나이를 보는 상기는 쓰다듬어주는 말에 속이 치밀었다.

《정말 아니구요. 억울해요.》 상기는 상대가 자기의 무죄를 보증이라도 서줄것만 같아 설음을 묻혀내며 또다시 변명을 했다. 《동생을 빼돌리려고 간밤에 담양서 왔는걸요. 이런 내가 어떻게 데모를 했겠어요. 억울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중년사나이는 머리를 떨구고 생각에 잠기더니 쏘프린 눈을 들고 다시 말했다.

《우린 싸우다가 잡혔는데도 죽는게 분한데 자네더 딱하군... 술한 운명이 구겨지는 계절이거든. 그러니 이젠 왜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됐는가 하는걸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인생마다 교훈이 있지. 그걸 알아야 참된 사람이 아닐까? ...》

그 말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태의 인간관계를 뒤흔칠하게 판단하는 지성적인 힘과 묵직한 인격미가 풍기고있었다. 상기는 급선회로 방향을 바꿔 달리는 차에 앞은것처럼 머리가 휘둘리웠다. 죽는것이 분해서 피가 바작바작 마르는것만 같던 그는 비로소 자기의 파멸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있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들었다.

중년사나이는 허리를 상했는지 가까스로 웃음을 일으켜 벽에 기대어앉더니 말을 이었다.

《이게 다 미국놈들때문이야. 자네도 그놈들을 미워하고 민주와 나라의 자주통일을 바라겠지? 이 싸움에서는 모두가 주인이지. 구경군이 따로 있을수 없어. 주체사상을 배우면 그걸 알텐데. 생각해봐요. 온 이남땅이 일제히 들고일어났으면야 왜 이런 변을 당하겠나. 운명의 주인은 우리자신이거든...》 그는 씩씩한 표정으로 큰숨을 내불고나서 의미심장하게 말을 달았다. 《누구나 자기의 원쑤를 치지 않으면 그 적에게 자기만 아니라 겨레까지 죽게 되는 거여.》

상기는 자기의 존재와 함께 짧은 일생이 거부당한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한마디한마디가 정신의 공간을 커다랗게 울리는것 같았다. 압도해오는 죽음앞에서 헛되이 무죄를 주장하던 그는 갑자기 비쳐오는 리성의 빛살앞에서 자신의 너무도 초라한 몰골을 보았으며 광주사람들의 불행과 자신을 무관계한것으로만 생각해온 사고방식의 치졸성과 철면피에 머리가 아찔했다.

그러나 한편 투쟁의 의무를 회피하면 자신과 겨레에게 더욱 큰 불행을 끼치게 된다는것은 자기도 이미 알고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기는 몇달전의 뼈아픈 체험을 잊을수 없었다. 비바람이 부는 음산한 여름밤이었다. 담양거리의 뒤골목에 있던 그의 집에 강도가 들었다. 자다가 깨어난 상기는 전지불로 복면한 강도를 비치며 맞섰으나 허우대 큰 상대가 망치를 꼬나들고 사납게 달려드는 바람에 기가 꺾여 주춤거렸다. 그때 어머니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아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강도는 사정없이 어머니를 가눴었다. 쓰러진 어머니를 돌봐야 했던 상기는 강도가 몇가지 값진 물건을 골라쥐고 뺑소니치는것을 보면서도 어찌할수가 없었다.

자기가 강도를 처리하지 못한탓에 어머니를 중태에 빠뜨렸던 그 사건은 상기에게 수치스러운 상처를 남겼다. 때없이 아픔이 살아나는 그 상처에는 응당한 싸움을 회피한 씻을수 없는 죄가 가시처럼 박혀있었다. 그는 자기가 민중과 하나의 운명으로 묶어진 존재라면 이 도시에서 애국자들을 학살하고있는 군인깡패들도 자기 집에 뛰여든 강도와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싸우지 못했다. 하기는 상기도 광주에서 시민들이 일제히 싸움에 떨쳐나섰다

는 소식을 듣고는 무척 흥분하였고 동료직원들과 함께 담양에서도 대중봉기를 일으키려고 뛰어다니기도 하였다. 그러나 거리를 봉쇄한 무장경찰들의 위협에 자신심을 잃은데다가 광주에서 참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자 기가 꺾이고말았다.

질은 한숨을 토한 상기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을 이어나갔다. (그렇구나. 내가 소심해져서 싸우지 못한탓에 그리고 결정적인 시각에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처신했기때문에 적들은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광주에서 이런 만행을 벌릴수 있었구나. 그러니 그 원수들에게 나도 죽고 저 투사들까지 죽게 만든것이 아닌가! 이 싸움에서는 《구경군이 따로 있을수 없다》는 그 말은 얼마나 커다란 진리인가! 소심성과 구경군의 자세, 거기에 나의 죄와 죽음이 숨어있다는걸 왜 몰랐던가!)

투사들은 그를 외면하고있었다. 그들을 바라본 상기는 살인귀들에게 목숨을 애걸할것이 아니라투사들에게 미물같은 자기를 꾸짖어달라고 웨치고싶었다. 그는 생의 마지막순간을 보내고있는 자기의 가치는 그들에게 무슨 말로 어떻게 사죄하는가하는 그 하나에 달려있는것만 같았다. 몇마디라도 꼭 용서를 빌고싶은 진정에 이끌려 그는 두다리를 굽히고 겨우 일어나앉았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투사들이 이쪽을 바라보았다. 탐색적인 날카로운 시선들이 부딪쳤다. 상기는 그들의 얼굴에 어린 의혹이 부드러운 긍정의 빛으로 바뀌는것을 보고 한줄기 위안을 느끼며 말을 때려고 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할수 있겠는가. 자신의 파오와 죄는 용서를 빈다고 하더라도 이미 행동으로 만회할수 있는 여유도 없었다.

이러한 절망상태가 오히려 미칠듯한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정신적인 몸부림을 일으켰던것이다. 상기는 급작스레 무릎걸음을 치다가 울분에 꺼명게 질린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마른 입술을 떨며 헐떡거렸다. 그의 낮은 난생처음으로 높은 망루 같은곳에 올라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실책과 뼈아픈 교훈을 웨치며 그 통렬한 부르짖음으로 자기의 파멸을 엄숙한 비극의 높이에 끌어올리고있었다.

그러나 그의 웨침은 통탄파도 같은 폭발적인것이어서 음절도 없는 갈린 규정으로 터져나오다가 울

음에 버무러지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한쪽 어깨를 바닥에 박으며 어푸러진 그는 등어리들 떨며 끓는 내심의 한조각을 내비쳤다.

《돌멩이 하나 못던지고…개죽음 당하다니…이걸 어떻게 하오?…이 미물을 때려주오. 때려주오!…》

투사들은 동정과 이해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좋은 사람이군… 친구, 알겠소. 그만해요.》

웃도리를 벗기운 젊은이가 입에 물린 수건을 뱉으며 걸그렁거리는 천소리로 말하자 중년의 사나이가 끼여들었다.

《장하오. 끝내 자기를 이겼구만. 우리의 무덤을 찾는 사람들은 피가 왜 붉은 빛으로 타는가 하는걸 꼭 깨달을거요.》

다소 진정된 상기는 소리없이 울었다. 맑은 눈물이 푸들거리는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밑에 맺었다가 방울지어 떨어졌다. 그는 어쩌면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부를지도 모르는 홀륭한 저네들처럼 투사로 죽을수 없는것이 가슴아파서 울었다.

…얼마후 그들 넷은 모두 총살당했다.

창백한 중위와 키작은 진상병이 총을 쥐고 살기를 풍기며 뛰어들자 넷은 스스로 천천히 일어섰다. 세 투사는 만단심희가 어린 타는듯한 눈길을 주고받으며 중년사나이를 중심으로 하나로 엉켜들었다.

문상기에게는 그들이 범인들로서는 범접할수 없는 세상의 온갖 찬사우에 솟은 영웅들의 조각상처럼 우러러보였다. 너무도 부러워 입술을 떨며 저도 몰래 그쪽으로 한두걸음 다가가다말고 굳어진 그는 투사들의 눈에서 분명 자기를 부르는 말을 들은듯싶었다. 문상기는 공로도 없이 엄청난 표창을 받는 기분으로 와들와들 떨면서 서너메터의 공간을 지나 그들에게 안겼다. 세 투사는 이마와 어깨로 그의 몸을 다정히 쓸어주었다. 상기는 그 짧은 순간에 처음이자 마감으로 신성한 기쁨을 맛보았다.

공기를 산산이 찢는 연발사격소리 사이로 《주체사상 만세!》, 《민주 만세!》를 피타게 웨치는 소리가 들렸다.

맨나중에 쓰러진 상기는 그렇게도 부럽던 세 투사들의 장렬한 최후의 모습을 동공에 담은채 그들의 발치에서 숨을 거두었다.

인생의 천하지대본

김일규

결사전

부는 바람을 애월에 쥐고서
제법 독오른 애송이 강냉이모도
세잎 네잎을 흔들며
하고싶은 말이 있는가보다

엄소떼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재등엔 구성진 소돌이타령
돌아놓는 흙발이 발밑에 부드러워도
마음은 전갈지 앓구나
조용치 앓구나

발머리 전주대의 확장기가
드르릉- 몸을 떨며
이 가슴 두드리는 메아리
시대의 그 뜻이 심장을 두드린다
결사전!
오늘의 김매기도 결사전!
우리 운명 지키는 결사전!

우리의 살결같은 이 땅을 보아라
피와 땀을 묻지 않고
어이 낱알을 바랄소나
사랑과 정을 묻지 않고
조여맨 허리띠를 어이 풀소나

그렇더라 결사의 전투는
총창을 비껴들고 내닫는
백병전의 고지에서만 있다더냐
너 죽고 나 사는
총포탄의 대결로만 있다더냐

쌀이 없어봐라
쌀이 없어봐라
운명을 판가리하는 이 진리
너도나도 절절한 체험의 홍벽에
비장히 새겨지는 메아리
우리 운명 지키는 결사전!

할데면 하라
봉쇄인지 제재인지
악을 물고 해봐라
미치광이 잠꼬대같은 압살소동을

내 땅을 디디고 내 운명을 가꾸는
틀어진 호미날마저 기분잡쳐
가려운데를 긁는가싶다
번뜩이는 후치날과 눈맞추는 황소도
어치구니 없다는듯 코김을 킁킁 분다

오래간만에 흐릿한 하늘아
너도 비발을 준비하느냐
달아오른 이 가슴
시원히 소낙비로 씻어주렴

결사의 각오로 달아오른
이 땅이 몸에
련사흘 비 쏟아아도 식으련만은
시퍼렇게 하늘향해 머리드는 강냉이모마저
너를 바란다
결사전의 낮과 밤에 오른
먼지나 씻겨-

땅도 마음도

어느새 너풀너풀
줄지어 너풀너풀
이랑이랑 푸른 줄
강냉이모 크는 맛에 해다진다

뒤산에 빼꾸기 빼꼭
나도 몰래 휘파람 휘휘- 호호-
쏟어주고 안아주고싶은 나의 사랑
모가 크는 재미에 담배 한대 또 물고

이랑에 들어서지 않고서는 못견더
한대한대 어루쓰는 강냉이모
너도야 우쭐우쭐
반기듯 키쫓구누나

두벌짐에 후치도 지나갔으니
깨끗도 하구나

기름도 듬뿍 내서 살찌게 걸군
나의 분조 사랑하는 땅이여

노을의 옷자락이 수건같이
포기마다 쓸면서 애무하는 이 저녁
하루밤 헤여지기 이처럼 아쉬우니
이 포기포기 너는 내 사랑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김한대 없구나
구석진 밭머리 어디 보나
고운 아씨 이마같이 말금도 하다

아무렴 내 마음과 함께
내 정을 다해 가꾸는데야
이 땅도 버려두면 잡초가 성하리
이 마음도 안가꾸면 잡초가 자라리

실농군

부지런한 마음에
령감이 들어앉았다며
구수한 잎담배는 권하면서도
랑손바닥이 무르다고
반장은 아직도 멀었다 했지

실농군의 표징이 뭐 똑살인가
모내기도 김매기도 다했으니
래일은 일찍 깨서 나혼자
앞산의 풀을 다 벨테다

책상물림 헛내기라
말할테면 하라지

나이야 어떻게 당겨먹나
일욕심이 산같은 나도야 농사군인데

나 먼저 반장이
또 먼저 나오면 어찌나
래일아침엔 정말
일찍 깨야겠는데

다짐도 곱씹는 마음 결눈질했나
저녁모이 쫓던 마당가의 수탉이
나를 보며 목을 빼는 긴소리
꼭- 깨우-

추억은 래일도 아름다우리

반두질에 빨래를 다 흐려논다고
어머니 지청구도 물소리에 실려오는
산골짜기 물이 바위터
잔고기 풀대에 꿰여들고
가재구이에 해저물던 곳
내 어릴적추억이 지난해에도

아이들 그 모양에 삼삼하던 곳
우리의 장군님 새해벽두에
먼먼 북방의 눈보라길 헤치며
자강도를 찾으시여 그리도 기뻐하신
중소형발전소를 보고온 날

내가 지핀 착공의 우등불
 낮이나 밤이나 꺼질줄 몰랐어라
 몰아치는 눈보라에 붉은기 날리며
 청년분조자체로 건설한 소형발전소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물줄기를 다 모아 락차를 얻은

우리 마을 자랑인 이 발전소
 우리 힘으로 건설한 이 발전소
 먼 후날에도
 반두채 손에 들고 자박이던 물소리가
 추억의 전부였을 내 삶에
 시대의 숨결로 호흡한 땀뻗은 흔적이 있어
 추억은 래일도 아름다우리

이 풀 이 풀뿌리마저

풀단을 묶다말고
 아바이가 하는 말
 옛날에는 이런 물마저
 이고장엔 발랐다고

산에 들에
 풀이야 많건만
 이 풀 이 풀뿌리마저
 사람이 먹었다고

옛말이 아니다
 옛말이 아니다
 풀뿌리 나무껍질로
 주린 창자를 달래다는...

땅을 빼앗겨
 조국을 빼앗겨
 짓밟힌 존엄
 허덕인 인생

눈곱이 젖누나
 가슴이 쓰리다
 이 풀 이 풀뿌리가
 심각히도 마음에 맺혀

손바닥에 침을 발라
 틀어진 낮에 불이 일어라
 우리의 존엄 우리의 삶이
 내 손에 쥐어져 억세게 쥐어져

《1211 고지》

폭격에 바위마저 불타던
 그날의 고지는 아니건만
 보병삽날 갈아쥐고 육박전에 나아가던
 비장한 결사의 순간도 없건만

여기는
 《1211고지》
 오늘의
 《1211고지》

고지에 탄알이 떨어지듯

부족한것도 없지 않다
 피와 생명을 바치듯
 땀을 바치는 오늘의 이 포전도
 조국을 지키는 전호여라

모질게도 지저대는
 한여름의 땡볕에
 화끈 데는 이랑타고 김을 맬 때면
 한점 바람마저 그리운 땀 있어도

이마에 소금이 앉고

등어깨가 벌거니 부풀어도
화염속에서도 총탄을 날리던
그날의 용사들 생각
일손에 번개를 달아라

한치의 땅을 지켜
그날의 용사들 생명을 바쳤듯이
한이랑의 김을 매도
조국을 지키는 병사의 마음

1211고지를 지켜
조국을 지키듯이

오늘의 이 땅을 가꾸어
조국을 지키리

승리한 고지우에 나뭇기던
공화국기발의 그 세찬 퍼덕임
높이 쌓은 쌀산우에서
이해도 펄펄 휘날리려니

아까운 청춘과 피의 대가로
그날의 1211고지는 승리의 고지
바치는 애국의 땀과 열정우에
오늘의 《1211고지》도 승리의 고지

인생의 천하지대본

이 땅에 태를 묻고
뼈를 굳히며
이 땅을 가꾸는 인생에
이 땅은 어머니여라

살아서 땅을 밟지 않는이 없고
죽어서 땅에 묻히지 않는이 없어
그토록 사랑하던가
땅이여 조국의 대지여

사랑한다고
이 땅을 사랑한다고
빈말로 하지 말라
목숨과 바꾸는것이 이 땅이여라

세상은 넓어도
태어난 땅을 떠나 어이 살라
버릴수도 다시 태어날수도 없는 땅에
인생은 하나여라
바꿀수도 없는 이 땅에
달리는 살수 없는 인생이여라

그 누가 지켜주고
그 누가 가꾸어주랴
자기 운명

자기 삶을 남에게 맡기랴

심각한 대결의 전투는
총포성이 없는 오늘에도 있다
이 땅을 잘 가꾸는것이
이 땅을 지키는 오늘의 전투

빼앗긴 땅에서만
노예가 되는것이 아니다
제손으로 이 땅을 쫓피우지 못하면
노예의 운명은 피할수 없어라

수난의 력사가 지나간 땅이기에
피끓는 청춘들이 총대로 지키고
강행군하는 인민이 피땀으로 가꾸며
최후승리를 향해가는 내 조국이여

땅은 씨앗을 품고 낱알을 키우고
인생은 이 땅에 애국을 심어
주인의 존엄과 운명을 가꾸나니
이 땅을 가꾸고 쫓피우는 투쟁은
인생의 천하지대본이여라

-은파군 금대리에서-

초소엔 맑은 샘 외 2편

리병호

바위마저 얼어터지는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솟는 샘
우리 초소엔
맑은 샘이 있어라

기암절벽마저
불별에 데는 한여름
땀젖은 철갑모 벗어놓고
한모금만 돌이켜도
가슴이 켜-
시원히 열리는 초소의 샘

소나무 잣나무
병풍처럼 둘러선곳에
산꽃들이 무리지어 향기 풍기고
시원한 기운에 저도 몰래 이끌리는
이 샘물엔 사연도 뜨거워

순찰근무 떠날 때도
돌아오는 길에도
누구나 이앞에 서서
마음을 다잡는 샘터라네

산중에도 높은 산
아득한 평마루초소
우리 병사들이 물고생을 한다고
현지지도의 바쁜 길도 미루시며
아버이수령님 찾아주신 샘터

내 나라 어디 가나
샘물은 있다고
산세를 보니 좋은 샘이 있다고
몸소 오랜 시간 거니시며
찾아주신 샘이어서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왕가물에도 마르지 않고
솟고 솟는 맑은 샘
천길 땅속 깊은곳에서
솟는 샘이 아니라네

초소의 병사들이 수고한다고
친자식들처럼 아끼시며
사랑을 주시고 또 주시는
수령님 그 품에 시원을 두고
사시장철 솟아나는 초소의 맑은 샘

이 샘물 마시여
누구나 펴펴나는 장수병사
이 샘물 초소에 솟아
언제나 금성철벽

오 샘물
초소엔 언제나
사랑의 맑은 샘 솟고
병사들 가슴엔 그 언제나
한목숨 다바칠 충효의 샘
사시절 솟고솟아라

고향에 보내는 첫 거수경례

그처럼 입고싶던
군복을 입고
그처럼 숨엄히
총대를 메고

첫 근무에 나가는 이 아침
부풀어 설레이는 가슴 쪽 펴고
나도 몰래
궁지높이 바라보는 고향의 하늘

련련히 뻗어간 산발너머
발돋움해 키솟구나
고향뒤산의 머루향기도 풍겨오는듯
들판의 강냉이바다
그 와술령거리는 소리도 들려올듯

그 먼곳 어데선가
나를 부르는 소리도 들려올듯
노을이 비껴간 그 한끝에서
어머니 모습도 보여올듯

동구밖 멀리까지
나를 내려주던 다정한 이웃들
오래오래 손 흔들어주던
학우들의 눈빛이 어려와

병사가 된 자랑
첫근무에 나서는 영예
그들앞에 자랑하고싶건만
나도 몰래
승업해지는 마음이어

오늘만이 아닌
래일도 지켜보리
정다운 고향의 그 눈빛은
병사시절의 순간순간
조국은 나를 지켜보리니

내 땀뿔하리라
부끄럼없으리라
고향앞에
조국앞에

경애하는 장군님 위하여
총대가 된 이 몸
총폭탄이 된 이 심장
결사의 그 한순간에도
비겁하지 않으리니

그 약속
그 언약으로
피는 뿜어 심장은 높뛰고
경건히 군복깃 여미고 서서
승엄히 올리는 거수경례
고향에 보내는 이 아들의
목숨같은 맹세여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

끝없이 뻗어간 통신선따라
한자옥한자옥 순찰길 걸을 때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라
항일의 그날 통신원들의 그 모습이

포위망은 그 몇번 뚫고 나왔으며
피어린 격전은 몇차례였던가
적탄에 피흐르는 두다리를 끌며
기고
딩굴며
뚫으면서도
기어이 사령부통신을 보장하던 그 모습

내 걷는 순찰의 길에
총포성은 울리지 않고
새들이 우짖고 산꽃들 향기 풍겨도
마음은 포화의 불비속을 걸나니

그럴 때면
또다시 떠오르는 모습들
전화의 날 영웅전사들의 그 모습
끊어진 통신선을 몸으로 이으며
한목숨 다바친 그대들의 그 모습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사나운 바람이 불어칠 때도
내 마음속에 그들이 있어
한번도 주저한적 없어라
병사의 명령을 수행하는 길에
잠시나마 비를 굶고
눈바람을 그어간적 없어라

전선에서
전선으로
끝없이 이어진 통신선로
장군님 계시는 최고사령부
그 숨결이 흐르는 나의 초소

아, 그 숨결을 지켜
나의 한목숨이 있어라
항일의 날 사령부통신원들
전화의 날 영웅통신병들 그 신념 안고 살아
불비가 내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나의 초소는 언제나 끄떡없어라

사랑과 증오

황승명

순간이 천년이런가
산비탈에 기여오르는 원썬들을
조문우에 멈춰세우고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던 그 마음

바위가 불에 타고
땅이 꺼져도
원썬를 겨냥하여 흔들리지 않던
조선인민혁명군의 그 총구가
어찌하여 무거운 정적속에
오르내리고있었던가

아, 눈을 부비며 다시 보아도
점점이 나타나던 흰웃입은 사람들
정녕 그것은
꿈결에도 보고싶던 겨레의 모습

가증하여라
찢기고 피멍든 겨레의 그 동가슴을
총알받이로 내세우고
악에 받쳐 뒤따르는 원썬들

주저말고 어서 총탄을 피부으라고
소리치며 다가오던 로인은
상처입은 혁명군을 감자음에 숨기고
일구월십 지성을 다하던
산전막의 그 할아버지가 아닌가

한밤중에도 성큼
길잡이로 나서고
불탄 집터에서도
연자방아를 돌리며
군량을 마련하던 부녀회원들

봄아지랑이 피는 밭이랑에서
장군님을 모시고
함께 씨앗을 묻으며
꿈같은 행복에 울고웃던
그 사람들이 다가오고있었다
뜨거운 사랑을 안고

총구는 내리고...
다가오고있었다
사랑하고 아끼던 그 모든것을
피바다에 잠그려 살판치는
간악한 원썬들이

불타는 증오를 안고
총구는 다시 오르고...

벗과 원썬를 가려보고
사랑과 증오가 번개치며
일각이 천추처럼 더디더니
드디어 결사의 각오로
육박의 총창을 비껴들었구나

아, 돌격의 함성이 메아리치던
백두의 산발이여
전호를 박차고 내닫던
백병전의 푸른 섬팡이여

혈전의 불바다가 휩쓸고간 자리에서
원썬들의 시체를 눌러딘고
인민들을 얼싸안으며
높뛰던 그 심장이여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
그것은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혁명군의 영원한 힘의 원천이였고
무상의 영광이며
행복이었나니

원썬들은 몰랐더라
알수도 없었더라
인민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운
그것으로 하여 더더욱 타오른
사랑과 증오의 그 불길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보복의 불벼락이 되었는데가를

삼룡산

구월산기슭 룡산리라는곳에 가면 동북쪽으로 세 개의 나지막한 산봉우리가 솟아있다.

아름다운 전설이 깃든 삼룡산이 있는 고장이라고 하여 마을이름도 룡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너무도 오랜 옛날이어서 딱히 어느해인지는 모르나 일년열두달 한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아 논과 밭의 곡식은 다 말라죽고 땅을 밟으면 푼싹푼싹 뽕안 먼지구름만 피어오르던 때가 있었다.

왕가물이 한해도 아니고 몇해를 두고 계속되어 땅에 명을 걸고 살아오던 이 고장사람들이 얼마나 큰 재난을 당했는지 모른다. 이제는 우물까지 말라들고 마실물 한모금 없어 뼈죽음이 나군했다.

사람들은 살길을 찾아 정든 고향을 등지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갔다.

마을에는 연기사라는 총각이 살고있었다. 그의 생활도 떠나는 사람들과 다를바가 없었지만 남달리 고향을 사랑하는 젊은이였다.

그는 선조들의 뼈가 묻힌 이 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부지런히 일했다. 그는 날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도 해다 팔고 산짐승도 잡아다 팔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날도 총각은 아침일찍 지계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때는 늦은 봄철이지만 얼마나 가무는지 꽃들은 물론 나무잎들도 다 말라 가을처럼 누렇게 황이 들고있었다.

총각은 불꽃만 튀겨주면 마른잎처럼 타버리고 말 것같은 산판을 돌아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이 일을 어떤단말인가?)

그는 너무도 답답하여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고있었다.

이때였다. 등뒤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리었다.

(이른아침에 누가 벌써 이 산중에 나타났을까?)

총각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소리나는 쪽을 살폈다. 그런데 얼마 멀지 않는곳에서 뽕안 먼지구름이 일어나더니 그속으로 웬 사람 하나가 다가오고있었다.

자기앞으로 가까이 오는것을 보니 누런빛이 도는 비단옷을 입은것이 분명 지체높은 량반집 귀동자였다.

(저렇게 지체높은 량반이 이런 험한 산속에 어찌하여 올라왔단말인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총각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고개숙여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총각은 너무도 당황하여 그앞에 넙적 엎드리며 인사를 받았다. 인사성이 밝은 그는 늘 먼저 인사를 해왔는데 량반한테서 이렇게 인사까지 받고보니 몹시 당황했던것이다. 그는 땅에 머리를 조아린채 가카스로 말했다.

《황송하옵니다. 비천한 농군에게 인사를 하는것은 당치 않은 일이오이다.》

그 량반은 가까이 다가와 총각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하였다.

《이러지 말고 일어나시오이다. 나는 량반이 아니라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오이다.》

총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다. 그는 산마다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왔지만 이렇게 직접 체능으로 보기는 난생 처음이였다.

산신령은 놀라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공손히 입을 열었다.

《놀라지 마시오다. 나는 그대에게 긴한 부탁이있어 급히 왔소이다.》

총각은 그 말을 듣고야 조금 마음이 놓였다.

《무슨 부탁인지 어서 말씀하시오이다.》

산신령은 총각에게 다가와 누런뭇 두개를 주면서 말했다.

《이 두개의 뭇을 래일아침 해뜨기전에 이 봉우리와 나란히 서있는 저 두 봉우리 꼭대기에 하나씩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는 큰 부자가 될것입니다.》

산신령은 그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총각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한편 큰부자가 된다는 말에 귀가 번쩍 띄었다. 돈한푼이 없어 부모

님께 약한첩 못써보고 숨지게 한 그로서는 못두개를 박는것이 그리 어려운것이 아니었던것이다. (그런 부탁이야 못들어줄가.) 총각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산신령이 주고간 두개의 못을 품에 간수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가 집에 와보니 그의 오막살이는 간곳 없고 그자리에는 고래등같은 기와집이 서있는게 아니겠는가?

광마다 쌀과 돈이 가득가득 쌓여있었다. 정말이지 세상에 둘도 없는 부자가 되었던것이다.

그는 자리에 누웠으나 꼭 꿈을 꾸는것 같아 뜯는으로 밤을 새우고 어둑새벽에 봉우리를 향해 길을 떠났다.

총각은 동녘하늘에 불그레한 노을이 피어날 때 젊은 산신령이 가리켜준 옆봉우리에 올라섰다.

그는 잠간 땀을 흘리고 품속에서 못을 하나 꺼냈다.

못을 먹 박으려고 할 때 어디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이상해서 그쪽을 살펴보니 얼마 멀지 않은 숲속에서 어여쁜 처녀가 슬피슬피 울고있는것이 아닌가?

총각은 못을 박으려다 말고 멍청하게 서있는데 그 처녀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다가왔다.

《아가씨는 어디에서 사시기에 이른새벽 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울고계십니까?》

총각은 동정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이 산봉우리를 지키는 산신이옵니다. 그대가 그 못을 박으면 저 악한 가물룡이 살아나고 저는 죽게 됩니다. 제발 그 못을 박지 말아주십시오.》

처녀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애원하였다. 총각은 어쩔줄을 몰라 멍하니 처녀만 바라보았다.

(어제 나타났던 량반은 누구이고 이 처녀는 또 누구란말인가?)

총각이 결심을 못내리자 처녀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그대가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는 그대의 안해가 되어 일생토록 행복하게 살게 해드리겠나이다.》

(예라, 나같은 농군이 부자라는것이 당할 일이야.

어떻게 불쌍한 처녀를 죽게 한단말인가?)

마음씨 착한 총각은 차마 못을 박지 못하고 집어 던지고말았다. 그러자 어여쁜 처녀는 얼굴에 웃음을 띠우고 기뻐하며 눈물을 거두었다.

《전 그대의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처녀는 이런 말을 남기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총각은 어안이 빙빙해서 딱 무엇에 홀린듯한 감을 느끼며 할수없이 산을 내려다.

집에 오니 어제 있었던 고래등같은 기와집은 간곳없고 그전날의 오막살이초가집이 그대로 서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꽃같은 처녀가 방긋 웃으며 맞아주었다.

총각의 가슴속으로는 따뜻한 정이 흘러들었다. 그가 방으로 들어서자 처녀는 진수성찬을 차린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총각은 처녀를 쳐다보며 생각했다.

(내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 하마트면 저 어여쁜 처녀를 죽일번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기까지했다. 가난한 살림이라 나이가 들도록 장가도 들지 못하였던 총각은 정말 행복했다.

이제 이 처녀와 손잡고 농사를 지으면 세상에 부러울것이 없을것 같았다. 단 며칠을 산다해도 이런 행복을 버리고싶지 않았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가 된다해도 이런 행복과는 대비도 되지않을것 같았다.

이런 행복속에 시간은 흘러 첫밤이 지새고 밝아오는 새벽이 되었다.

총각은 옆에서 깨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처녀가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옆에 앉아있었다.

《그대에게 한가지 부탁이 있어 그러나이다.》

《무슨 부탁인지 어서 말해보오. 그대의 부탁이야 못들어주겠소.》

총각이 대답했다.

《날이 밝기전에 이 못 두개를 첫째봉우리와 셋째봉우리에 박으사이다. 만약 이 못을 박지 못하면 저도, 그대도 큰 복수를 당하게 될터이니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박아야 하오이다. 그러면 전 영원히 그대의 안해가 되어 행복하게 살수있나이다.》

처녀는 품속에서 못 두개를 꺼내주었다. 총각은 처녀를 버리고싶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못을 받아 들고 산봉우리를 향해 올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셋째봉우리에서 때아닌 갯가지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우짖는게 아닌가? 숲속으로 들어서니 시원한 기운이 돌았다.

그가 봉우리꼭대기에 올라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동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총각이 해 뜨기전에 빨리 박아야겠다고 생각하며 품속에서 못을 꺼내어 막 박으려고 할 때였다.

어디선가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총각이 집을 나설 때 처녀가 한 말도 있고 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끼를 쳐들었다.

《여보게, 그 못을 박더라도 내 말 한마디만 듣고 박게.》

뒤에서 인자하면서도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총각이 돌아보니 새하얀 수염을 가슴까지 드리운 로인이 서있는것이였다.

《무슨 말씀인지 어서 하소이다.》

총각이 재촉하자 로인은 점잖게 수염을 내리 끌고 나서 입을 열었다.

《나는 이 봉우리를 지키는 백룡이네. 나는 자네가 만났던 황룡, 청룡들과 날마다 싸울래기 자네네 마을에 비한방울 내려주지 못했네. 그래서 자네네 마을에 가물이 들고 떼죽음이 나는거네. 자네가 나를 도와준대도 나는 황룡처럼 부자가 되게 못해주고 청룡처럼 안해도 될수 없네. 그러나 나는 다달이 약비를 내려 해마다 풍년이 들게는 할수 있네. 그러니 자네 마음이 내키는대로 처신을 했으면 하네.》

로인은 그의 손에 흰못 두개를 쥐어주고는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그는 손에 들었던 도끼를 땅에 놓으며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지러버렸는가. 그것도 모르고 하마트면 황룡과 청룡의 폐임에 빠져 저만 아

는 속물이 될번했구나.)

총각은 후하고 깊은 숨을 내쉬고는 처녀가 준 못을 멀리 집어던지였다. 그러자 마음도 한결 가벼웠다.

그는 그길로 산을 내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처녀는 간데없고 띄약벌만 쏟아붓던 하늘에 비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너무도 기뻐 옷이 젖는줄도 모르고 비를 함뿍 맞았다. 그러자 타들어가던 곡식들이 살아나고 누렇게 황이 들었던 나무들도 기뻐서 춤을 추는것 같았다.

뽕얀 먼지만 일던 땅도 비물을 달게 받아 함뿍 물을 적시였다.

정말 만물을 소생시키는 약비였다.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기운을 얻고 산과 들은 푸른 빛으로 단장했으며 새들이 우짖는 소리가 정답게 들려왔다.

총각은 하늘에라도 날아오를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 무슨 일을 저지러버린 했는가? 재산이 탐나고 안해가 그리워 그들이 하라는대로 했다면 화목한 저 이웃들을 모두 죽일번했구나.)

총각은 이렇게 뉘우치며 백룡이 시킨대로 흰못두개를 황룡과 청룡이 사는 봉우리에 박았다. 그러자 젊은 량반과 어여쁜 처녀로 둔갑했던 황룡과 청룡은 아름답리 구랭이가 되여 너부러지는것이였다.

그러자 또다시 마을에는 절기마다 비가 내리고 말라들었던 샘줄기에서는 맑은 물이 뿜뿜 솟아났다.

그때부터 이 고장사람들은 가물과 홍수를 모르고 농사를 지으며 자자손손 화목하게 살았다.

이곳 사람들은 아직도 세 룡이 싸우던 산이라하여 산이름을 삼룡산이라 했고 마을이름도 룡산리라고 부른다.

로효식

내 고향은 농촌입니다^{외 1 편}

문용철

아침이면 실실이
뜬김을 피워올리는
마당가의 그 두엄내
싫지 않게 말아보았습니까?
햇서리에 곱게 익은 빨간 감
제손으로 따봤습니까?
내 고향은 농촌입니다-

고향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통 곡식이 자랐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동네분들 걸썩
손이 자래운
강냉이바다 와슬렁거림소리가
아직도 내 귀전에 가까운
어릴적 나의 추억입니다

다문다문 들꽃이 핀 강언덕
그밑으론 조약돌이 어른어른 비추이는
따뜻한 시내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들은 방치높이 빨래하고
우리들은 제종아 물장구치고
버들숲 저기에선 우리 마을 처녀들이
곱게곱게 젖은 머리 빗었습니다

풀언덕에 덩구는 송아지의 무리속에 끼우면
잘도 어울릴 그런 아이였습니다
집오래에 높이 쌓은 짚더미에
곤두박쳐 뛰놀다가도
분이네 할아버지 밭구름에
와 들새처럼 텅기여 달아나던 그 시절을
오늘도 웃습니다
어스름이 내려앉는 저녁이면

들에서 밭에서 돌아오는
뜨락또의 동음소리 황소의 영각소리
그리도 화음이 잘 맞던
내 고향 들길입니다

밥짓는 저녁연기 자욱하고
창문마다 반짝반짝 불켜지던 그 저녁
우유같은 달빛속에
함초롬히 고개숙인 벼이삭
시집가는 철이네 누나같은 그밤은
정말 어느 화가에겐가 부탁하고싶었습니다

하루송아지마냥 발달게 뛰놀아도 끝이 없고
그러다 자빠져도 부드럽게 안아만 주던
내 고향의 거룩한 흙밭입니다
비가 와도 비맞으며 걷고싶고
눈이 와도 눈맞으며 거닐고만싶은
내 고향의 들길입니다

푸르청청 하늘높은 가을이 오면
분배장 높다란 쌀더미에
수령님 초상화 높이 모시고
뽕매기, 통새납에 그 은덕을 노래하며
풍년떡을 철썩철썩 치군하던
내 고향 사람들의 땀내나는 인정미가 그림습니다

아 비내리는 가을 이 저녁
못견디게 그리운 우리 수령님
풍년이 든 그 들길에 뒤집짚고 서계실것 같아
이달음에 달려가 안기고싶은
수령님과 유별나게 정깊은
내 고향은 농촌입니다-

미래를 아껴

저녁연기 구수한 마을길에
뜨락또르 세우고
나구는 빙그레 웃는 말로
떠들썩한 담너머를 가리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주머니들!
그애들이 옷자락에 흙을 좀 묻히며
이 땅을 뛰놀았던들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꽃치마에 흙한점 묻어도

발 동동 구르며 울상짓는

《앵무》같은 처녀애보다는

얼마나 끝끝한 험한장부들입니까

보십시오

종아리가 벌개서도 씩- 웃는 모습을

제 고향 제 땅에

그렇게 덩굴어도 못보고서야

장차 조국과 고향 위할 큰 사랑은

어떻게 간직하고 키워갑니까

조국이 아닙니까

투사들이 흙 한줌을 품에 안고

그렸다는 조국이 아닙니까

그애들이 밭벗고 뛰여논 그 땅, 그 흙

이랑짓고 씨뿌리면 인민의 곡식이 푸러르는

그 대지가 아닙니까

팬스럽다 마십시오

저녁무렵 그애들이 듣고있는

들판의 풀벌레소리를

그애들이 하나 둘 썬제가는 하늘의 별을

그애들이 얼굴들어 보고있는 들판의 저녁노을을

작은 마음 어데선가

조국애가 파릇파릇 움트는 시각입니다

우리 혁명의 먼 하늘을

끝까지 내려쳐 날아야 할 작은 수리들이

깃 다듬는 시각입니다

그애들이 신을 벗고

수령님 자옥어린 그 이랑우를

조심조심 걸어갈 때

그애들의 별빛눈이

수령님 앉으셨던 돛자리를 오래오래 더듬을 때

아 다치지 마십시오

조국과 세월은 통채로 그애들의것입니다

주먹보다 더 크게

그애들이 그린 벼알그림을

함부로 가르침들지 마십시오

아버지들이 수령님께 못다드린 풍년충정을

우리의 **김정일**장군님께 두손 모아 드리려는

충효의 눈물겨운 세계가

그 벼알에 어려있으니...

아끼시라!

혁명이 힘겨웁게 가꿔온

봄 여름 가을

그 해빛넘친 수확의 계절에 살 우리 아이들을

김정일장군님의 손길아래

만고대풍 무르익을 사회주의 황금열매

아름벌게 따고 거둘

우리 혁명의 저 가을농부들을!